



정답과 해설

I 교과서 개념 학습	2
II 적용 학습	12
III 실전 학습	107

I 교과서 개념 학습

- 001 ② 002 ② 003 ③ 004 ③ 005 ⑤ 006 ②
 007 ⑤ 008 ③ 009 ⑤ 010 ② 011 ② 012 ④
 013 ② 014 ④ 015 ④ 016 ④ 017 ④ 018 ③
 019 ⑤ 020 ⑤ 021 ① 022 ⑤ 023 ②

교과서 개념 학습 01

본문 10~13쪽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수록 「메밀꽃 필 무렵」의 동일 작품

해제 | 이 작품은 이효석이 1936년 「조광」에 발표한 단편 소설로, 작가의 고향에서 멀지 않은 봉평, 대화 등을 배경으로 장돌뱅이의 삶을 서정적으로 형상화한 소설이다. 장판이 끝난 후 서로 다툼 허 생원과 동이가 대화까지 밤길을 함께 걸으며 혈육의 관계를 서서히 확인해 가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은 토속적인 어휘와 서정적이고도 낭만적인 묘사로 한국 근대 소설의 백미로 평가된다.

주제 | 떠돌이 삶의 애환과 인간의 근원적 욕망

전체 줄거리 | 왼손잡이 장돌뱅이 허 생원은 과거 어느 여름 달밤에 우연히 하룻밤 정을 나누고 헤어진 성 서방네 처녀를 잊지 못해 봉평 장을 거르지 않고 찾는다. **※교재수록부분** 허 생원은 장판을 일찍 끝내고 주막을 찾았다가 젊은 장돌뱅이인 동이가 총죽집과 수작하는 것을 보고는 심하게 나무라고 따귀까지 때린다. **※각주수록부분** 그날 밤, 다음 장이 서는 대화까지 허 생원은 동업자인 조 선달과 함께 밤길을 걸으면서 성 서방네 처녀와 있었던 기막힌 인연을 또다시 들려준다. **※교재수록부분** 이들과 일행이 되어 대화 장까지 같이 가던 동이에게 낯의 일을 사과하던 허 생원은 동이의 집안 사정 이야기를 듣다가, 동이를 낳고 친정집에서 쫓겨났다는 동이의 모친이 성 서방네 처녀일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 허 생원은 대화 장이 끝나면 동이의 모친이 산다는 제천으로 가기로 결정한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소설의 서술상 특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었던 작품입니다. 서술상의 특징과 감상의 적절성, 작가의 관점 및 주제 의식, 소재의 의미,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효석 특유의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문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물들의 관계와 낭만적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면 「메밀꽃 필 무

렵」의 어떠한 장면이 출제되더라도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0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나)에서 허 생원이 계집과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다), (라)에 제시된 단 한 번의 인연이 갖는 의미를 부각하는 효과를 갖는다.

오답 피하기 ① (가)의 서술자는 전지적 서술자로 ‘허 생원은 변치 않고 언제든지 가슴이 뛰놀았다.’와 같은 구절을 보면 인물에 대해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심리까지 파악하여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단 한 번’은 허 생원의 인연이 유일무이한 것이었음을 의미하고, ‘오늘 밤도 또’는 그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두 표현이 대비되면서 인물 간의 심리적 갈등을 심화하는 것은 아니다.

④ ‘물방앗간’은 과거 허 생원이 성 서방네 처녀와 인연을 맺은 공간이고, 이후 허 생원은 처녀를 만나지 못하고 또 다른 인연도 만난 적이 없으므로, ‘물방앗간’이 과거 상황과 현재 상황의 동일성을 드러내는 장치는 아니다.

⑤ 장돌뱅이를 그만두고 전방을 차리겠다는 것은 조 선달이고, 허 생원은 장돌뱅이 생활을 계속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인물 간의 대화가 불우한 처지를 극복하려는 주인공의 굳은 결심을 부각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002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②

정답 해설 (가)의 ‘허 생원은 봉평 장을 빼는 적은 드물었다. ~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 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려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를 보면 허 생원에게 봉평은 마음의 구심점임을 알 수 있다 (ㄱ). 또한 (다), (라)의 내용을 보면 허 생원은 ‘단 한 번’의 인연인 성 서방네 처녀와의 인연을 봉평에서 맺었고, 그 이야기를 반복하며 여전히 봉평 인근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보아 허 생원에게 봉평은 가난하고

쓸쓸한 삶을 견디게 해 주는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ㄷ).

오답 피하기 나. 성 서방네 처녀와의 인연이 있던 밤의 일을 '무섭고도 기막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기억이 강렬했다는 의미이고, 그날 밤에 대한 이야기는 봉평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봉평을 '현실 너머로 이어 주는 상상의 통로'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ㄷ. 허 생원이 젊었을 때 모았던 돈을 투전으로 다 날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봉평을 '젊은 시절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게 하는 곳'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03

작가의 관점, 주제 의식 파악

정답 ㉓

정답 해설 [A]의 분위기는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것으로, 이는 이 작품에서 허 생원이 경험한 사건의 서정성과 낭만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와 같은 특징을 보여 줄 수 있는 문학제를 '집'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㉓의 내용이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문안이다.

오답 피하기 ㉑ '역사와 전통'은 [A]의 분위기나 작가의 작품 세계가 지닌 특징과 어울리지 않는다.

㉒ '소박한 농촌의 맛'은 [A]의 분위기나 작가의 작품 세계가 지닌 특징과 어울리지 않는다.

㉔ '서도'는 황해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강원도 봉평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룬 이 작품과 작가를 소개하는 문학제 문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㉕ [A]의 분위기나 작가의 작품 세계가 지닌 특징이 '서러운' 정서와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문안은 적절하지 않다.

004

소재의 의미 파악

정답 ㉓

정답 해설 ㉓의 '밤길'은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긴 이야기를 하기에 적합한 특성을 드러내는 시공간이지 인물의 어려움과 암담한 처지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㉑ 장돌뱅이에게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은 그 자체가 삶의 여정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㉒ '길가'는 허 생원이 모든 것을 잃고 나귀만을 건진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슬퍼하고 위로하는 공간이다.

㉔ 외출로 늘어진 '길'에 동이는 꿈무늬에 서서 허 생원의 이야기가 '확적히는 안 들리는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㉕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거꾸러질 때까지' 건졌다는 그 '길'은 성 서방네 처녀를 만났던 과거와 그 이야기를 나누는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질 것임을 암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005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 ㉑

정답 해설 ㉑의 '-는'은 관형사형 어미이고, ㉒~㉔의 '는'은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교과서 개념 학습 02

본문 14~16쪽

작자 미상, 「홍계월전」

▶ 수록 「박씨전」의 유사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명나라를 배경으로 남장을 한 여주인공 홍계월의 고행담과 무용담을 엮어 놓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여성 영웅 소설이다. 여성임이 밝혀진 후에도 또다시 중책을 맡아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등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여주인공을 통해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고 봉건적 가치관에 맞서는 근대적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 주제 | 홍계월의 뛰어난 능력과 활약상

| 전체 줄거리 | 명나라에서 홍 사랑 부부의 무남독녀로 태어난 계월은 어렸을 때 겪은 반란에서 아버지와 헤어지고, 수적(水賊)을 만나 어머니와도 헤어진 후, 여공에게 구출된다. 여공은 계월에게 평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계월을 자신의 아들인 보국과 함께 길렀는데, 계월은 장원으로, 보국은 부장원으로 과거 급제한다. 서번과 가달국이 중원을 침범하자 계월과 보국은 출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계월은 부모와 상봉한다. 전쟁에서 돌아온 계월이 병이 나자 어의가 진찰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계월이 여자임이 밝혀지고 이에 천자는 보국과의 혼인을 명한다. 천자의 명으로 마지못해 혼인은 했지만 계월은 보국과 자주 갈등하게 된다. 다시 전쟁을 맞아 계월과 보국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고개수목부분** 이 과정에서 계월 덕분에 목숨을 구한 보국은 계월의 우월함을 인정하며 결국 계월과 보국은 행복한 부부가 되어 살아간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작자 미상의 「박씨전」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인 인물과 사건, 배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박씨전」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역사 군담 소설로 박 씨라는 가공인물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실제 있었던 전쟁을 배경으로 하며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에 출제되었던 작자 미상의 「홍계월전」과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홍계월」이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이해한다면, 작품의 갈등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대표 문항뿐만 아니라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 여부를 묻는 문항까지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006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㉔

정답 해설 [A]에서 어의는 평국의 맥이 여자의 맥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천자는 평국의 얼굴이 곱고 체격이 작아 여자처럼 보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평국이 여성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에서는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켰으며, 십여 성을 항복 받고 장안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A]에서 정황을 전달하는 주체는 어의이며, [B]에서 정황을 전달하는 주체는 남관장이다. 정황을 전달받는 천자가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③ [A]에는 천자가 ‘평국의 얼굴이 도화색이요, 체격이 작고 약하여’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인물의 외양 묘사가 드러나고 있으나, [B]에는 과장된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A]에서는 어의가 천자에게 평국이 여자라는 것을 보고하고 천자는 이를 누설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장

면만 묘사하고 있고, [B]에서는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킨 순간부터 순차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어, [A]와 [B] 모두 여러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A]는 천자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문제 해결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B]는 반란군이 ‘장안을 범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어진 명장을 보내어 막’아야 하는,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007

규절의 의미 파악

정답 ㉑

정답 해설 ㉑은 홍계월이 혼인한 이후 규중에 거하였으므로 천자가 오랫동안 보지 못하여 그리웠다는 말이다. ‘규중에 처’한다는 것은 홍계월이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므로 조정에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규중에서 홍계월은 ‘매일 시비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으므로, 홍계월이 집안일에 매달려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피하기 ① ‘치하는 ‘남이 한 일에 대하여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을 표시함.’을 뜻하는 말으므로 ㉑은 평국과 보국이 여공에게 엎드려 절하며 먼 길을 와 준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② ‘경동’은 ‘놀라서 움직임.’을 뜻하는 말으므로 ㉒은 홍계월이 아픈 사실에 집안사람들이 매우 놀라며 밤낮으로 치료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느낀다’는 말은 ‘서럽거나 감격에 겨워 운다’는 말이고, ‘중형한다’는 ‘거침없이 마구 오간다’는 말므로 ㉓은 부모 앞에서 서러움에 겨워 눈물을 터트리는 홍계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④ ㉔은 지금은 혼인하여 규중에 거하며 여성으로 살고 있는 홍계월을 다시 불러내어 전쟁터에 내보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천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00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㉑

정답 해설 평국과 보국이 천자의 명에 따라 한 궁궐에 거하면서 ‘위의와 거동이 천자나 다름이 없’었다는 내

용은 있지만, 이로 인해 천자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보기>에 의거할 때, 홍계월에게 닥친 2차 위기는 보국과의 혼인 이후 규중에서 보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천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천자가 남관장의 장계를 보고 크게 곤란하여 온 조정의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는 자리에서 우승상 명연태가 '좌승상 평국을 보내어 방비하올 것'이라며 홍계월을 추천하고, 다른 신하들도 평국의 '이름이 조야에 있다'며 이에 적극 찬성하는 장면에서 홍계월의 뛰어난 능력을 짐작할 수 있다.

② 평국이 어의가 다녀간 후 '본색이 탄로 날' 것을 짐작하고 '이제는 할 일 없이 되었으니, 여복을 갈아입고 규중에 몸을 숨어 세월을 보냄이 옳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참여에 제약이 따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위공과 정렬부인이 여공에게 '어지신 덕택으로 세월을 구하사 친자식같이 길러 입신양명하게 하시니'라고 말한 부분에서 여공이 어린 시절 1차 위기에 처한 홍계월을 구하여 도와준 조력자임을 알 수 있다.

⑤ 혼인 이후 여성으로서 살면서 남편과 갈등을 겪으면서 '규중에 홀로 있어 매일 시비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던 홍계월이 천자의 부름을 받아 '사직을 안보하게 하라.'라는 명을 받는 부분에서 국가의 위기와 개인적 고난을 동시에 극복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주제 | 선악이 구별되지 않는 모순된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

| 전체 줄거리 | 가난을 면해 보려고 지폐 위조단이 된 가족은 빌딩에 유령 회사를 차려 놓고 사원 모집 광고를 낸다. 누명을 써서 전과자가 된 정직하고 미련한 청년이 사원으로 채용된다. 청년이 사기단에게 받아 사용한 달러가 위조임이 밝혀지자 가족은 사기극을 중단하고 청년의 사원 채용 사실조차 부인한다. 결국 청년은 경찰서로 연행되고 **★교제 수록 부분 8 수록 수록 부분** 일가족은 임대료를 물지 않기 위해 몰래 도망친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오영진의 「정직한 사기한」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극의 특성과 극문학의 구성 요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기한」은 2016학년도 9월 고2 학력평가에 출제되었던 작품으로, 작품의 내용 파악,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모순 형용으로 표현된 제목의 의미와 당대 시대에 대한 풍자를 이해할 수 있다면 「정직한 사기한」의 어떤 부분이 출제되더라도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009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사원 병은 청년 때문에 지폐 위조가 실패했다고 말하고, 사원 갑은 청년을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청년을 동정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사복은 청년의 말을 거짓말로 치부하고 사장의 말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청년은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씨를 부르며 아씨는 거짓말을 안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③ 사장은 청년을 생면부지라고 하면서 모른 채하고 있다.

④ '결국 또 실패지.'라는 말과 '그 미련한 녀석 때문에 단단히 손해 봤다.'라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1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B]에서 청년이 위조지폐로 양복을 구매하려 한 일은 사복의 말을 통해 제시되고 있을 뿐, 무대



교과서 개념 학습 03 본문 17~18쪽

오영진, 「정직한 사기한」 ▶ 수록 「정직한 사기한」의 동일 작품

| 해제 | 가족으로 구성된 위조지폐 사기단이 선량한 청년을 속여 위조지폐 행각에 끌어들이는 내용을 통해, 1949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혼란하고 가난한 서민 생활을 바탕으로 배금주의 풍조, 타락한 양심의 일단을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는 정직한 인물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모순된 현실 상황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공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사복이 청년의 뺨을 때리고 의견을 묵살하는 일은 인물의 행동과 대화로 제시되어 있다.

③ [C]의 ‘인마, 떠들지 마라, 가자! (억지로 끌고 나간다.)’ 등의 내용을 보면 해당 내용은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지갑에서 진짜를 꺼내 대조하며’를 보면 해당 내용은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도안과 잉크, 종이기가 틀리다고 다투는 사원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해당 내용은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 개념 학습 04

본문 19~21쪽

가 박인로, 「선상탄」

해제 이 작품은 전쟁 가사의 대표적 작품으로, 임진왜란이 끝난 후 부산에 통주사로 부임한 작가의 상황과 심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작가는 왜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우국충정, 그리고 설분신원할 것을 다짐하며 기개와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판옥선을 탄 현재의 상황과 연관 지어 현원씨와 진시황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고, 풍류를 즐기던 배를 떠올리며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등 전란에 대한 관념과 감정을 다양하게 담아내고 있다.

주제 우국충정과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마음

구성 서사: 병선에 올라 바라보는 바다의 적막함

- 본사 1: 배를 처음 만들었다는 현원씨를 원망함.
- 본사 2: 왜적이 생겨나도록 한 진시황을 원망함.
- 본사 3: 풍류와 흥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배를 떠올림.
- 본사 4: 판옥선을 타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함.
- 본사 5: 왜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 본사 6: 왜적을 무찌르고 설분신원할 것을 다짐함.
- 결사: 태평성대를 염원함.

나 정약용, 「파리를 조문한다」

▶ 수특 「조침문」의 유사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정약용이 전라도 강진 유배지에서 파리를 의인화하여 조문의 형식으로 쓴 글이다. 정약용은 파리를 가뭄과 흑한, 돌림병, 관리들의 학정까지 겹쳐 굶어 죽게 된 가엾은 백성들의 화신(化身)으로 보고, 기구하게 사는 인간의 무리인 만큼 죽이지 말라고 한 후 음식을 차려 조문했다. 불쌍한 백성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민의 정과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서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잘 드러난 글이다.

주제 굶주려 죽은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탐관오리들의 학정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 경오년(1810년) 여름에 엄청난 파리 떼가 생겨 나자 사람들은 파리 떼를 섬멸하려 하였다. 그러나 글쓴이는 파리 떼가 가뭄과 흑한, 돌림병, 관리들의 학정에 의해 굶어 죽은 가엾은 백성들의 화신이라는 점에서 파리 떼를 죽이지 말 것을 당부한다. 글쓴이는 조문을 지어 파리가 임금이 계신 북쪽으로 날아가 탐관오리의 학정을 임금에게 고발하여 탐관오리들을 벌한 후, 더 이상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되었을 때 남쪽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한다. **★교과서 수록 부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유사 부인의 「조침문」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교술 문학의 특성과 구성 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조침문」은 글쓴이가 오랜 세월 동안 애용하다가 부러진 바늘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뜻을 기록한 수필입니다. 이 작품은 글쓴이의 심정을 조문(弔文) 형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5학년도 7월 학력평가 B형에 출제되었던 정약용의 「파리를 조문한다」와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파리를 조문한다」는 박인로의 「선상탄」과 함께 연결 지어 문항 등이 구성되었는데, 두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글쓴이)의 현실 인식과 그 원인, 그리고 이에 대한 화자(글쓴이)의 태도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교술 갈래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작품에 사용된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011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화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배를 만든 현원씨와 불사약을 찾기 위해 일본에 사람들을 보낸 진시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원

망하고 있다. 따라서 [B]에서 화자는 배를 만들어 왜적이 침범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헌원씨’를 원망하고 있지, 추모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A]에서 화자는 늙고 병든 몸이 ‘주사’로 임명되어 을사년 여름에 ‘진동영’에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다.

③ [C]에서 화자는 비록 배가 있더라도 진시황이 왜적을 생기게 하지 않았다면 대마도에서 왜적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하며 ‘진시황’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우리나라의 ‘문물’이 ‘한당송’에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적’의 침략을 받아 씻을 수 없는 원한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며 ‘왜적’의 침략을 받아 원통해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E]에서 화자는 궁달의 길이 달라 임금을 모시지 못 하고 늙어 가더라도 ‘우국단심’을 잊을 때가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01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㉔에서 글쓴이는 대비를 통해 어진 이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고, 소인배가 비방만 하고 있는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결국 백성들이 모두 죽어 가는 상황에서 호소할 곳도 없고, 도와줄 이도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㉑은 기근, 추위, 전염병, 가혹한 착취를 열거하여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② ㉒은 ‘~ 마찬가지로 존재가 아니라.’라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파리를 죽은 백성들로 인식하는 글쓴이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㉓은 ‘파리’를 ‘그대’라고 의인화하여 굶주려 죽은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㉔은 ‘변개처럼’, ‘우레처럼’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임금님 위엄이 떨쳐지기를 바라는 글쓴이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013

다른 작품과 비교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가)에서 화자는 ‘배’가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가)의 ‘배’는 화자에게 시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에서 ‘빈 배’는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오는 화자의 무욕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의 ‘배’는 화자가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머물러 있다가 떠난 공간과는 관련이 없다. <보기>의 ‘빈 배’는 화자가 무심한 달빛만 싣고 돌아오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에 해당한다.

③ (가)의 ‘배’와 <보기>의 ‘빈 배’ 모두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가)의 ‘배’는 화자가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상적인 삶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보기>의 ‘빈 배’ 역시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오는 화자의 무욕의 정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삶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⑤ 계절적 배경과 어울려 풍류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은 <보기>의 ‘빈 배’로, (가)의 ‘배’는 계절적 배경과는 관련이 없다.

01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가)의 화자는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주사로 임명받아 ‘진동영’으로 내려와 배 위에서 ‘우국단심’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왜적을 이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를 실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피하기 ① (나)의 글쓴이는 파리를 가뭄과 흑한, 돌림병, 관리들의 학정까지 겹쳐 굶어 죽게 된 가없는 백성들의 화신이라 여기면서, 조문의 형식을 통해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헌원씨와 진시황과 같은 과거의 인물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다.

③ (나)의 글쓴이는 백성들이 작년의 큰 기근과 혹독한 추위, 그리고 이로 인한 전염병의 유행, 가혹한 착

취로 인해 죽게 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⑤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글쓴이는 해와 달이 빛을 비추듯이 임금이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어 백성이 굶주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EBS

교과서 개념 학습 05

본문 22~25쪽

가 작자 미상, 「춘향전」

▶ 수록 「춘향전」의 동일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시대 전라도 남원을 배경으로 하여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판소리계 소설이다. 표면적으로는 양반 자제 이몽룡과 퇴기 딸 춘향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그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신분적 제약을 벗어나려는 인간 해방의 주제 의식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춘향과 이몽룡이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어 사랑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정절을 지키려는 춘향의 굳은 의지와 탐관오리를 혁파하는 이몽룡의 모습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제시문은 부친의 승진에 따라 이몽룡이 남원을 떠나는 부분으로, 이별을 슬퍼하는 춘향이 이몽룡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

| 주제 | 춘향의 굳은 절개와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 안타까운 이별로 인한 비애감

| 전체 줄거리 | 춘향은 남원읍에 사는 퇴기 월매의 외동딸이다.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인연을 맺지만 이 도령의 아버지가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가게 됨에 따라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된다. **★교재 수록 부분** 춘향은 새로 부임한 남원 부사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한 이유로 옥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겪는다.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와 변학도의 생일잔치 날 각 읍의 수령이 모인 자리에서 통쾌하게 여사출두 하여 부사를 파직한 뒤 춘향을 구해 내고 백년해로한다. **★교재 수록 부분**

나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 해제 | 이 작품은 판소리 「춘향가」의 일부분을 노래로 만든 조선 시대의 잡가이다. 당시 인기 있었던 판소리 「춘향가」에서 청중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부분인 춘향과 이 도령의 이별 장면을 따로 떼어 노래하고 있다. 한편, 잡가는 조선 시대 문학 작품 중

일부를 수용하여 당대의 정서를 표출하였고, 또 그중 일부가 국악, 민요 형식으로 현대에 계승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선 시대 문학이 현대로 계승되는 과도기적인 문학 양식이라 할 수 있다.

| 주제 | 이별로 인해 춘향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비애감

| 구성 | 1~16행: 몽룡과의 이별을 거부하는 춘향

• 17~23행: 춘향을 떠나는 몽룡과 이를 막아서는 춘향

• 24~26행: '이별'이라는 글자를 깨뜨려서라도 이별을 막고 싶은 춘향의 마음

• 27~39행: 이별을 수용하고 몽룡을 떠나보내는 춘향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작자 미상의 「춘향전」을 현대시인 박재삼의 「수정가」와 함께 수록하여 작품의 문학사적 맥락과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당대 민중들이 지녔던 사회적 염원을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과 탐관오리인 변학도에 대한 징계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춘향전」은 모의평가 및 학력평가 등에서 여러 번 출제되었는데,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는 작자 미상인 「춘향이별가」와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다양한 작품에서 춘향이 다양한 면모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두 작품에 형상화된 춘향의 특징을 파악한다면, 춘향을 다룬 다른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015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 ④

| 정답 해설 | (가)에는 진시황의 분서 사건, 박광사와 관련된 사건 등의 고사가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별 상황에 직면한 춘향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을 뿐 춘향이 당면한 상황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기 위해 활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피하기 | ① 도련님은 '어르신네 공조 참의 승진'으로 인한 이별은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며, '네 말이 다 못 될 말이니, 아무튼 잘 있거라!'에서 알 수 있듯이 상황의 불가피함을 말하고 있다.

② '이런 일이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하지 아니하였소?'에서 알 수 있듯이 춘향은 처음 만날 때부터 이별의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하였다.

③ '제비가 되어 도련님 계신 처마에 집을 지어, ~ 도련님 품으로 들어가 볼까!'에서 알 수 있듯이, 춘향은 도련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제비'라는 자연물에 의탁하여 드러내고 있다.

⑤ '옥황전에 솟아올라 억울함을 호소하여'에서 알 수 있듯이, 춘향은 할 수만 있다면 이별의 억울함을 천상의 존재인 옥황에게 호소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016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㉔의 앞부분 내용인 '도련님은 사대부라 여기저기 청탁하여 또다시 송사에 지게 하겠지요.'를 고려할 때, '판결문'에는 춘향이 송사에 패소하는 내용, 즉 도련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판결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광한루에서 날 호리려고'에서 알 수 있듯이, '명문'을 쓴 것은 춘향이 아니라 도련님이다.

② '본관 원님께 이 사연을 하소연하겠소.'에서 알 수 있듯이, '소지'에는 춘향의 억울함이 담겨 있을 것이다.

③ '순사또도 같은 양반이라 또 나를 패소시키거든'에서 알 수 있듯이, '편지 한 장'은 도련님이 춘향과의 친밀감을 강화하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순사또에게 재판에 대해 청탁하기 위해 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도련님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⑤ '마음속에 먹은 뜻을 자세히 적어'에서 알 수 있듯이, '상언'을 쓸 때는 '순사또'의 힘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춘향이 직접 자신의 생각을 쓸 것이다.

017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백 년 살자 언약할 때 / 물을 두고 맹세하고 산을 두고 증삼 되자더니', '이제 와서 이별이란 웬 말이오'를 고려할 때, ㉔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맹세가 깨져 버린 상황에 대한 춘향의 심화된 슬픔이 담겨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한 이해라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휘휘칭칭 감아쥐고라도 날 데리고 가시오'를 고려할 때, 여인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삼단같이 좋은 머리'채를 잡혀서라도 이 도령을 따르겠다는 춘향의 말은 자신의 머릿결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별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② '두어 두고는 못 가시리다'를 고려할 때, 문맥상 ㉔는 초월적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통해서라도 이별을 막고 싶은 춘향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③ 춘향이 이별을 막기 위해 도련님이 탄 말의 꼬리를 잡자 말이 춘향의 가슴을 차는 모습은 안타깝고 절박한 상황을 희화화한 면은 있지만, 이것이 현실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산첩첩 수중중한데'를 고려할 때, 춘향은 이 도령과 이별하게 되면 그와의 재회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018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나)에는 이별을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슬픔을 하소연하는 춘향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별 후 자신이 겪을 고난에 대해 말하며 도련님의 마음을 돌리려는 춘향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는 춘향의 치밀한 면모도 확인하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춘향은 자신의 억울함을 '원님, 순사또, 형조, 한성부, 비변사' 등에 하소연하여도 그들은 같은 양반인 도련님의 편을 들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신분 제도가 있었던 당대 민중이 양반들에 대해 지니는 것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춘향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② (가)에서 '소지, 소장' 등을 통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패소하더라도 '팔만장안 억만 가호'에 걸식하여 종이를 구해 임금께 '상언'을 쓰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바탕으로 춘향의 적극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④ (나)의 ‘할 수 없이’에서 알 수 있듯이, 춘향은 이별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주안상을 차려 송별연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이별 상황을 받아들이는 춘향의 수용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⑤ (가)와 (나) 모두에서 춘향은 ‘이별’이라는 글자를 만든 사람을 자신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천하장사 항우’로 하여금 그 글자를 깨치게 하고 싶다고 말하며 이별 상황에 놓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복받친 감정을 토로하는 춘향의 격정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019

외적 증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 ⑤

정답 해설 [B]에는 ‘이별이라네 이별이라네 이 도령 춘향이 이별이로다 / 춘향이 도련님 앞에 바짝 달려들어 눈물짓고 하는 말이’라고 말하는 서술자 역할을 하는 화자와 ‘도련님 들으시오 ~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라’라고 말하는 춘향의 역할을 하는 화자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역할이 다른 두 화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춘향과 이 도령이 이별하는 장면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것을 <보기>에서 언급한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이 엮여 작품이 구성되었음을 알게 해 주는 단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A]에서 도련님은 자신에게 닥친 이별의 안타까움을 ‘생논 나을 일’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등장인물의 내면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장된 표현을 <보기>에서 언급한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취지와 관련지어 이해한 것은 적절하다.

② [A]에서 춘향은 이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도련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들이 거듭되어 진술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보기>에서 언급한 분량을 늘리려는 잡가의 담당층의 의도와 관련지어 이해한 것은 적절한 감상이라 할 수 있다.

③ [B]의 첫 행의 경우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별이라

네’로 시작하고 있다. 이런 집약적인 표현은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도입 방식을 <보기>에서 언급한 청중을 작품 내용 안으로 빠르게 끌어들이려는 전략과 관련지어 이해한 것은 적절한 감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한 작품 속에서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면 그 의미나 정서가 강조되기 마련이다. [B]에 표현되어 있는 ‘못 가시리다’의 반복을 <보기>에서 언급한 청중의 공감을 유발하려는 목적과 관련지어 이해한 것은 적절한 감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 개념 학습 06

본문 26~29쪽

박태순, 「정든 땅 언덕 위」

▶ 수록 「무너진 극장의 유사 작품

해제 | 이 작품은 1966년 9월 『문학』에 발표된 박태순의 단편 소설이다. 총 18편의 박태순의 연작 소설 『외촌동 사람들』 가운데 초기의 작품으로, 박태순의 연작 중에서 대표적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은 나중애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부류의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면서 도시 변두리에 살고 있는 소외된 삶에 대해 애정 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민중의 굳건한 생명력을 포착해 내고 있다.

주제 | 도시 변두리 사람들의 굳건한 생명력

전체 줄거리 | 빈민촌인 외촌동에 사는 나중애는 이 동네를 떠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정의도를 사랑한다. 나중애는 무허가 막걸리 집의 접대부 제의를 거절하여 집안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마을을 떠난 애인 정의도를 기다리고 있다. 고리대 금업자 변 노인이 서독에 광부로 나가 있는 자기 아들과 서류상으로 결혼을 하여 가족 수당을 나누어 갖자고 유혹하지만 거절한다. **★교재 수록부분** 나중애는 아끼던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외촌동을 떠날 결심을 한다. 나중애의 애인 정의도가 돌아온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박태순의 「무너진 극장」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작품의 사회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묻고 있습니다.

박태순은 쿠데타와 혁명, 산업화와 빈곤의 굴곡진 현대사를 목도하고 이를 냉철한 필체로 형상화한 작가입니다. 「무너진 극장」이 1960년대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인 4·19 혁명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묻고 있는 작품이라면 2011학년도 수능특강에 수록된 박태순의 「정든 땅 언덕 위는 산업화 시대 도시 빈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을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인물들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 대응하는 심리 상태 등을 당대의 시대 현실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면 박태순의 다른 작품이나 비슷한 시대의 문제를 다룬 다른 작가의 작품들과 문제들도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020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변 노인이 아들이 보낸 편지를 소개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서술자가 개입하여 변 노인의 아들이 편지를 보낸 의도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ㄷ). 그리고 변 노인과 종애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ㄹ).

오답 피하기 ㄱ. 이 글에서 서술자의 교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ㄴ. 이 글에서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나중애가 '막상 정의도의 거처를 찾아낸다는 것도 문제였고'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정의도의 거처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편지에 담겨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ㄱ) '그가 꼭 반감계 대해 줄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다.'라고 서술한 부분에서 정의도가 나중애에게 사랑의 확신을 주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ㄴ).

오답 피하기 나중애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바란다는 내용(ㄷ)이나 나중애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ㄹ)과 관련한 언급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02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편지에서 변 노인의 아들은 광부 생활은 여전하고, 저금도 조금 했다고 했으므로, 변 노인 아들이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편지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편지 이야기를 꺼내는 변 노인의 욕망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면 물질, 즉 돈에 대한 욕망을 알 수 있다.

② 돈에 대한 변 노인의 욕망과 거짓으로 혼인 신고를 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변 노인 아들의 욕망이 일치하고 있다.

③ 편지의 내용처럼 가족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나중애와 거짓으로 혼인 신고를 해야 하므로 편지에서 드러난 욕망을 충족하려면 나중애의 협조가 필요하다.

④ 변 노인은 나중애에게 자신의 제안을 이야기하지만 나중애는 그것이 달갑지 않으므로 서로 욕망이 부딪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2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은 상대방의 제안대로 문서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신세는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것이다. 이는 항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이익을 따져서 물은 말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이후에 이어지는 변 노인의 말을 보면, ㉠은 상대의 말에 담긴 의미를 명확하게 듣고자 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다그쳐 물었다.'라는 것으로 볼 때, 매달 사천 원만 주면 자신의 인생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 반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맑은 하늘을 뒤덮어 오고 있는 시꺼먼 구름장 같은 것이 바로 자기에게로 덮쳐지는 듯한 느낌에서 진저리를 쳤다.'라는 구절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⑤ 싫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II 적용 학습

- 001 ④ 002 ④ 003 ① 004 ② 005 ④ 006 ④
 007 ③ 008 ⑤ 009 ② 010 ① 011 ① 012 ④
 013 ② 014 ⑤ 015 ③ 016 ④ 017 ② 018 ③
 019 ② 020 ⑤ 021 ⑤ 022 ⑤ 023 ① 024 ④
 025 ② 026 ⑤ 027 ⑤ 028 ① 029 ④ 030 ③
 031 ④ 032 ③ 033 ③ 034 ④ 035 ② 036 ③
 037 ① 038 ④ 039 ③ 040 ③ 041 ④ 042 ①
 043 ⑤ 044 ① 045 ③ 046 ⑤ 047 ③ 048 ⑤
 049 ④ 050 ⑤ 051 ⑤ 052 ④ 053 ① 054 ④
 055 ⑤ 056 ① 057 ④ 058 ② 059 ⑤ 060 ⑤
 061 ① 062 ⑤ 063 ⑤ 064 ④ 065 ⑤ 066 ③
 067 ③ 068 ② 069 ① 070 ④ 071 ① 072 ①
 073 ⑤ 074 ③ 075 ④ 076 ④ 077 ① 078 ②
 079 ② 080 ① 081 ② 082 ② 083 ③ 084 ④
 085 ② 086 ④ 087 ① 088 ③ 089 ④ 090 ②
 091 ④ 092 ① 093 ④ 094 ⑤ 095 ④ 096 ④
 097 ① 098 ③ 099 ① 100 ④ 101 ⑤ 102 ①
 103 ② 104 ② 105 ② 106 ③ 107 ④ 108 ④
 109 ⑤ 110 ⑤ 111 ⑤ 112 ③ 113 ③ 114 ④
 115 ③ 116 ② 117 ⑤ 118 ③ 119 ⑤ 120 ⑤
 121 ④ 122 ④ 123 ⑤ 124 ③ 125 ⑤ 126 ⑤
 127 ④ 128 ③ 129 ② 130 ① 131 ④ 132 ⑤
 133 ③ 134 ⑤ 135 ② 136 ④ 137 ⑤ 138 ④
 139 ② 140 ② 141 ④ 142 ① 143 ⑤ 144 ②
 145 ⑤ 146 ④ 147 ③ 148 ① 149 ② 150 ②
 151 ③ 152 ④ 153 ④ 154 ③ 155 ⑤ 156 ②
 157 ① 158 ⑤ 159 ④ 160 ① 161 ⑤ 162 ⑤
 163 ② 164 ⑤ 165 ② 166 ④ 167 ② 168 ⑤
 169 ⑤ 170 ① 171 ⑤ 172 ② 173 ④ 174 ③
 175 ① 176 ④ 177 ③ 178 ④ 179 ② 180 ①
 181 ④ 182 ⑤ 183 ④ 184 ③ 185 ③ 186 ②
 187 ② 188 ⑤ 189 ⑤ 190 ④ 191 ② 192 ④
 193 ⑤ 194 ⑤ 195 ② 196 ⑤ 197 ④ 198 ①
 199 ③ 200 ⑤

적용 학습 01

본문 32~34쪽

작자 미상, 「주몽 신화」

▶ 수록 「주몽 신화」의 동일 작품

해제 | 「주몽 신화」는 천상과 지상을 배경으로 하며, 지상의 범위를 한반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북쪽 지역까지 포괄하여 제시한다. 해모수의 등장은 북방계 신화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천손 하강형의 특징을 보여 주며, 유화가 햇빛을 통해 알을 낳고 거기서 주몽이 태어나는 것은 남방계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난생형의 특징을 보여 준다. 이처럼 「주몽 신화」는 북방계 신화와 남방계 신화가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몽의 삶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그 삶은 고난이나 위기 자체의 심각성보다는 인물이 지닌 위기 극복의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묘사된다. 다시 말해 영웅을 실제로 구체적 인 위기에 직면하게 하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영웅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부각하면서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주몽에 대한 신화적 기록은 「광개토왕릉비문」의 서두, 「삼국유사」, 「삼국사기」, 「동국이상국집」, 「동국여지승람」, 「청장관전서」 등 다양한 문헌에 수록되어 있으며, 문헌에 따라 그 내용과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주제 |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의 건국 과정

전체 줄거리 |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하백의 딸인 유화와 정을 통한 후, 유화는 집에서 쫓겨나 우발수에서 금와에게 발견된다. 금와는 유화를 별궁에 가두었으나 유화는 햇빛에 감응하여 알을 낳는데 이 알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난다. 아이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활을 잘 쏘아 '주몽'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한편 금와왕의 아들들이 주몽을 시기해서 죽이려 하자 주몽은 세 명의 벗과 함께 부여를 탈출하여 졸본에 이르러 도움을 청하고 고구려라 한다. **☆교재 수록 부분 8 수록 수록 부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삼국사기」에 수록된 작자 미상의 「주몽 신화」를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작품의 내용 파악 및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와 관련지어 각 구절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이규보의 「동명왕편」에서 주석으로 기술된 「구삼국사(舊三國史)」와의 상호 텍스트성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건국 신화인 「주몽 신화」는 천손 하강 모티프와 난생 모티프가 결합된 형태를 보여 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화라는 점에서 모의평가 및 학력평가 등에 여러 번 출제되었습니다. 교재에 수록된 「주몽 신화」는 2017 학년도 수능특강 문학에서 다루었던 작품으로, 서술상의 특징, 내용의 이해 및 작품의 올바른 감상 내용 등을 묻고 있습니다. '신화'라는 갈래의 특성과 작품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을 것입니다.

0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금와의 일곱 아들과 주몽의 갈등이 드러나

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인이 악인으로 전환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방 안에 잠금당한 유화에게 햇빛이 비춘 것, 유화가 사람이면서도 알을 낳은 것, 그 알에서 사내아이가 나온 것,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주몽 일행이 강을 건너는 것 등의 초자연적 일화는 건국 시조에게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② 부여의 재상 아란불의 꿈에 천상의 존재인 하느님이 나타나 도읍지를 옮길 것을 명령하고 있다.

③ ‘동명성왕’, ‘고주몽’, ‘해부루’, ‘금와’, ‘아란불’, ‘해모수’, ‘하백’, ‘유화’, ‘대소’ 등의 인명과 ‘곤연’, ‘가섭원’, ‘태백산’, ‘우발수’, ‘웅신산’, ‘압록강’, ‘엄시수’, ‘졸본천’, ‘비류수’ 등의 지명을 제시하여 이야기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있다.

⑤ ‘해부루’, ‘아란불’, ‘유화’, ‘대소’, ‘주몽’ 등의 구체적 발화가 드러나 있으며, 이로 인해 사건이 현장감 있게 그려지고 있다.

0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주몽은 졸본천을 도읍으로 정하려고 한다. 이때 주몽은 이 지역의 ‘토양’과 ‘산하’를 고려한다. 오이, 마리, 험보 세 빛의 의견을 존중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주몽’이라는 이름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일컫는 부여의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② 주몽은 훌륭한 말을 알아보고는 먹이를 적게 주어 마르게 하고, 둔한 말은 먹이를 잘 주어 살찌게 한다. 그러자 금와는 살진 말을 자신이 타고, 마른 말을 주몽에게 준다. 이를 통해 훌륭한 말을 알아보고 그것을 손에 넣는 주몽의 영특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대소는 임금에게 ‘주몽은 사람이 낳지 않았고’라고 말하며 주몽을 처치할 것을 요청한다. 주몽을 없애려는 이유로 주몽이 알에서 태어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⑤ 주몽은 엄시수에서 길이 막히자 자신이 천제의 아들이며 하백의 외손임을 외친다. 이를 통해 주몽이 스스로를 고귀한 혈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03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①

정답 해설 [A]에서 해모수는 천제의 아들로 설정되었고, <보기>에서 해모수는 천제로 설정되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모두 해모수가 세운 나라가 신성한 국가임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삼국사기』만 부여가 신성한 국가임을 부각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삼국사기』에는 해모수가 세운 나라가 부여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삼국사기』에서 해모수가 천제의 아들로 설정된 것을 통해 부여라는 국가의 신성성이 부각되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② [A]와 <보기>는 모두 (북)부여가 아란불의 꿈으로 인해 도읍을 옮기게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두 문헌 모두 아란불의 꿈속 메시지를 하늘의 계시로 여겨 중시하는 것이다.

③ <보기>는 [A]와 달리, 해모수와 해부루를 부자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삼국유사』가 해모수와 해부루의 혈통적 연관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A]는 <보기>와 달리 해모수를 부여 건국의 주체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 『삼국사기』는 해모수와 부여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A]와 <보기> 모두 말이 눈물을 흘린 큰 돌 아래에서 금와를 발견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두 문헌 모두 왕권을 계승하게 되는 금와를 신성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용 학습 02

본문 35~37쪽

작자 미상, 「구복 여행」

▶ 수특 「용소와 머느리 바위의 유사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구복 여행담으로, 복에 대한 보편적인 관념을 보여 준다. 가난한 주인공이 복을 빌러 가는 길에 과부와 이무기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도와주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복을 기원하는 마음과 권선(勸善)의 교훈을 담고 있다.

| 주제 |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자세

| 전체 줄거리 | 가난하게 살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을 구하러 옥황상제에게 가겠다고 한다. 이들은 복을 구하러 가는 길에 과부와 이무기를 만나 원정의 답을 얻어다 주기로 한다. 마침내 옥황상제를 만난 아들은 과부와 이무기가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듣고 이를 전해 주고, 자신도 복을 얻게 된다. **★교재 수록 부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작자 미상의 설화인 「용소와 며느리 바위」를 단독으로 수록하여,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설화의 구연과 채록 과정을 파악하고, 전설의 담화 구조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의 서사 구조를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수능특강에 수록된 「용소와 며느리 바위」는 구전되어 전승되는 설화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는 점에서 2020학년도 수능특강 문학에 수록된 작자 미상의 설화인 「구복 여행」과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구복 여행」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구복 여행담으로,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구복 여행담의 특징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해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 문학과 구비 문학의 차이점을 정리한 <보기>를 제시하고 구비 문학으로서의 「구복 여행」의 특징을 묻기도 했는데, <보기>로 제시된 내용을 통해 구비 문학으로서 설화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한다면 「용소와 며느리 바위」나 「구복 여행」과 같은 구비 전승 설화가 출제되었을 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004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과부는 ‘이 앞들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한다. 과부는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아들이 옥황상제에게 원정을 가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에이 미친놈, 네가 하늘을 어찌 가?”라고 하며 아들을 야단쳤다.

③ 아들은 이무기가 ‘입으로 안개를 뿜어 무지개다리를 만들어 준 덕에’ 하늘로 올라간다.

④ 이무기는 무변대해 한가운데 산에 찾아온 아들에게 “웬 사람이 여길 오느냐?”라고 하며 의아함을 표현한다.

⑤ 아들은 옥황상제에게 짚신을 삼아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게 한 까닭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해 옥황상

제는 ‘편하면 일찍 죽으니 그런다.’라고 답한다. 옥황상제는 사부자에게 짚신 삼는 일을 하도록 하여 오래 사는 복을 준 것이다.

00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과부가 ‘여의주를 얻은 남편을 얻어야 백년 해로한다’는 옥황상제의 말을 통해 개인의 삶은 본래부터 점지되어 있는 복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을 알 수 있다. 스스로 복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왜 우린 복이 없느냐고’ 한탄하며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것은 하늘이 개인에게 복을 점지해 준다는 생각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아들과 과부가 복이 없는 것에 대해 옥황상제에게 원정하려는 것은 주어진 복을 바꾸어 현재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주어진 삶을 바꿈으로써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③ 이무기가 여의주를 ‘두 개를 가져서’ 득천할 수 없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면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마음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이다.

⑤ 아들이 과부와 이무기의 원정을 옥황상제에게 전해 준 것은 이타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아들은 그렇게 한 뒤로 자신도 복을 얻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는 남을 위하는 행동이 복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006

갈래의 역사와 변천 과정

정답 ④

정답 해설 이 글에서 ‘아냐, 틀렸군. 이걸 나중이고.’는 이야기의 화자가 사건의 순서를 헷갈려서 한 말이다. 이는 화자가 기억에 의존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사건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이 글의 이야기는 구비 문학의 이야기

로서, 화자에게서 청자로 소통되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작자에게서 독자로 소통되는 기록 문학의 작품에 대응한다.

② 구비 문학의 이야기는 청자가 다시 화자가 됨으로써 전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은 이야기를 들은 청자가 다시 화자로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이 글의 '했거든. 그러니까', '나온다 말야.'와 같은 표현은 구어적인 표현으로서, 화자에 따라 다르게 구연될 수 있는 부분이다.

⑤ 구비 문학의 이야기는 말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므로, 화자에 따라 변형이 가해질 수 있다. 이 글의 '그래 잘 살았소.'와 같이 간결하게 제시된 결말은 화자에 따라 보다 구체화되어 제시될 수 있다.

편, 그가 천하의 웃음거리라며 부정적인 평가까지 함께 내린다.

★교재 수록부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이규보의 「국선생전」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내용 이해 및 작품의 서사 구조, 그리고 임춘의 「국선전」과의 상호 텍스트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국선생전」의 갈래는 가전체입니다. 가전체는 '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傳記)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학 양식'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선생전」은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에 출제되었던 「국선전」과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수능특강에서 「국선생전」과 「국선전」의 상호 텍스트성을 파악하는지 묻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 때문이지요.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에서는 「국선전」의 서술상의 특징, 감상의 적절성 및 한자 성어의 의미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전체의 경우 전(傳)의 형식을 따른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작품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전 지문에서 한자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한자를 많이 알고 있다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잘 모르는 한자 성어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적용 학습 03

본문 38~40쪽

임춘, 「국선전」

▶ 수록 「국선생전」의 유사 작품

| 해제 | 「국선전」은 고려 고종 때 임춘이 지은 작품으로, 가전체 문학의 효시라는 문학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의인화한 술(국순)의 일대기적 구성을 바탕으로 술에 탐닉하여 국정을 소홀히 하는 임금, 본분을 망각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관리들, 임금의 눈을 가리는 간신배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전체의 전기(傳記) 형식과 허구적 성격은 후대 고전 소설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 주제 | 술에 탐닉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간사한 벼슬아치에 대한 풍자

| 전체 줄거리 | 국순의 조상 모(牟)는 성품이 청렴하고 임금을 따라 원구에 종사한 공으로 중산후에 봉해졌고 국씨(麴氏) 성을 받았다. **★교재 수록부분** 국순의 아버지 주(酎) 또한 출세하여 이름을 떨치다가 죽임으로 돌아가 여생을 마쳤다. 국순은 기국과 도량이 넓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국가의 중대사에 참여하여 권세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국순은 자신으로 인해 정사를 돌보지 않는 임금에게 간언하지 않고 재물을 모으기에 바빴다. 그러던 중 임금이 국순에게 뽀새가 난다고 싫어하자, 국순은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만다. 사신(史臣)은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한

007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국순이 섭법사와의 담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계기, 산도의 국순에 대한 평가, 청주종사(높은 벼슬)에서 평원독우(낮은 벼슬)로 강등되었을 때의 국순의 반응, 관상가가 국순의 미래를 예언한 일 등을 열거하며 국순의 인물 됴됨이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예화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이 글은 전지적 시점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② 이 글에서는 대화를 통해 작중 정황을 드러낼 뿐 시·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이 글에서는 시간적 순서대로 인물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이 글에는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인물이 나타나 있지 않다.

008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㉔

정답 해설 ㉔은 퇴임하면서 국순이 한 말이지만, 국순은 ‘선조의 뜻을 받들어’ 스스로 물러나고자 하는 것도, ‘순수했던 성품을 되찾고자’ 스스로 물러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국순은 임금이 자신을 꺼려하는데도 벼슬에 연연한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물러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㉑은 국순의 그릇과 도량이 크고 깊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만경창파’는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를 뜻하고 이는 곧 국순의 마음이 크고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㉒의 ‘천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도 필경 이 아이일 것이다.’에서 국순이 장래에 세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㉓에서 국순이 자신의 벼슬이 강등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강등된 벼슬을 거절하고 차후에 더 높은 벼슬을 할 것이라는 포부와 자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㉔의 ‘순이 권세를 얻게 되자’에서 국순이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손님을 대접하며, 종묘에 제사를 받드는 등의 일을 앞장서서 맡아 주관하였다.’에서 친교 모임이나 공식적 행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국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00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㉑

정답 해설 [B]에는 국순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와 국순에 대한 산도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 [C]에는 국순의 관직 입문, 국순에 대한 임금의 총애, 국순의 입신양명, 국순의 국정 문란, 퇴임과 사망이 시간적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B]에서 주로 주인공의 과오를, [C]에서 주로 훌륭한 업적을 기술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A]에서는 국순의 조상 ‘모’가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벼슬을 마다한 일, 임금이 그 후손을 후대하고 교분을 맺은 일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순의 가문 내력과 국순이 유서 깊은 가

문 출신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C]에서는 국정을 문란하게 하고 부정 축재를 일삼는 국순(간신)을 비판·풍자하고 있고, 이를 다시 [E]에서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하고, ~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라고 하며 재차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D]의 ‘자식은 없고’, 먼 친척인 청(淸)이 ‘출사하여 벼슬이 내공봉에 이르렀으며, 그 자손이 다시 중국에서 번성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E]는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계 - 행적 - 논평’ 중 논평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논평은 사신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형식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되었지만, 이 속에는 국순의 행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간의 세태를 풍자하고자 한 작가의 견해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010

관용 표현의 이해

정답 ①

정답 해설 ㉑는 술에 탐닉하여 국정을 외면하는 임금의 태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국순의 태도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적절한 것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함구무언’이다.

오답 피하기 ②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함.’을 의미한다.

③ ‘못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이다.

④ ‘사실 그대로 고함.’을 의미한다.

⑤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적용 학습 04

본문 41~43쪽

김시습, 「이생규장전」

▶ 수록 「이생규장전」의 동일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이승과 저승의 한계를 뛰어넘어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을 다루고 있다. 전반부에서 보여준 이생과 최 씨의 자유연애에 의한 사랑은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관습을 과감히 깨뜨리고 사랑을 실현한 사건은 작가의 애정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흥건적의 난으로 깨어지고 마는데, 두 사람의 사랑은 최 씨의 환생이라는 비현실적 사건을 통해 다시 이루어진다. 이는 비극적 현실을 환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주제 |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 전체 줄거리 | 송도에 사는 이생은 학당에 다니다가 길가에 있는 양반집 담장 너머의 최 씨를 엿보고,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의 마음을 적은 글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 이 사실을 눈치챈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을 시골로 보내 버리고, 최 씨는 오지 않는 이생을 기다리다 병든다. 최 씨의 부모는 딸이 알아누운 이유를 알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양가의 허락으로 혼례를 올린다. 그러나 흥건적의 난으로 가족이 모두 죽고 이생 혼자 살아남았으며, 최 씨는 흥건적에게 붙잡혀 죽음으로 항거하면서 자신의 정조를 지킨다. 이생은 폐허가 된 집에서 최 씨의 환신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함께 몇 년을 행복하게 산다. 저승으로 돌아가야 함을 말하며 최 씨는 떠나고, 이생은 최 씨의 장례를 치른 후 최 씨를 그리워하다가 병들어 죽는다. **★교제수**

특수문장수특수문장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작품의 세부 내용 및 우의 소설로서의 「이생규장전」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애정 전기 소설(傳奇小說)에 대한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도 묻고 있습니다.

국문학사적으로 의의가 매우 큰 소설 작품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애정 전기 소설인 「이생규장전」은 모의평가 및 학력평가, EBS 연계 교재 등에 자주 출제되는 작품 인데요, 교재에는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문항이 수록되었습니다. 작품의 내용을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 관계와 정서, 한자 성어와 연관지어 정확하게 이해하는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인물의 정서를 다른 작품의 화자의 정서와 비교하는 문항도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작품 결말이 바뀌었을 때의 독자 반응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도 출제되었습니다. 「이생규장전」은 주인공인 이생과 최 씨의 만남과 이별의 서사 구조가 반복되는 작품입니다. 따라서

남녀 주인공이 이별하는 원인과 그 상황에서의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011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주인공 이생은 벼슬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나누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웅적인 삶을 살고자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② 이생은 최 씨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그녀와 함께 지내게 된다.

③ 이생은 최 씨가 귀부의 명부에 실려 있어 저승으로 가야 했기에 그녀와 헤어지게 된다.

④ 이생은 최 씨와 재회한 후 늘 최 씨와 함께 시를 주고받으며 즐겁게 지냈다.

⑤ 이생은 최 씨와 재회한 후 벼슬도 구하지 않고 그녀와 함께 살며 인간사를 싫어하여 친척이나 귀한 손님의 길흉사에도 가지 않았다.

012

글쓴이의 가치관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이 글에서 최 씨는 죽은 혼령이지만 이승에서 이생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귀신의 명부에 실려 있는 몸이라서 떠나야 한다면서 이생과 헤어진다. 이로 볼 때, 글쓴이는 사람이 죽으면 잠시 이승에 머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최 씨는 자신의 이름이 명부에 있기 때문에 저승으로 가야 한다며 이생을 떠나게 된다. 이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저승으로 간다는 생사관을 반영한 것이다.

② 최 씨는 죽은 후에도 다시 환생하여 이생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설정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육신과 영혼으로 분리되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글쓴이의 생사관을 보여 준다.

③ 최 씨는 죽은 후 다시 본래의 몸으로 환생한다. 이는 사람이 업보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로 새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⑤ 최 씨는 죽은 후 환생하여 이생을 만나게 된다. 이로 보아 글쓴이의 생사관은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 행복을 누리거나 지옥에 가 벌을 받으며 지낸다는 생사관과는 거리가 멀다.

013

인물의 정서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금실 좋게 함께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②는 삼신산 같은 수명과 백세 영화를 누리면서 원앙처럼 한평생을 즐겁게 보내겠다고 노래하고 있으므로 ①의 상황에서 최 씨가 불렀을 직한 노래로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외롭게 지낸 삶에 대한 한탄과 원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①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③ 이별 상황에서 재회를 기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①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④ 자연을 바라보며 돌아오지 않는 입에 대한 그리움과 한탄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①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①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014

작품의 수용과 창의적 변용

정답 ⑤

정답 해설 <보기>처럼 최 씨가 살아나는 것은 원작과는 다르게 행복한 결말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최 씨를 다시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이 애초부터 전기성을 띤 비현실적 작품이라는 것과 소설이 허구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최 씨가 다시 살아나면 이생과 최 씨는 서로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을 <보기>와 같이 바꾼다면 비극적 결말에서 행복한 결말로 바뀌는 것에 해당한다.

② 이생은 최 씨가 저승으로 가는 바람에 헤어지게

되므로, 최 씨가 다시 살아난다면 이생과 최 씨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③ 이생은 최 씨가 죽자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 지내 주었다. 만약 최 씨가 살아나는 곳이 그녀의 무덤이라면 극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최 씨가 살아나는 대목을 이생이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장면으로 하는 것도 적절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④ 최 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한다면 이생과 최 씨의 사랑이 죽음마저 초월한 것임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고 함께 오래도록 살아가는 것으로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진술이다.

015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결초보은'은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라는 뜻의 한자 성어로, 이생과 최 씨가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시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나누었다는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뜻하는 한자 성어로는 '금실지락(琴瑟之樂)'이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설상가상'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라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

② '일장춘몽'은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

④ '홍진비래'는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 온다는 뜻으로, 세상일은 순환되는 것임을 이르는 말.'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

⑤ '회자정리'는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짐.'이라는 뜻으로, 모든 것이 무상함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

임제, 「원생몽유록」

▶ 수록 「서재야회록」의 유사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선조 때의 문인 임제가 지은 몽유록계 소설이다. 의로운 선비 원자허가 꿈을 통해 단종, 그리고 사육신으로 짐작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단종의 억울함을 드러내고,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긴 작품으로 이해된다.

| 주제 | 역사의 모순과 부조리한 정치에 대한 비판

| 전체 줄거리 | 주인공 원자허는 가난하지만 정의로운 선비이다. 가을밤 달빛을 이용하여 독서를 하다가 밤이 깊고 정신이 어지러워 책상에 기대어 잠이 들었더니 꿈속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원자허가 신선이 된 기분으로 어느 강변에 다다르자 한 선비가 나와 영접을 한다. 선비를 따라 정자로 가니 왕자의 의관을 한 단종과 복식을 갖춰 입은 다섯 신하가 모여 있었다. 원자허는 단종을 알현하고 신하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먼저 복건을 쓴 사람이 중국 고대의 성왕들이 선위를 통해 왕이 된 것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단종은 그를 타이르며 네 성왕은 죄가 없고 다만 그들을 빙자한 자가 도적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박팽년, 성삼문, 하위지, 이개, 유성원이 차례로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하여 꿈은 원한을 비분강개조의 시로 읊고 이후 복건 쓴 사람과 원자허도 자신의 애절한 마음을 읊는다. 마지막으로 뒤늦게 참석한 무신 유응부가 자신의 강개한 심정을 토로한다. 그 순간 벼락 치는 소리로 원자허는 꿈에서 깨어난다. 자허에게서 꿈 이야기를 들은 매월거사는 현명한 임금과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화를 당한 사건에 대해 하늘을 원망한다. **☆연재 수록 부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신관한의 「서재야회록」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인물의 심리와 태도 파악,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가전체를 활용한 몽환적 액자 구성이라는 독특한 서사 구조를 지닌 작품의 특성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가도 묻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재야회록」은 몽환적 액자 구성을 취하고 있고,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진행되는 점에서 임제의 「원생몽유록」과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원생몽유록」은 몽유록 형식을 통해 단종의 억울함을 드러내고,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으로, 201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A형에 출제되었습니다. 서술상의 특징과 작품의 세부 내용, 그리고 인물의 행동과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작품 창작의 배경을 소개하는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도 출제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이 단종과 사육신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등장

인물 간의 대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016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이 작품은 자허가 꿈속에서 단종과 그 신하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물 간의 대화와 삽입된 노래를 통해 인물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피하기** ①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이야기 밖 서술자의 시선에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할 뿐 서술자의 다양한 관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과거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꿈속에서의 체험을 전달할 뿐 전기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으며, 인물의 신이한 능력이 부각되고 있지 않다. ⑤ 우의적 소재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사건 해결의 실마리도 드러나지 않는다.

017

인물의 행동과 정서 이해

정답 ②

정답 해설 이 작품에서 자허가 신하들 사이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① 임금은 노래를 통해 새 임금(세조)에게 왕위를 잃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③ ‘살아서는 충의하고 죽어서는 굳센 혼을’에서 기이한 사내의 충의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복건 쓴 이는 임금의 지적을 받아 ‘마음속에 불평이 쌓여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치게 분개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⑤ 첫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어린 임금 못 받들은 내 재주 얽음이라’와 ‘~ 부끄러울 뿐이로다’, ‘~ 못했음을 후회하노라’라고 노래하며 임금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018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기이한 사내'가 '썩은 선비들'이라고 질책하는 대상은 임금 주변에 있던 '다섯 사람'이다. '기이한 사내'는 함께 대사를 꾸몄지만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울분으로 이들을 '썩은 선비들'이라고 말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보기>에서 이 작품에는 세조에게 폐위당한 단종과 절의를 지켜 그의 복위를 도모한 사육신이 등장한다고 했으므로, 이 글의 '임금'은 단종을, '예닐곱 신하'는 단종에게 절의를 지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이 작품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한다고 했으므로, 이 글의 '새 임금'은 세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새 임금은 거짓'은 작가가 등장인물을 통해 세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작품 창작 당시에는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한 비판을 공론화하는 것이 금기로 여겨졌다고 했으므로, '한바탕의 꿈'을 통해 '임금'과 '예닐곱 신하'의 비분강개를 전달하는 것은 당시에 금기시되던 세조의 왕위 찬탈 비판을 꿈이라는 비현실적인 장치를 통해 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분강개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으므로, 이 글에서 '통분한 어조'로 매월거사가 한 말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작가의 한탄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019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②

정답 해설 복건 쓴 이가 선위라는 제도를 만든 옛 임금들, 선위를 핑계로 임금의 자리를 빼앗은 자, 신하로서 임금에게 반역한 자를 함께 비판하자 임금은 옛 임금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임금은 자허를 만난 후 '일찍부터 경의 꽃다운 지조를 그리워하였'다고 말하며 자허를 고결한 선비로 대우하고 있다.

③ 임금은 '차가운 물결 맑은 달이 수심을 자아낼 때'

라고 노래하며 '달'이라는 자연물에 의탁하여 슬픈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비가 쏟아지고 ~ 홀연히 흩어졌다.'에서 임금이 굶은 날씨 속에서 갑자기 종적을 감추었음을, '자허도 역시 놀라 깨어 본즉 곧 한바탕의 꿈이었다.'에서 자허가 꿈에서 깨어났음을 알 수 있다.

⑤ '자허의 벗 매월거사는 이 꿈 이야기를 듣고'라는 구절을 통해 자허가 자신이 꿈에서 겪은 일을 친구에게 들려주었음을, '저 착한 이에게 복을 주며 악한 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하늘의 도리가 아니겠는가.'라는 매월거사의 말을 통해 매월거사가 의기가 넘치는 인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적용 학습 06

본문 48~51쪽

오도일, 「설생전」

▶ 수특 「설생전」의 동일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숙종 때의 문신인 오도일이 지은 한문 소설이다. 역사적 격랑 속에서 은둔을 택한 설생과 출세의 길을 택한 관찰사, 이 두 친구의 서로 다른 삶을 그리고 있다. 젊은 시절 함께 세상을 개탄했던 친구가 출세기도를 달리는 동안, 산수를 유람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던 설생은 관찰사가 된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나 회룡굴이라는 곳으로 이끄는데, 이곳은 부족함이 없고 아름다우며 신비로운 곳이었다. 설생과 함께 지내는 동안 관찰사는 세상일을 잊고 즐거움을 만끽하지만, 결국 설생이 자신과는 다른 삶의 지향을 지녔음을 확인하게 된다. 개성 있는 인물의 형상화와 이상향으로 그려진 회룡굴의 묘사가 특히 인상적인 소설이다.

| 주제 | 부정적 현실을 등지고 탈속적 이상향을 지향한 선비의 삶

| 전체 줄거리 | 서울 청파리에서 살던 설생이라는 선비는 계속 옥사를 목도하고서 은거하기로 결심하였다. 그와 함께 세상을 개탄하던 친구는 은거가 선비의 바른 처신이라는 설생의 생각에는 동의했으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은거는 하지 않기로 한다. 친구는 훗날 등용되어 승진을 거듭하게 되는데, 강원도 관찰사가 된 뒤 영랑호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우연히 설생을 만나게 된다. 관찰사는 설생의 초대에 응해, 설생이 사는 회룡굴에서 며칠을 머물게 되는데, 그곳은 속세와는 단절된 이상향 같은 곳으로서 풍요롭고 평화로웠다. 관찰사는 설생에게 나중에 서울로 자신을 찾아와 달라며 시를 적어 주고 떠났는데, 몇 년 후에는 더욱 승진하여 이조 판서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서울로 찾아온 설생에게 벼슬을 주려 하였고, 설생은 이를 수척스럽게 여기며 종적을 감추었다. **★교재 수록 부분★**
수록부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오도일의 「설생전」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인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작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산수유기(山水遊記)의 관점에서 작품의 공간적 배경과 그 공간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신동복의 야담집 『학산한언』과 이규경의 백과사전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수록된 이야기와 「설생전」의 상호 텍스트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도 묻고 있습니다.

역사적 격랑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친구의 삶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에서의 처세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설생전」은 학생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작품일 것입니다. 이 작품은 모의평가나 학력평가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고 2013학년도 수능특강에 단독 지문으로 수록된 적이 있는데, 공간적 배경의 변화에 따른 인물의 태도와 심리, 도연명의 '도원'을 바탕으로 한 작품의 소재들의 기능과 의미, 설생의 말하기 방식, 상황에 적절한 한자 성어 등을 묻고 있습니다. 작품 분량이 길지 않기 때문에 교재에 수록된 부분을 꼼꼼하게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작품과 관련된 문항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020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ㄹ은 벼슬자리 제안을 수척스럽게 여기고 종적을 감춘 설생을 찾아서 관찰사가 다시 와 본 공간으로서의 회룡굴이다. 그러나 그곳은 폐허가 돼 있었고 설생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ㄱ에

서 ㄴ까지 지속된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이 ㄹ에 이르러 해소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진술은 이 글의 사건 전개 양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청파리에 살던 시절에 설생은 친구와 함께 윤리에 어긋나는 정치적 사건, 즉 계축옥사가 일어난 세상을 개탄했다.

② ㄱ에서 설생은 은거가 선비의 올바른 처신이라고 주장했고 친구도 그에 동의했다. 다만 친구는 부모님 때문에 은거를 하지 못한 것뿐이다. 그 후 설생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었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한가로운 삶을 살았다. 그사이에 친구는 등용되어 점점 높은 자리에 오르며 결국 강원도 관찰사가 된다. ㄴ에서 우연히 재회한 두 사람은 그간 자신들이 그렇게 다른 삶의 길을 걸어왔음을 알게 된다.

③ 영랑호에서 설생을 우연히 만난 관찰사는 설생을 따라 회룡굴에 가서 며칠을 머무는데, 기쁜 마음에 돌아갈 일을 잊을 정도로 흥겨웠다. 이는 친한 친구였던 두 사람이 세속을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즐기며 지난날의 회포를 푼 것이라 말할 수 있다.

④ 다시 헤어졌던 두 사람은 3년 뒤 설생이 서울로 관찰사를 찾아와 재회하게 되는데, 이조 판서가 되어 있던 친구가 벼슬자리를 주려 하자 설생은 이를 수척로 여겨 속세를 버리고 잠적한다. 결국 ㄴ과 ㄷ에서 두 사람이 확인한, 삶에 대한 서로 다른 지향이 ㄹ에서 두 인물이 겪는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021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산봉우리와 수석'이 아침저녁으로 보여 주는 '천만 가지 변화무쌍한 모습'은 회룡굴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에 대한 다소 과장된 묘사일 뿐이다. 이를 <보기>에서 설명한, 도연명이 경험했던 '극한 혼란'과 관련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오답 피하기 ① 이 글의 회룡굴은 <보기>에서 설명한 도원 같은 이상향으로 볼 수 있으며, 그곳에 이르기 위해 지나야 했던 '험한 길'과 '푸른 벼랑'은 그 관문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② 회룡굴은 '토지'가 비옥하고, '물'에서는 물고기잡이하며, '산'에서는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고, 각종

‘나무’도 많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③ ‘채소’는 회룡굴의 신비로움과 풍요로움에 놀라고 있는 관찰사에게 설생이 대접한 음식이다. 관찰사가 그 채소를 먹어 보니, 맛이 담백하면서도 달아 속세의 음식 맛과 전혀 판판이었다고 했다. 따라서 ‘채소’는 회룡굴이 신비로운 탈속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강화하고 증명해 주는 소재라고 말할 수 있다.

④ 회룡굴에서 ‘물고기와 새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는 <보기>에 제시된 것처럼 사람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관련이 있다.

022

말하기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A]에서 설생은 동서남북의 구체적인 지명들을 열거함으로써, 관찰사를 비롯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특수한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A]는 설생이 관찰사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한 대답이며, 관찰사의 감정에 호소한 부분도 나타나지 않는다.

② 설생은 관찰사와 타협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며, [A]에는 관찰사의 견해를 인정한 부분도 없다.

③ [A]에는 예측되는 결과를 제시한 부분이 없다. 아울러 설생의 말하기에서 관찰사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도 찾을 수 없다.

④ [A]에는 해석적 표현이 활용되지 않았다.

023

작품 상황의 추리

정답 ①

정답 해설 설생의 거처인 회룡굴에서 며칠을 머물러 본 관찰사는 설생이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살면서 부유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까닭을 궁금해하고 있다. 따라서 ①은 관찰사가 설생의 상황을 금상첨화라고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금상첨화’란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답 피하기 ②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의 위태로움이라는 뜻으로, 몹시 아슬아슬한 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⑤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적용 학습 07

본문 52~53쪽

유몽인, 「김인복 설화(어우야담)」 ▶ 수록 「송반공도우구복」의 유사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말재주가 능란하고 농담을 잘하기로 유명한 김인복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야담이다. 야담은 조선 시대 후기에 한문으로 기록된 비교적 짙막한 길이의 잡다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 작품은 『어우야담』에 수록되어 있다. 『어우야담』은 조선 후기에 성행한 야담류의 효시이며, 기술이 과감하고 획기적인 작품이 수록된 것으로 평가되는 설화 문학집이다. 조선 중기에 유몽인이 5권 1책으로 편찬하였다. 1964년 그의 종후손 제한이 가전의 잔존본에 여러 이본을 수집, 보충하고 부문별로 나누어 5권 1책으로 간행하였다. 책머리에는 유몽인의 영정과 유묵(遺墨), 이어 유영선의 서문, 성여학의 구서문(舊序文, 1621)과 연보를 실었다. 책 끝에 종후손 제한의 발문이 붙어 있다. 내용은 권1은 인륜편, 권2는 종교편, 권3은 학예편, 권4는 사회편, 권5는 만물편이다. 이 책에는 인간 생활의 여러 방면에서 야사·항담(巷談)·가설(街說) 등이 수록되었는데, 풍자적인 설화와 기지에 찬 것들이다.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으며 임진왜란 전후의 생활상이 투영되어 있다.

| 주제 | 입심 선 익살꾼 김인복의 일화

| 전체 줄거리 | 김인복은 시골 선비의 짧은 수정 갓끈에 마음을 두고, 시골 선비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다. 그러고는 자신의 집에서 시골 선비에게 입을 벌리도록 유도하는 이야기를 한다. 결국 김인복의 익살에 넘어간 시골 선비는 입을 크게 벌리게 되고, 시골 선비의 갓끈이 끊어져 수정알들은 땅으로 굴러 떨어지고 만다. **☆ 고제 수록부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청구야담』이라는 야담집에 수록된 작자 미상의 『송반궁도우구복』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이숙 우화인 『양치기 소년과 늑대』와의 상호 텍스트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 시대 후기의 사회상을 설명한 <보기>를 외적 준거로 제시하여 작품의 내용을 창작 당시의 사회 현실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가도 묻고 있습니다.

『송반궁도우구복』이 수록된 『청구야담』은 민담과 야담을 소설 형식으로 기록한, 19세기 중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문 야담집입니다. 조선 시대의 야담집으로는 조선 선조 때 유몽인이 편찬한 『어우야담』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유몽인의 『김인복 설화(『어우야담』 수록)』를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내용 이해 문제와 어휘 용법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기출에서 야담을 다루고 있는 문제는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담은 그 내용 및 서사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작품의 내용 요소에 주목하면서 인물들의 관계, 인물의 심리 등을 파악하면 문제를 보다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024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가)는 개개의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의해 단순 나열하여 전개하고 있을 뿐,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엮고 있지는 않다.

오답 피하기 ① ‘봄별이 따뜻한 날 양지바른 곳에 장독을 두고 장을 담그면’은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달기가 벌꿀이요’는 과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가)에서는 사실과 과장을 적절하게 안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달기가 벌꿀’, ‘고소한 된장’ 등 미각을 자극하는 묘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상추를 물기를 탈탈 털어 손바닥 위에 벌여 놓고 기름이 흐르는 올벼 쌀밥 한 손갈을 푹 떠서 달고 고소한 된장을 얹은 위에 노릿노릿 구워진 뽕떡을 올려 ~ 남대문 열리듯 입을 떡 벌리고 밀어 넣는데…….’를 통해 뽕떡이 씹을 먹는 장면을 극대화하여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인복은 뽕떡이를 씹어 써서 먹는 일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입을 벌리’도록 하여 ‘갓 끈이 그만 푹 끊어’지게 하는 일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5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나)는 자신이 가진 온갖 보물을 나열하면서, 자랑만 하고 베풀지 않으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약이 오르게 하고 있다. ②에서도 안방 금궤 안에 있는 보물들을 나열하면서, 자랑만 하고 베풀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나)와 동일한 발상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인간의 처지를 자연 현상에 빗댄 발상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③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처럼 생각하는 발상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④ 정신적 가치에 비해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는 현실을 풍자하는 표현이다.

⑤ ‘영이별’과 ‘생이별’을 비교하여 ‘생이별’의 힘겨움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026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㉔은 김인복이 시골 선비를 흠대만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장소에 선비를 앉게 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짧은 갓끈은 김인복이 꺾을 내게 된 착안점으로 볼 수 있다.

② 수정 갓끈을 추켜세우면서, 자신의 가산을 기울여 서라도 가지고 싶다고 표현하는 것은 김인복이 시골 선비의 욕심을 부추긴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배다리’에서 김인복을 물으면 알 것이라는 표현은 김인복이 자신의 유명함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시골 선비가 아침 일찍부터 인복을 찾아온 것은, 그가 재물에 상당히 안달이 났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27

관용적 표현의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④에서는 소의 크기를 ‘낙산 봉우리만’ 하다고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침소봉대’는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의 의미로, 과장함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이다.

오답 피하기 ① ‘사실보다 과장하여 터무니없는 헛된 생각을 하는 증상.’의 의미이다.

② ‘일이 뜻대로 잘될 때, 우쭐하여 뽐내는 기세가 대단함.’의 의미이다.

③ ‘아홉 마리의 소 가운데 박힌 하나의 털이란 뜻으로, 매우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수를 이르는 말.’이다.

④ ‘모든 일에 두루 능함.’의 의미이다.

028

인물의 성격, 유형 이해

정답 ①

정답 해설 김인복은 익살스럽고 과장된 말로 시골 선비를 골탕먹이고 있으므로, 입심이 센 익살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김인복의 직업을 ‘장사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다.

③ 김인복을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인 ‘깍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다.

④ 김인복을 뒷심이 없고, 믿음성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인 ‘허풍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다.

⑤ 김인복을 ‘질이 나쁜 거짓말쟁이’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다.

029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청자인 시골 선비는 김인복의 익살스럽고 과장된 말을 전혀 거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갓끈이 끊어지는 일을 당하였다. 이는 대화에서 시골 선비가 화자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듣고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시골 선비는 김인복의 뱀땀이 째 째 이야기를 경청하여 잘 듣고 있다.

② 시골 선비는 자신의 갓끈을 사고 싶다는 김인복의 말에 동의하여, 이튿날 김인복의 집으로 갔다.

③ 시골 선비는 김인복이 뱀땀이 째를 써서 먹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연상하여 자신의 입을 벌리고 있다.

⑤ 시골 선비는 김인복이 뱀땀이 째를 써서 먹는 이야기를 하자, 이에 시선을 주며 자신도 따라서 입을 벌리고 있다. 이는 김인복의 이야기에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적용 학습 08

본문 54~56쪽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 수록 「소현성록」의 유사 작품

해제 | 이 작품은 「유효공선행록」의 후편으로, 삼대록계 소설의 전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 상층 가문의 품격 높은 취향을 반영하고 있는 국문 장편 소설이다. 유씨 가문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가 3대에 걸쳐 유장하게 펼쳐져 있으며, 가문의 창달과 번영은 물론 인생살이의 다채로운 모습을 밀도 있게 보여 준다고 평가받고 있다.

주제 | 유씨 가문 3대의 이야기

전체 줄거리 | 유씨 가문의 3대(1대 유우성, 2대 유세기, 유세형, 유세창, 3대 유관, 유현, 유몽)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1대는 유우성의 계속적인 승진 및 전장에서 무훈, 2대는 유우성의 여덟 자녀의 혼사와 입신(立身), 부부 생활에서의 갈등 및 시련, **☆교재 수록 부분** 3대는 유세형의 자녀 중 관, 현 형제의 무훈과 가족 간의 갈등, 유세창의 아들인 몽의 영웅담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작자 미상의 「소현성록」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작품의 세부 내용과 소재의 기능 및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소현성록」이 당대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의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수신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시한 「보기」를 외적 준거로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도 묻고 있습니다.

「소헌성록」은 17세기의 가부장제 강화와 가문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소씨 가문의 수호와 번영을 다루고 있는 국문 장편 소설인데, 그런 점에서 삼대록계 소설의 전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 상층 가문의 품격 높은 취향을 반영하고 있는 국문 장편 소설인 「유씨삼대록」과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유씨삼대록」은 2020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었는데,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과 인물의 말하기 방식, 그리고 특정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유씨삼대록」의 갈등 구조와 서사 구조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보기>를 바탕으로 인물의 갈등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도 출제되었습니다. 국문 장편 소설의 경우,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위해 소설 전문을 읽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출제진들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기>를 통해 작품 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한다면 어렵지 않게 관련 문항을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030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과 승상(선생 형제)은 이 일을 문책하고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는다.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자 백공이 유씨 집안에 찾아가 곡절을 말하고 선생과 승상은 유세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은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하여 곤욕을 치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선생과 승상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심화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백공은 '거짓말로 일을 꾸며 구혼하면서 '정약'이라는 글자 둘을 더했다. 이로 인해 한림(유세기)이 꾸지람을 듣고 집에서 내쫓기는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

② 백공이 거짓말로 일을 꾸미고 '정약'이라는 글자를 더한 탓에, 선생과 승상은 한림이 부모의 허락 없이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기고 한림을 문책하였다. 백공이 한림을 곤경에 처하게 한 것이다.

④ 선생과 승상은 한림이 부모의 허락 없이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기고 한림을 엄히 꾸짖었다.

⑤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은 백공이 한림의 특출함을 아껴 딸의 배필로 삼으려고 거짓말로 일을 꾸며 혼인시키려다 일어난 일이다. 이 때문에 한림은 꾸지람을 듣고 집에서 내쫓기는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

031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B]에서 장 씨는 낭군(유세형)에게 공주로 인하여 자신의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게 되었다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 씨가 유세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또한 [A]는 장 씨의 생각을 드러낸 장면으로, 대화 상대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A]는 장 씨가 한스러움을 느끼게 된 사건, 즉 유세형이 부마가 된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B]는 장 씨가 공주의 위세로 인해 억눌림을 당하고 슬픔을 느낀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② [A]의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B]의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물이 머릿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듭니다.'는 공주의 위세로 억눌림을 당하는 장 씨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③ [A]는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리오?'와 같은 의문형 표현을 통해 공주에 대한 장 씨의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B]에는 '제가 낭군을 쫓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구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라는 의문형 표현이 있지만 이는 타인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⑤ [A]에서 장 씨는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뭉고?'라고 하며 앞으로의 일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고, [B]에서 장 씨는 진양궁에서 궁비와 시녀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일 등의 지난 일을 토로하며 자신의 신세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032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장 씨는 ㉠에서 유세형이 부마가 됨에 따라 자신이 천대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며 슬픔과 한스러움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장 씨의 모습을 본 유세형은 장 씨에게 애정을 느끼고 ㉡을 떠나지 않고 신혼의 정을 나누었다. 장 씨의 한탄을 드러내는 공간이었던 ㉠이 장 씨가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인 ㉡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장 씨가 ㉠에서 학문을 연마하지는 않았으며, ㉡에서 덕행을 닦지도 않았다.

② 장 씨는 ㉠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슬픔을 토로하였다. ㉡에서 장 씨가 비웃음을 당하고 있지도 않다.

④ 장 씨는 ㉠에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지만 계책을 꾸미지는 않았다. ㉡은 장 씨가 외로움을 인내하는 공간이 아니라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⑤ 장 씨가 ㉠에서 일의 선후 시비를 따지고 있지는 않다. 장 씨는 항거할 뜻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의 신세가 구차하고 슬프게 되었다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 씨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은 장 씨가 오해를 해소하는 공간이 아니다.

033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하여 곤욕을 치른 것은 선생과 승상이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혼사를 결정하여 가법을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유세기가 가법을 어기고자 한 것은 아니며, 백공의 거짓말로 인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유세형이 공주를 멀리하게 된 것은 유세형이 장 씨를 가련하게 여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과 승상이 유세기를 문책하고 내쫓은 것, 유세형이 부마가 됨에 따라 장 씨가 천대를 받고 한스러움을 느낀 것은 모두 가문의 혼사와 관련된 것으로, 유세기 이야기와 유세형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② 선생과 승상은 유세기의 혼사 문제에 관여하여 유세기를 문책하였다. 또한 백공에게 곡절을 들은 후에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법이 아니기에 감히 재취를 허락하지 못하였소이다.’라고 하였다. 혼사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선생과 승상 등 가문의 구성원들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④ 백공은 유세기를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하여 일을 꾸몄다. 천자 역시 유세형을 부마로 뽑았다. 이는 혼인의 당사자가 아닌 혼인 당사자의 부친이 혼사를 주도한 것으로, 여기서 혼사가 당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과 연관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유세기는 선생과 승상의 명령을 받들어 예를 삼가고 배우기를 힘썼으며 소 소저와 더불어 백수해로 하였다. 이는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하여 곤욕을 치른 일이 해소되고, 유세기와 관련된 혼사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음을 말해 준다.

적용 학습 09

본문 57~59쪽

작자 미상, 「황새결승」

▶ 수특 「황새결승」의 동일 작품

해제 「황새결승」은 1848년에 간행된 「삼설기」에 실린 작품으로, 억울한 일을 관청에 호소하여 해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송사 소설이다. 부자의 이야기 속에 따오기의 목청 자랑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당시 조선 사회 송사의 부패한 양상과 한국 씨족 사회의 병폐를 파헤치고 풍자한 작품이다.

주제 뇌물에 의해 송사가 좌우되는 현실과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과 풍자

전체 줄거리 옛날 경상도 땅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먼 일가 친척 중에 악한(惡漢) 하나가 재산의 반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협박을 하였다. 이에 부자는 형조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악한은 뇌물을 써서 자기에게 재판이 유리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부자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관원들에

게 들려주었다. 옛날 피꼬리, 삐꾸새, 따오기가 서로 자기의 우는 소리가 가장 좋다고 다투다가 황새를 찾아가 송사를 한다. **★고제 수록부분** **○수록 수록부분** 그런데 황새는 자신에게 뇌물을 준 따오기의 우는 소리가 가장 낫다고 판결한다. 부자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형조 관원들은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 했다. **★고제 수록부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작자 미상의 「황새결승」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작품의 세부 내용과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법과 사회 정의 관계 측면에서 이 작품을 바라보는 외적 준거를 <보기>로 제시하여 작품의 구조와 인물들의 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도 묻고 있습니다.

「황새결승」은 조선 후기의 풍자 소설로, 억울하게 송사에 진 부자에 관한 이야기인 외화(外話)와, 그 부자가 들려준 황새의 우화(寓話)인 내화(內話)가 서로 대응되는 액자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16학년도 9월 고2 학력평가에 출제되었는데,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과 작품의 중심 소재인 부자와 친척의 송사 및 날짐승의 송사를 도식화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도 출제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 및 서사 구조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화에 해당하는 날짐승의 송사가 외화에 해당하는 부자의 송사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게 관련 문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034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따오기’는 ‘황새’에게 미리 뇌물을 주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알고 말하는 상황이므로 겸손하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부자는 ‘관전 발악’이라 해서 처벌받을까 두려워 송사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분해하고 있다.

② 관원은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저놈의 말을 들으면 남들이 보는 눈이 걱정’되어 거짓으로 꾸짖고 있다.

③ 황새가 따오기의 소리가 ‘상성’이라고 판결하는 것은 그에게 받은 뇌물 때문이다.

⑤ 피꼬리는 자신의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를 누가 아

름답다 여기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자신의 소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035

작품의 구조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나)의 판결 이유는 (가)와 마찬가지로 청탁 때문이다. (나)는 (가)의 상황을 빗대어 비판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지 (가)를 통해 (나)의 판결 이유가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가)는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친척의 요구에서 비롯된다.

③ (가)의 송사 결과에 억울함을 느낀 부자가 (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④ (가)에서 송사의 원인은 ‘재산’이지만, (나)에서는 ‘최고의 소리’이다.

⑤ (가)에서는 친척이 관원에게 준 뇌물이, (나)에서는 따오기가 황새에게 준 뇌물이 송사의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036

인물의 의도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부자는 잘못된 판결을 내린 관원들에게 무안함을 주기 위해 새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야기의 의도는 송사와 관련된 형조 관원들의 부패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부자는 이야기를 들려준 후 물러간다고 말하고 있을 뿐 다른 송사를 청탁하고 있지 않다.

② 부자는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관원들에게 무안을 주기 위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 있지 않다.

④ 부자는 송사에서 진 후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없으며 자칫 매질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관원들과 논쟁을 벌이기 위해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부자는 이의를 제기해도 송사가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관원들에게 무안을 주기 위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따라서 송사로 인해 잃게 된 재산

을 되찾기 위해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37

상황에 맞는 한자 성어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A]에서 황새는 피꼬리의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나 따오기에게 받은 뇌물 때문에 억지 논리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황새의 태도를 평가하는 말로는,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 주장을 합리화함.'을 뜻하는 '견강부회'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②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을 의미한다.

③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이다.

④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함.'을 의미한다.

⑤ '본보기가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적용 학습 10

본문 60~62쪽

작자 미상, 「적벽가」

▶ 수록 「적벽가」의 동일 작품

해제 | 이 작품은 중국 소설 「삼국지연의」에 연원을 두고 있는 판소리 사설로, 판소리 열두 마당 가운데에서 현재까지 전하여 내려오는 다섯 개의 작품 중 하나이다. 원작 소설과 달리, 이 작품은 이름 없는 군사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약자의 설움과 고통을 드러냄으로써 전쟁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할 뿐만 아니라 조조를 간사하고 어리석은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원작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면서 서민들이 겪는 애환도 함께 그려 내고 있다. 즉 영웅의 활약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원작과는 달리 서민의 고통스러운 삶과 정서, 주체성을 잘 녹여 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제 | 전쟁에 패한 조조에 대한 조롱과 풍자

전체 줄거리 | 유비는 제갈공명을 참모로 초빙하기 위해 관우, 장비와 함께 그의 집으로 찾아가는 길에 삼고초려한 후에 제갈공명을 군사로 얻는다. 한편 조조는 강남을 평정하기 위해 백만 대군을 이끌고 원정길에 오르고 조조의 군사는 제각기 설움을 늘어놓는다. 조조의 선봉 부대가 신야에 이르자 제갈공명은 불과 삼천 명의 군사로 십만 대군을 크게 무찔러 패주시킨다. 뒤이어 벌어진 장판교 싸움에서는 조자룡이 유비의 장자를 품에 안고 조조의 백만 대군 속을 뚫고 나오고, 장비는 장판교에서 홀로 버티고 서서 천둥 같은 호령 소리로 조조의 대군을 물리친다. 제갈공명은 오나라로 건너가 손권과 주유의 마음을 움직여 조조와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이도록 유도한다. 적벽 대전이 벌어지자 주유는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빌어 준 덕택에 조조의 백만 대군을 거의 전멸시키는 전과를 올린다. 불과 몇천의 군사와 함께 도망하던 조조 **★교재 수록 부분 & 수록 수록 부분**는 화용도에서 관우를 만나고 목숨을 구걸 **★수록 수록 부분**한 끝에 겨우 살아서 돌아간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작자 미상의 「적벽가」를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인물의 심리와 태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적벽가」가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판소리 장단과 아나리와 관련된 외적 준거를 <보기>로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가도 묻고 있습니다.

「적벽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 학력평가, 그리고 EBS 교재에서도 장면을 달리하여 여러 번 출제되었습니다. 교재에는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항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작품의 세부 내용과 장면의 특성, 등장인물의 발화의 의미와 그 기능 및 소재의 기능을 파악하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작품 외에도 판소리 다섯 마당에 해당하는 「심청가」, 「춘향가」, 「수궁가」, 「흥보가」는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각 작품의 갈등 구조와 서술상의 특징, 그리고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 등에 대해 알아 둔다면, 나중에 어떤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038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조조 그리고 정욱을 비롯한 부하들은 전투에서 패배하여 도망을 가고 있다. 도망가는 상황 역시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장면 전개를 통

해 조조가 큰 낭패를 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조는 자신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수많은 군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나라 장군인 주유와 촉나라의 군사 지휘자인 제갈공명을 비웃는다. 그러나 그 비웃음이 끝나자마자 조자룡이 등장하여 조조를 공격하고 조조는 남은 군사들마저 다시 잃게 된다. 따라서 조조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패배시킨 적국의 장수를 비웃는 등 어리석고 허세를 부리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다)의 ‘골짜기 눈 쌓이고 봉우리 바람 칠 제’를 통해 겨울 산속을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다)의 ‘주린 장졸 냉병인들 아니 들랴’와 (마)의 ‘장졸의 머리가 추풍낙엽이라.’를 통해 조조는 정육뿐만 아니라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도망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마)의 ‘이 말이 지듯 마듯 오림산곡 양편에서 고성 화광이 충천, 한 장수가 나온다.’를 통해 여전히 조조가 적의 추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의 “울지를 말아라. 너희가 모두 다 내 제장 죽은 원귀가 나를 원망하여서 우는구나.”를 통해 조조가 전쟁 통해 죽은 장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9

장면의 특성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나)는 조조와 정육의 대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조는 도망 중에 겁먹은 행동을 계속 보여 주며 동시에 상황과 동떨어진 ‘술안주’ 이야기를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 어리석은 인물로 그려지면서 해학성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된다는 진술은 (나)의 장면에 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마)는 조자룡의 등장으로 조조가 다시 패퇴하게 되는 장면을 3·3 또는 3·4조의 음수율을 기본으로 하여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나)에서는 조조가 메추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놀라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보여 주고 있

는데, 이로 인해 골계미가 살아나고 있다. 이와 달리 (마)는 조자룡의 등장으로 조조의 군사들이 목숨을 잃는 장면으로 긴장감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골계미와는 관련이 없다.

② (마)는 조자룡에 의해 조조의 군사들이 목숨을 잃는 장면으로 정서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달리 (나)는 조조와 정육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긴장감이 이완되고 있다.

④ (나)는 조조의 어리석은 면이 조조와 정육 간의 대화로 드러나고 있으며, (마)는 조자룡에 의한 조조 군사들의 토벌이 주로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⑤ (나)는 조조와 정육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산문적 표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마)는 3·3 또는 3·4조의 음수율을 기본으로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래로 부르기 적합하다.

040

진술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조조의 웃음은 자신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을 가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승리한 주유와 제갈공명을 비웃는 웃음이다. 그러나 곧 조자룡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패배하게 되면서 그 웃음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태도였음이 다시 입증되게 된다. 따라서 그 웃음은 방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상황의 반전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오답 피하기 ① ㉠은 주변 인물인 정육의 말로, 이를 통해 중심인물인 조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은 조조가 죽은 군사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매개가 되는 소리라는 점에서, 조조에 대한 수용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은 조자룡의 장수로서의 비범한 능력을 드러내는 관습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⑤ ㉣은 3·4조의 ‘~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반복하여 조조의 군사를 토벌하는 조자룡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04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작품 속에서 까마귀와 관련된 진술은 ‘들판 대로를 마다하고 심산 숲속에 고리각 까옥 저 까마귀.’이다. 이 진술 속에서 까마귀는 들판 대로로 길을 가지 못하고 적에게 쫓겨 이리저리 숨어 도망할 수밖에 없는 조조의 처지를 상징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까마귀를 효조와 연결하여 군사들이 부모를 그리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여산 군량이 소진하여 촌비 노략 한 때’라는 구절에 이어 흥년새의 울음소리가 제시된다는 점에서, 흥년새의 울음소리는 식량 문제로 고생하는 군대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백만 군사를 자랑더니 금일 패전이 어인 일고’라는 구절에 이어 삐죽새의 울음소리가 제시된다는 점에서, 삐죽새의 울음소리는 대군을 잃고 한심한 처지가 된 조조를 비웃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자칭 영웅 간곳없고 도망할 길을 피로만 낸다’라는 구절에 이어 피꼬리의 울음소리가 제시된다는 점에서, 피꼬리의 울음소리는 도망갈 궁리를 짜내기에 분주한 조조를 희화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가련타 주린 장졸 냉병인들 아니 들랴’라는 구절에 이어 쑥국새의 울음소리가 제시된다는 점에서, 쑥국새의 울음소리는 병에 시달리는 군사들의 고통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042

속담을 통한 상황 표현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마)에서 조조는 조자룡의 공격을 받아 다시 한번 큰 패배를 하게 된다. 적벽 싸움에서 크게 패하여 도망하는 조조가 다시 공격을 받아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장면이다. 따라서 한 가지 위험에서 벗어나니 또 새로운 위험이나 난관에 부딪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인 ‘범을 피하니 이리가 앞을 막는다.’가 조조의 상황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② 자식을 많이 둔 어버이에게는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아무 관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⑤ 남을 해치고 나서 약을 주며 그를 구원하는 체한다는 뜻으로, 교활하고 음흉한 자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적용 학습 11

본문 63~65쪽

작자 미상, 「이춘풍전」

▶ 수록 「계우사」의 유사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기생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인물인 춘풍을 주인공으로 하여, 조선 후기의 부정적인 세태를 비판한 풍자 소설이다. 춘풍은 무능하고 방탕한 인물로, 기생 추월의 유혹에 넘어가 집안이 몰락할 위기에 처한다. 이때 남장을 하고 나타난 아내의 활약으로 위기를 모면한다. 남편 때문에 몰락한 가정이 슬기롭고 유능한 아내의 활약으로 재건되는 이야기를 통해 가부장적인 남성 권력의 횡포와 배금주의 풍조를 풍자하고,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 주제 | 허위에 가득 찬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비판과 진취적인 여성상의 제시

| 전체 줄거리 | 서울 다락골에 사는 이춘풍은 밤낮으로 놀러 다니며 가산을 탕진하는 등 방탕한 삶을 살지만, 아내가 실 새 없이 품팔이를 하며 돈을 모아 가세가 풍족해지게 된다. 그러자 춘풍은 집안 재물을 다 챙기고, 호조 돈 이천 냥을 빚내어 평양으로 장사를 떠난다. 평양에 간 춘풍은 기생 추월에게 빠져 돈을 몽땅 빼앗기고, 그 집에서 사한 노릇을 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는 남편을 찾기 위해 평양 감사로 부임하는 김 승지를 따라 비장 차림으로 남장을 한 채 평양에 도착한다. 비장이 된 춘풍의 아내는 추월을 징벌하고, 돈을 되찾아 춘풍에게 돌려준다. 돈을 받은 춘풍은 서울 집에 와서 아내에게 돈을

벌었다고 허세를 부린다. 이때 다시 아내가 비장 차림을 하고 춘풍에게 나타나 음식을 내오라고 하며 추월의 집에서 춘풍이 사환 노릇을 했던 사실을 말하니, 춘풍이 당황하며 아내가 들을까 전전긍긍한다. 비장과 춘풍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비장의 정체가 아내라는 것이 밝혀지고, **★교재 수록부분** 이후 춘풍은 그동안의 생활을 청산하고, 집안을 다스리는 데에 힘쓴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작자 미상의 「계우사」를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작품의 세부 내용과 소재의 기능, 그리고 '탕자 길들이기' 서사 구조와 관련된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이춘풍전」과의 상호 텍스트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계우사」는 어진 아내를 둔 알짜인 김무숙이 재산을 탕진하고 고난을 겪으며 개과천선하는 과정을 그린 판소리게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자신의 기질과 외적 요인에 의해 가산을 탕진한 남편이 온갖 설움을 받다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개과천선한다는 서사 구조인 '탕자 길들이기'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탕자 길들이기 서사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이춘풍전」과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교재에는 2015학년도 7월 학력평가 A형에 출제되었던 문항이 수록되어 있는데, 서술상의 특징과 인물을 중심으로 한 작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 작품 창작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소개한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춘풍전」은 춘풍의 아내가 춘풍과 추월을 징치하는 과정과 춘풍이 집으로 돌아온 후 춘풍의 아내에 의해 질책을 받는 장면이 자주 출제됩니다. 학력 평가에서도 이 장면이 출제되었는데,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장면의 인물 간의 갈등 관계와 서술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이 작품과 관련된 문항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043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춘풍이 황궁하여 밖으로 내달아서 아무리 제 계집을 찾은들 어디 간 줄 알리오.', '춘풍이 갈분을 가지고 부엌에 내려가 죽 쑤는 꼴은 차마 볼 수 없더라.'에서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개입하여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춘풍의 방탕한 성품을 비판하고 있을 뿐, 우화 기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② 갑작스러운 비장의 방문으로 인해 당혹스러워하는 춘풍의 심리가 드러날 뿐,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암시하고 있지 않다.

③ 서술자의 회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외화에서 내화로 이동하는 액자식 구성 방식이 사용되지도 않았다.

④ '돈'이라는 현실적 소재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될 뿐,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환상적 분위기와도 관련이 없다.

044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①

정답 해설 추월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모르겠다고 하다가 매질이 계속되자 죽기를 면하기 위해 춘풍의 돈을 몰어 바치겠다고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비장은 춘풍이 호조 돈 수천 냥을 가지고 간 후 환납하지 않았다고 하며 춘풍을 벌한 후, 추월이 막중 호조 돈을 가져갔다고 그녀를 벌하고 있다.

③ 감사는 비장이 춘풍과 추월에게 벌을 줄 수 있도록 한 후, 비장이 춘풍보다 먼저 경성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④ 춘풍은 자신의 집을 찾은 비장이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한 후 옷을 벗은 후에야 그가 자신의 아내임을 알아차린다.

⑤ 비장은 춘풍을 잡아와 매를 매우 치게 한다. 하지만 춘풍의 다리에 피가 낭자한 것을 보고 매를 더 치진 못한다.

0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보기〉에서 남장을 통한 문제 해결은 여성의 지위가 제약되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아내가 비장으로 활약했다고 하더라도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에 올랐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춘풍은 추월의 미색에 빠져 호조에서 빌린 돈을 모두 잃게 되고, 경성 집으로 돌아와서도 거드름을 피우며 가정을 돌보지 않는데, 이러한 춘풍

의 행동은 무능한 가장의 모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호조에서 빌린 돈을 가지고 평양에 간 춘풍은 추월의 미색에 빠져 그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춘풍의 모습은 부도덕한 남성의 모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춘풍은 경성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드름을 피우며 허세를 부리는데, 이러한 춘풍의 모습은 가장으로서의 권위 의식을 버리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춘풍의 아내는 비장으로 변장한 후 평양에 가서 추월을 벌주고 춘풍의 돈을 찾아오는 등 적극적으로 춘풍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적극적으로 고난을 해결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046

상황에 적절한 한자 성어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일거양득'은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을 뜻한다. 아내는 비장이 되어 춘풍을 찾고 춘풍이 빌려간 호조 돈도 돌려받고 추월도 혼냈다. 즉 비장이 되어 여러 이득을 한꺼번에 얻었다.

오답 피하기 ①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라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이르는 말이다.

②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이다.

③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적용 학습 12

본문 66~69쪽

가 작자 미상, 「윤선옥전」

해제 | 이 작품은 윤선옥이 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고전 소설이다. 천상에서 죄를 지어 인간으로 태어난 윤선옥은 전란으로 인해 아내 박 소저와 헤어져 산으로 들어간다. 선옥은 조력자를 통해 신기 묘수를 익혀 신이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선옥은 아내 박 소저와 재회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청나라 천자와 조선 임금 모두에게 인정받게 된다. 이 작품은 선옥 못지않은 박 소저의 영웅성도 잘 형상화되어 있으며, 애정 소설, 군담 소설로서의 특징도 드러나 있다.

주제 | 윤선옥의 영웅으로서의 성장담

전체 줄거리 | 조선국 함경도 증성에 살던 윤보상과 부인 최씨는 5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자 금산상 관음전에 발원하고, 천상의 태음성이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는 꿈을 꾸 뒤 아들 윤선옥을 낳는다. 한편 강원도 원주에 사는 박 판서와 유씨 부인은 남악산에 불공을 드린 뒤 딸 박 소저를 낳게 된다. 윤선옥과 박 소저는 유씨 부인의 동생인 최순태의 중매로 혼인하지만 요동의 침입으로 인해 신표를 주고받은 후 헤어진다. 운각산으로 피신한 선옥은 그곳에서 도인을 만나 도술을 익히고 신물을 받아 하산하여 난을 평정하고, 부인과 헤어진 가족을 만난다. 중국에 오랑캐가 침입하자 선옥은 출장하여 난을 평정하고, 그 공으로 조선의 왕에게 큰 벼슬을 받아 부인과 함께 백년해로한다.

나 작자 미상, 「이공본풀이」

▶ 수특 「제석본풀이」의 유사 작품

해제 | 이 작품은 서천꽃발을 관장하는 신이 된 할락궁이의 내력을 풀이하고 있는 서사 무가이다. 사라도령이 저승의 서천꽃발 꽃감관으로 가게 되자, 임신한 몸으로 남편과 헤어진 원강아미는 천년장자의 종이 되고, 할락궁이를 낳아 기른다. 할락궁이가 아버지를 찾아 집을 떠나자 천년장자는 원강아미에게 할락궁이의 행방을 추궁한다. 원강아미는 할락궁이가 간 곳을 말하지 않겠다고 세 번 다짐하고, 이에 천년장자는 원강아미를 죽인다. 한편 서천꽃발을 찾아가서 아버지 사라도령을 만난 할락궁이는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다. 할락궁이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꽃 중 일부로 어머니를 죽인 천년장자에게 복수하고, 나머지 꽃들과 회초리로는 죽은 어머니를 살린다. 이후 할락궁이는 어머니와 함께 서천꽃밭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된다.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꽃들이 피어 있는 서천꽃밭을 통해 신화적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주제 | 서천꽃발을 관장하는 꽃감관 '이공'의 내력

전체 줄거리 | 옛 이승에는 원진국과 김진국이 있는데 원진국은 비옥한 토지를 가진 부강한 나라이고 김진국은 가난한 나라였다. 김진국의 사라도령이라는 왕자가 외출을 하다 원강아미

라는 원진국의 공주를 만나 결혼하지만 꽃을 잘 다루는 사라도령은 서천꽃밭의 꽃감관(꽃을 관리하는 신)이 되고 아이도 못 본 채 저승으로 간다. 원강아미는 원진국의 부자인 천년장자에게 맡겨져 생활하다 도망을 치지만 붙잡혀 15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아들인 할락궁이만 도망치게 한다. 할락궁이가 도망친 후 천년장자는 원강아미를 죽인다. 할락궁이는 사라도령을 만나 빼살이꽃, 살살이꽃, 피살이꽃, 솜살이꽃, 혼살이꽃을 받은 후 **☆근재수록부분** 그것을 이용해 원강아미의 시체가 있는 곳에 놓아서 원강아미를 살리고 사라도령과 함께 꽃감관이 되어 살게 된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작자 미상의 서사 무가인 「제석본풀이」를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인물을 중심으로 한 작품의 세부 내용과 구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본풀이’와 서사 무가의 연극적 속성과 관련된 외적 준거를 각각 제시하여 작품의 특징과 민속극인 「봉산탈춤」과의 상호 텍스트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도 묻고 있습니다.

「제석본풀이」는 부계신인 천신(天神)과 모계신인 지신(地神)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곧 후계자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작품 제목의 일부인 ‘본풀이’는 ‘신의 근본 내력을 말로 풀어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서사 무가 중 이러한 ‘본풀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천꽃밭을 관장하는 꽃감관의 내력을 밝힌 「이공본풀이」가 있습니다.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에서 「이공본풀이」는 주인공의 비현실적 공간 체험을 서사 전개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작자 미상의 고전 소설인 「운선옥전」과 함께 묶여 출제되었습니다. 「이공본풀이」와 같은 서사 무가는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작품인데도, 이런 이유로 출제진들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외적 준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낯선 작품이 출제되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보기>로 제시된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047

서술 방식의 특징 비교

정답 ③

정답 해설 (가)는 ‘이 산이 높고 높으니 틀림없이 이 가운데 절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절일 것이다.’, ‘분명히 산신령이 인도함이구나.’ 등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뿐,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인물 간의 대립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④ (나)의 공간적 배경은 서천꽃밭으로 애상적 분위기와는 관련이 없다.

⑤ (나)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048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할락궁이는 아버지의 부재로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온갖 어리광을 부리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결핍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은 부모님과 남자와 헤어진 후 슬퍼하는 선옥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부모님과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선옥의 기대감과는 거리가 멀다.

② ㉡은 선옥이 ‘운산각’에 온 것이 미리 정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줄 뿐, 선옥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을 보여 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③ ㉢에는 선옥이 선경에 들어온 이유는 드러나지만, 선경을 찾은 데서 비롯된 안도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은 할락궁이가 자신의 조상들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할락궁이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049

인물을 통한 세부 정보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A]에서 노인은 선옥에게 선옥이 천상 세계의 태생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고, [B]에서 사라도령은 할락궁이에게 할락궁이가 지나온 물이 어머니의 눈물 또는 피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A]와 [B] 모두 인물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는 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A]와 [B] 모두 인물이 겪게 될 시련과 는 관련이 없다.

② [A]와 [B] 모두 인물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③ [A]와 [B] 모두 동의를 구하는 상대의 말은 나타나 지 않는다.

⑤ [A]와 [B] 모두 인물이 상대의 처지에 공감하며 상 대방을 위로하고 있지 않다.

050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가)에서 조력자인 노인이 둔갑술로 몸을 숨기고 풍운조화를 부리는 선옥을 보고 선옥을 영웅 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통해 조력자가 선옥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나)에서 할락궁이가 꽃을 모두 따는 것을 통해서 는 조력자가 할락궁이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가)의 선옥은 높이 솟아 있는 ‘층암절 벽’을 올라 천상 북두칠성이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초가집’에, (나)의 할락궁이는 각각 ‘발등’, ‘무릎’, ‘자 개미’, ‘잔등’에 뜨는 ‘물’을 지나 저승의 ‘서천꽃밭’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 1의 진술은 적절하다.

② (가)의 ‘천상의 북두칠성’인 인물은 선옥에게 신기 묘수를 배우라며 서안을 열어 병서를 주고, (나)에서 는 ‘저승의 서천꽃밭’을 관리하는 인물이 할락궁이의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꽃들을 준다는 점에서 학생 2 의 진술은 적절하다.

③ (가)에서 남악 산신령이 노인에게 보낸 ‘편지’로 선 옥의 신분이, (나)에서 ‘얼레빗 한 짝’과 ‘참실 반 묶음’ 을 통해 사라도령과 할락궁이의 혈연관계가 드러난다 는 점에서 학생 3의 진술은 적절하다.

④ (가)의 ‘천만 병서’는 선옥이 ‘신기 묘수’를 배우기 위해 필요한 책이라는 점에서, (나)의 ‘꽃들’과 ‘회초 리’는 할락궁이가 어머니인 원강아미를 살려 내기 위 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학생 4의 진술은 적절하다.

적용 학습 13

본문 70~72쪽

이태준, 「촌뜨기」

▶ 수록 「달밤」의 유사 작품

해제 | 이 글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화전을 일구며 생계를 유지하는 산골 주민 장군이를 주인공으로 삼아, 그가 살림을 지 키려고 노력하고 실패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제시 된 장면에는 근대 초기의 과도기적 사회의 모습과, 사회 변화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실패를 겪는 인물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인 ‘촌뜨기’ 역시 이러한 인물 의 처지를 비유한 것이다.

주제 | 일제의 수탈과 근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 민족의 아픔

전체 줄거리 | 장군이는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안악골 꼭대 기에서 아내와 단둘이 화전(火田)을 일구며 숲을 굽고 산짐승 을 잡으며 살아간다. 어느 날부터 산 주인이 삼정회사로 바뀌면 서 화전은 물론 지금까지 생계 수단이 되었던 모든 일을 못 하 게 된다. 그는 할 수 없이 빚을 얻어 물방앗간을 개설하려 했으 나 다 완성하기도 전에 장풍언네가 발동기를 들여오는 바람에 실패하고 빚만 지게 된다. 마침 사양을 나온 순사부장이 장군이 가 파 놓은 구덩이에 빠져 다치게 되고, 이 일로 장군이는 경찰 서 유치장에 20일이나 갇히게 된다. **☆교재 수록 부분** 유치장에서 나온 장군이는 마을을 떠날 결심을 하고, 눈이 충혈되도록 운 아내와 헤어지다가 다시 아내를 불러 장에서 떡을 사 먹고는 친정으로 보낸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이태준의 「달밤」을 단독 지문으로 수 록하여 소재와 배경의 의미와 기능, 인물의 성격과 태도 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달밤」은 사회 변화로 인해 주변부로 밀려나는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작품입니 다. 이런 주제의 측면에서 2020학년도 3월 고2 학력평가 에 출제되었던 이태준의 「촌뜨기」를 연계하여 읽을 수 있 습니다. 1930년대를 배경으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 한 채 자신이 살고 있던 산골에서조차 밀려나는 장군이의 모습과 그 시대 우리 민족의 처지를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다면 관련된 문항을 잘 풀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05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이 글에서는 장군이가 판 함정에 순사부장 이 빠진 일로 경찰서에 들어가 스무 날을 지낸 사건,

장군이 방앗간을 차리려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 등의 추이가 전지적 시점에 따라 요약적으로 서술되어 장군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대화를 통한 인물 간의 상호 작용이 드러나지 않아 인물의 반응이 드러난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

② 이 글은 서술자가 장군이 겪은 일을 서술한 것으로 상상 속 장면이라 할 수 없다.

③ 장군이 함정을 판 것이나 방앗간을 차리려 시도한 것, 물이 고인 곳을 바라보다가 송사리 떼를 향해 돌을 던진 것 등의 행위가 드러나 있으나 모두 일회성을 지닌 행위들이므로 습관적이라 할 수 없다.

④ 장군이 경찰서에 잡혀간 사건, 방앗간을 차리려다 실패한 사건 등이 드러나 있으나 이에 대한 인물의 의문점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052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안악굴 주민들은 산지기와 관청의 통제로 멧돼지 함정이나 여우 털을 놓을 수 없게 되었지만, 멧돼지나 노루와 같이 초식만 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 어쩔 수 없이 함정을 팠다. 즉 주민들이 관 함정은 경찰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자기 아버지 대에까지는 굶지는 않고'라는 구절에 드러난다.

② '돌레가 백 리도 더 될 큰 산을 삼정회사에서 샀노라고 ~ 허가 없이는 못 놓는다 하고 금하였다.'에 드러난다.

③ '산지기와 관청에서 이르는 대로만 지키자면'에 드러난다.

⑤ 안악굴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멧돼지와 노루의 함정'을 파는 금지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05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보기>는 장군이 겪는 좌절을 근대화

적응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군이 순사부장을 따라간 것은, 노루 함정을 판 것이 발각되어 경찰서에 들어가는 것으로, 근대화된 방식에 따르려는 욕구와는 무관하다.

오답 피하기 ② '방앗간'을 차리려는 시도는 화전을 일구거나 산짐승을 잡아먹는 방식으로 살아가던 것에서 벗어나, 안정된 일터를 꾸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장군의 노력을 보여 준다.

③ '물방아' 형태의 방앗간을 선택한 장군의 방식과 대비되게 '발동기'나 '풍채'를 선택한 '장풍언네'의 방식은 근대화 시기에 적응하기 더욱 유리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④ 장군이 '장풍언네'와 같은 근대적 방식이 아닌 과거와 같은 방식을 고수하려 한 것은 장군의 시대적 흐름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⑤ 장군의 실패를 통해 그가 여전히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촌뜨기' 상태에 놓여 있음이 드러나 있다.

05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보기>를 참고하면 [A]에서 장군이 물에서 자신의 상(像)을 바라보는 모습을 장군의 자기 인식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A]에서 장군이 '송사리 떼'를 맞히는 것에 실패한 채 일그러진 '제 얼굴의 그림자'만 마주하는 것은, 장군이 겪어 온 일련의 사태가 본질적으로는 결국 '송사리 떼'를 놓친 것과 같은 실패의 과정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한편, 그러한 실패를 겪은 자신을 일그러진 '그림자'와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수면'은 사태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매개로, 자기 인식이 이루어진 이후의 상태와 연결 짓기는 어렵다. 더구나 앞서 제시된 장군의 방앗간 실패에 대한 회상을 고려할 때 '수면'을 평온함의 정서와 연결 짓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② '꿈꾸듯 물만 내려다보고 섰던'은 '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얼굴을 '물'에 비쳐 보는 장군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이후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순간 '물'을

통한 자기 인식이 이루어졌으리라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이를 자기 인식이 중단된 순간이라 해석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③ 자기 인식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단서는 찾을 수 없다. ‘몽우리돌’이 떨어진 것은 앞서 겪은 실패의 상황에 대해 장군이가 지닌 부정적 정서의 표출, 혹은 ‘송사리 떼’를 잡기 위한 시도 등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⑤ ‘송사리 떼’를 잡고자 했으나 ‘한 마리도 뜨지 않’았다는 것은 장군의 행위가 실패한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장군의 안락굴 생활의 어려움이나 방앗간 실패의 과정 등과 관련지어 해석할 때, 장군이가 자신과 관련된 사태의 본질을 실패라고 인식한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적용 학습 14

본문 73~77쪽

가 박태원, 「천변풍경」 ▶ 수록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유사 작품

해제 | 이 작품은 1930년대 청계천 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서민의 생활상을 50개의 절로 나누어 서술한 세태 소설이다. 여인들의 집합소인 빨래터와 남성들의 사교장인 이발소라는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70명의 평범한 인물들을 모자이크식으로 제시하여 당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상이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여 줌으로써 시간성과 공간성을 극대화하였고, 이를 통해 당시 서민층의 일상을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서사화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특정 인물을 확대해 보여 주는 클로즈업 기법과 카메라가 이동하며 촬영하는 듯한 카메라 아이 기법 등을 활용하여 주요 사건을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려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제 | 1930년대 청계천 주변에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과 애환

전체 줄거리 | 청계천 빨래터에서 아낙네들이 잡담을 나누고

이발소 소년 재봉은 천변의 다양한 풍경을 관찰한다. 시골에서 올라온 창수는 한약국에서 일을 시작한다. 순진했던 창수는 세속적인 인물로 변해 가고, 금순은 취직을 시켜 준다. 금광 브로커에게 속는다. 브로커의 행방불명으로 속을 태우던 금순에게 기미코가 찾아오고 금순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 천변 사람들의 족목 속에 결혼한 이쁜이 **☆교재 수록 부분**은 고단한 시집살이로 인해 어머니에게 신세타령을 한다. 장마가 시작되어 창수가 한약국을 나가고, 브로커는 돌아와 금순을 데려가려 하지만 실패한다. 하나코는 양반댁으로 시집을 가지만 시집살이와 남편의 외도로 인해 힘들어하고, 서울을 떠났던 창수는 돌아와 구락부에 취직한다. 하나코는 전실 자식 때문에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기미코는 금순을 손 주사의 후처로 보내려 한다. 이쁜이는 남편에게 쫓겨나 어머니에게 돌아오고, 목욕전 주인의 모자가 바람에 날려 개천에 떨어진다.

4 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 「오발탄」

해제 | 이 작품은 월남한 철호 가족의 비극적 삶을 통해 6·25 전후의 비참하고 혼란한 사회상을 그린 이범선의 소설 「오발탄」을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성실하지만 생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철호, 가난으로 인해 웃음을 잃어버린 철호의 아내, 돈을 위해서라면 윤리 의식마저 버릴 수 있다는 영호,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말만 반복하는 어머니, 양공주가 되어 버린 명숙의 삶은 전쟁으로 고통받던 당대인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는 한편 전쟁의 폭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주제 | 6·25 전후 혼란한 사회 속에서 양심을 지키려다 패배하는 인간의 비극

전체 줄거리 | 북에서 부유하게 살던 철호 가족은 북한의 공산주의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자 남한으로 이주한다. 철호는 계리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만 그들 가족은 고향에서와 달리 매우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남한에서의 비참한 삶 때문에 고향으로 가자고 하던 어머니는 6·25 전쟁 중에 미친 후로 계속 ‘가자’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외쳐댄다. 한편 제대 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동생 영호는 사회에 불만을 품은 채 방황하며, 양심대로 살려는 철호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러던 영호는 권총 강도 행각을 벌이다 잡히고,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만다. 철호는 이러한 상황에서 혼란을 느끼며 택시를 잡아타고 해방촌으로 가자고 했다. 경찰서로 행선지를 바꾼다. 혼란에 빠진 철호는 결국 방향 감각을 잃고 행선지를 정하지 못하고, 운전수는 ‘오발탄’과 같은 손님이 탔다고 투덜거린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서술상의 특징, 배경의 상징적 의미,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등을 묻고 있습니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소설가 구보의 눈에 비친 1930년대 서울의 풍경을 통해 당대의 세태를 그려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의 「오발탄」과 함께 출제된 박태원의 「천변풍경」과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아 이 기법으로 1930년대 서울의 한복판인 청계천 변 인물들의 삶과 풍경을 영화적으로 그려 내고 있는 이 작품을 읽으며 당대의 세태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055

작품 간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가)에서는 ‘도회에서의 패잔자’들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지만, 이들이 낙향하는 모습을 ‘고개나마 변변히 못 들고 빠른 걸음걸이로’, ‘큰길로 사라지는’ 행위로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나)의 #69에서 철호가 아내를 보며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70에서 ‘철호가 멍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행위에는 아내가 가난으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74에서 철호의 말에 반발하며 벵타이를 방구석에 집어던지는 영호의 행위에서도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의 심리를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는 인물 간 대결 의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반면에 (나)에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철호와 영호 간 대결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와 (나)에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희화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 (가)에서 서술자는 독자에게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지만 특정 인물의 회상 장면은 드러나 있지 않다. (나)의 #69에서 철호가 과거 아내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지만, 이를 사건 해결의 실마리로 삼고 있지는 않다.

④ (가)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거나 살았던 곳을

떠나야 하는 이들의 서글픈 처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나)에는 철호와 영호 사이의 갈등이 그들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이러한 갈등이 다각적으로 조명되고 있지는 않다.

056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가)의 이발소 소년은 청계천 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꾸준히 관찰하던 인물로, 신전 집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에 팔린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소식을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에게 알린다. 이처럼 이발소 소년은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여 그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포착하는 인물이다.

오답 피하기 ② 이발소 소년은 특정 가족이 몰락하여 집을 떠나는 사실을 포착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가)에서 그가 특정 가족이 몰락한 이유를 분석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이발소 소년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사건들을 포착하기는 했다. 하지만 (가)에서 그가 그 사건의 진위에 대해 논평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이발소 소년은 천변에서 벌어진 소식을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했을 뿐, 소년이 그 소식을 타 지역 주민에게 전해 주었는지는 (가)에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이발소 소년은 천변에서 벌어지는 주민들의 소식을 살피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가)에서 그가 천변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057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A]에서 서술자는 독자에게 신전 집 사람이 낙향할 것이라는 정보에 대해 이미 언급한 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전 집 사람이 낙향하지 못했던 원인을 독자가 그 정보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피하기 ① [A]에서 서술자는 ‘독자는, ~ 기억하

고 계실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신전 집의 낙향에 대해 이미 독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기하게 한 것이다.

② [A]에서 서술자는 신전 집이 낙향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한 인물이 '점롱이 어머니'였음을 환기시키고 있다.

③ [A]에서 서술자는 '독자'가 이미 신전 집의 낙향에 대해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서술자가 자신을 드러내어 직접 작품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A]에서 서술자는 신전 집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강원도 춘천'이 아니라 '경기 강화'임을 밝히고 있다.

058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나)에서는 철호와 영호 간의 대화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을 살펴볼 수 있으나,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 자체만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에서는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이쁜이 어머니를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가족 간의 갈등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이쁜이 어머니에게 골목이 짧게 느껴진 것은 딸과의 이별이 아쉽기 때문이다. (나)에서 택시가 빠져나오기 어려운 해방촌의 '골목길'은 영호가 살고 있는 동네의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③ (가)의 '눈물'에는 딸을 떠나보내는 이쁜이 어머니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나)에서 철호는 '어금니'가 푹푹 찌시고 아프지만 당장의 생계가 걱정되어 어금니를 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금니'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아픔마저 견뎌 내려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담겨 있다.

④ (가)에서 신전 집 사람들은 이십 년을 살아온 동네를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 놓고 주인 영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를 통해 신전 집 사람들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72에서 철호의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누더기를 꿰매는 일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호네 가족이 매우 가난한 처지임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도회에서의 패잔자'는 신전 집 사람들로, 그들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강화로 떠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치열한 도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의 영호는 적은 월급을 받기 위해 취직하기보다는 '엉뚱한 생각'을 실행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059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나)의 #70에서 철호가 침묵하는 것은 현실이 답답하기 때문이다. #71에서 택시 운전수와 대화를 하는 영호는 행동과 말에 거침이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두 장면에 나타나는 침묵과 대화는 상호 대비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두 장면을 통해 영호가 소심하다는 점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68에는 철호만 등장하는데, 이어지는 #69에는 갑자기 철호의 아내가 등장한다. #69에 '철호㉔'를 삽입한 것은 철호의 아내를 바라보며 그녀에 대해 회상하는 이가 철호임을 알려 주기 위해서이다.

② #69에 나오는 '철호㉔' 뒤에는 철호의 아내가 행복하게 지냈던 과거의 장면이 제시된다. 따라서 '철호㉔'에는 비참하게 살고 있는 지금의 아내에 대한 철호의 연민이 드러난다.

③ #69는 'O·L'을 통해 장면이 전환되는데, 시간은 바뀌었지만 '노래'를 활용하여 아내의 행복한 상태가 지속됨을 보여 주고 있다.

④ #70에서는 철호가 황홀한 도회지를 보며 침묵하고 있는 장면이 제시된다. 이때 도회지의 분위기는 그의 비참한 처지와 대비되는 것으로, 그의 침묵은 그가 자신의 처지를 답답해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06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㉔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여 신전이라는 공간이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75에는 변화되고 있는 대상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에서는 자동차에 몸을 싣는 이쁜이와 이를 바라보는 이쁜이 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딸을 떠나보내는 이쁜이 어머니의 슬픔을 보여 주고 있다. #71의 자동차에서 내린 영호가 #72의 방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통해 영호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고 있다.

② ㉡에서는 같은 날 개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신전 집 사람들의 낙향 사건과 이쁜이가 집을 떠나는 사건을 연결하고 있다. #73과 #74에서는 공간은 다르지만 철호와 영호의 이어지는 대화가 두 공간을 결합하고 있다.

③ ㉢에서는 서울 살림을 거두고 시골로 떠나는 신전 집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그들에 대한 애달픈 감정을 서술하고 있다. #73~#75에서는 철호와 영호의 대화를 매개로 서로 다른 공간이 연결되는데, #73에 등장하는 민호와 #75에 등장하는 명숙이 #74에 등장하는 철호와 영호 간의 대화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④ ㉣과 ㉤은 같은 날 개천을 사이에 두고 발생한 사건이고 #74와 #75도 같은 날 방의 안과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과 ㉡은 서술자의 설명에 의해 두 사건이 연결되지만, #74와 #75는 철호와 영호의 목소리를 통해 사건이 연결된다.

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아울러 현진건은 '유종'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일제 강점하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193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현실에 대응하는 작가의 민족주의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 제시된 장면은 자신의 딸과 혼사를 진행하려는 금지의 뜻을 거절하려는 유종의 내면 의식과 아내인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둘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을 하는 아사달의 내면 의식을 담고 있다.

| 주제 | 고뇌와 번민을 극복하고 이루어 낸 예술적 성취

| 전체 줄거리 | 신라 경덕왕 때 초파일 밤, 다보탑을 2년 만에 완성하고 이제 석가탑을 세우고 있는 불국사에 왕이 행차하였다. 일행은 다보탑을 보고 감탄하였는데 특히 일행에 끼어 온 유종의 딸 주만은 극도의 감격을 느꼈다. 그녀는 왕 앞에 나온 아사달을 보고는 한눈에 반해 버렸다. 그는 백제 사람으로, 고향에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헤어져 이미 3년이 지난 아사녀가 있었다. 아사녀는 서라벌에 왔으나 남편을 만날 수가 없었다. 다만 석가탑이 완성되면 영지에 비칠 것이라는 말만 믿고 영지에서 나날을 보내다 영지에 빠져 죽는다. 탑이 완성되자, 아내의 참변을 들은 아사달은 슬피 운다. 주만은 아사달에게 달아나자고 애원하다 국법을 어긴 죄로 죽음을 당한다. 아사달은 영지가의 바위에 아내와 주만의 영상을 합하여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한 **☆교제 수록 부분** 뒤, 영지에 빠져 죽는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현진건의 「서투른 도적」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서술상의 특징 파악, 인물의 심리와 태도 파악,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지를 묻고 있습니다.

현진건은 일제 강점기 고단한 하층민의 삶과 민족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는 한편, 역사 소설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투른 도적」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B형에 출제되었던 현진건의 「무영탑」과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서투른 도적」에 나타나는 일제 강점하의 하층민의 삶과 「무영탑」에 나타난 민족의식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현진건의 다른 작품들이 출제되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 학습 15

본문 78~81쪽

현진건, 「무영탑」

▶ 수록 「서투른 도적」의 유사 작품

| 해제 | 이 소설은 불국사의 석가탑 건립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백제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비극적 사랑을 모티프로 창작된 작품이다. 「무영탑」은 설화에 얽힌 석가탑의 다른 이름이다. 작가 현진건은 한 석공의 예술혼과 남녀 간의 사랑을 결합하여 석공 아사달이 고뇌와 번민을 이겨 내고 신라 시대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석가탑을 만들어

06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이 글의 중략 앞부분에는 주만의 혼사 문제를 두고 괴로워하는 유종의 내적 갈등이, 중략 이후에는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둘에 담아 새겨 내

는 작업을 진행하는 아사달의 내적 갈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는 인물의 의식이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둔 서술 방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이 글에는 인물들 간의 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는 “한 나이냐 젊었더면!”이 인물이 실제로 한 유일한 발언이다. 이는 고립무원의 처지인 유종이 조국의 미래를 염려하며 내뱉는 발언이다. 아울러 유종은 조정에서 일하는 사람임을 감안할 때, 이 글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신분이 낮은 인물의 발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유종은 당학파가 득세하는 세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려 하는 유종이 탈속적 세계를 지향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유종은 당학파가 득세하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사윗감을 찾으려 하고 있고, 아사달은 거룩한 부처님의 형상을 돌에 새기려 하고 있다. 따라서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소외된 개인의 욕망이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6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유종은, 당학파의 우두머리인 금지의 아들 금성과 자신의 딸인 주만의 혼사를 막기 위해 ‘다른 데 정혼’을 하여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㉔은 유종이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일 뿐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위한 방도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유종은 금지로 대표되는 당학파가 당학에 빠져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그네들의 한문’이 난신적자를 만들어 내기에 알맞은 것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이는 삼한 통일을 이룬 신라의 씩씩한 기풍이 당학에 지질리고 나라가 문약으로 흐른다는 유종의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종이 ㉔을 신라를 문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유종은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이가 조정에서 사라지고 혼자만 외로이 남은 처지에 놓인 자신을 ‘무 밑둥’에 빚대어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㉕은 유종의 외로운 처지를 보여 주는 비유라 할 수 있다.

③ ㉖은 화랑도를 숭상해 온 유종 자신을 가리킨다. 따라서 ㉖은 현재의 주류적 기풍인 당학을 거부하는 유종을 지칭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④ ㉗은 화랑도를 숭상하는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가리킨다. 유종은 당학파에 맞서 신라의 씩씩한 기풍을 회복하려고 하므로 ㉗은 유종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원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063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A]는 ‘어젯밤의 아사녀의 환영’처럼 주만의 모습이 환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며, [B]는 자신이 떠나보내는 아사녀의 모습이 환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A]의 주만의 모습과 [B]의 아사녀의 모습은 모두 아사달이 그들의 환영을 보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A]에는 자신의 모습을 돌에 새겨 달라는 주만의 간청이 나타나 있을 뿐 떠나는 아사달에 대한 주만의 걱정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② [B]에는 아사달과 이별하는 아사녀의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별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③ [B]에는 떠나는 아사달과 이별하는 아사녀의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훗날의 만남에 대한 아사달과 아사녀의 기약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④ [A]에는 자신의 모습을 돌에 새겨 달라는 주만의 간청이 나타나 있으며, [B]에는 떠나는 아사달과 이별하는 아사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A]와 [B] 모두에서, 이별한 대상인 주만과 아사녀를 잊고자 하는 아사달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06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아사달은 아사녀와 주만 두 얼굴이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는 장면에서 눈을 번쩍 뜨고, '원불' 상을 돌에 담아내고 있다. 이는 주만과 아사녀로 인해 변민하던 아사달이 고뇌와 변민을 떨치며 종교적 세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이 하나로 어우러져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한 장면에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 절망하는 인물의 내면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유종은 당학파의 우두머리인 금지를 비판하면서 신라의 씩씩한 기풍을 바로 세우기 위해 화랑도 사위감을 구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제 강점하의 현실에서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작가 현진건의 민족주의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아사달은 죽은 아내인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을 한다. 따라서 아사달이 아사녀의 환영을 돌에 담아내려고 하는 장면에는 아사녀에 대한 아사달의 사랑과 그의 예술혼을 융합해 내리는 작가 현진건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유종은 금지와 같은 당학파를 나라를 좀먹게 하는 집단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는 외세를 추종하는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려는 작가 현진건의 민족주의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아사달은 주만을 '떠오르는 햇발'에, 아사녀를 '셀넉의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 한 광채'에 빚대면서 머리가 어지러워짐을 느낀다. 이는 두 여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원불' 상을 어떻게 새겨야 할 것인가를 고뇌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사달이 아사녀를 '별만 한 광채'로, 주만을 '떠오르는 햇발'로 떠올리며 갈등하는 장면에서, 새로운 예술적 경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빚어진 아사달의 고뇌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065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 ⑤

정답 해설 이 글에서는 아사녀의 얼굴과 주만의 얼굴이 녹아들어 '거룩한 부처님' 모양으로 변한 것이 '원불' 상으로 새겨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아니라 여인의 얼굴이 새겨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이 글이 [자료 1]과 [자료 2]의 서사 모티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이 글에서 아사녀는 아사달을 찾아왔으나 끝내 그를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못에서 죽었다. 이는 아사녀가 석공과 만나려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료 1]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 글은 [자료 1]과 같은 설화를 차용하여 소설로 변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② [자료 2]에서 '그'는 제 환상에 떠오른 사랑하는 아내의 모양이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고 조각을 완성하게 된다. 이 글에서도 아사달이 아사녀의 죽음을 계기로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에 몰입하고 있으므로 이 글은 [자료 2]처럼 '아내'의 죽음을 종교적 상징으로 승화하고 있는 관점을 이어 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③ [자료 1]과 [자료 2]에는 유종과 주만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글에서는 유종과 주만이 등장하여 서사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자료 1]과 [자료 2]의 이야기에 유종과 주만 등의 서사를 추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자료 1]의 '연못'은 아사녀가 석공의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간 곳이다. 그러나 [자료 2]의 '못'은 '그'가 아사녀의 뒤를 따라 몸을 던지는 곳이며, 이 글의 '못'은 아사달의 아내인 아사녀가 죽은 곳이다. 따라서 이 글과 [자료 2]의 '못'은 [자료 1]의 '연못'이 부부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환기하는 공간으로 변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용 학습 16

본문 82~84쪽

채만식, 「미스터 방」

▶ 수록 「논 이야기」의 유사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미국이라는 외세에 빌붙어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주인공 방삼복에 대한 희화화와 풍자를 통해, 해방 직후의 혼란스럽고 부패한 시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 채만식의 소설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해방이 되어도 기뻐할 줄 모르던 신기료장수인 방삼복은 귀동냥으로 배운 서툰 영어로 우연히 미군의 통역을 해 주면서 갑자기 출세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코빼돌이’라는 별명은 ‘미스터 방’이라는 별명으로 바뀌게 되고, 방삼복은 미군의 세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으며 부를 축적하게 된다. 방삼복과 함께 이 소설의 또 다른 풍자의 대상인 백 주사는 전형적인 친일파로, 해방과 함께 몰락하게 되자 새로운 권력을 이용하여 일제 강점기 때 누렸던 특권을 되찾고자 하는 인물이다. 시대의 격변기에 하루아침에 지위가 뒤바뀐 방삼복과 백 주사를 통해, 작가는 해방 직후의 혼란한 상황을 틈타 권력에 기생하며 득세하는 기회주의적인 인물들과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다. 지문으로 출제된 부분은 방삼복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해방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부분과 백 주사가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복수를 방삼복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다.

| 주제 |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해방 직후 혼란한 사회상에 대한 풍자

| 전체 줄거리 | 서울에서 신기료장수를 하던 짚신 장수의 아들 방삼복은 해방 직후 혼란기를 틈타 미군정 아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군 장교 S 소위의 통역이 된다. **☆문제수록부분** 그는 ‘미스터 방’으로 불리며 미군의 위세를 등에 업고 상류층의 청탁으로 치부하며 권력을 누리게 된다. 어느 날 고리대금으로 많은 돈을 번 친일파 백 주사가 같은 고향 사람이라며 찾아와, 해방 후 군중의 습격을 받아 도망친 사정을 토로하며 방삼복에게 복수를 부탁한다. 거들먹거리며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장담하던 방삼복은 양치질을 한 뒤 물을 바깥으로 뱉는데 **☆문제수록부분** 그때 마침 방삼복을 찾아온 S 소위가 이를 뒤집어쓰게 되고 방삼복은 주먹질을 당한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채만식의 「논 이야기」를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서술상의 특징 파악, 작품의 내용 파악,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을 바르게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논 이야기」는 해방 직후의 부조리한 세대와 역사의 식이 결여된 개인의 소시민적 근성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 의식의 측면에서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에 출제되었던 채만식의 「미스터 방」을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당대의 부조리한 세대와 부정적 인물을 희

화하고 풍자하는 채만식의 희상화 방식을 이해한다면 채만식의 다른 작품이나 동일 작품의 다른 장면이 출제되더라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066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 정답 해설 | 서술자는 주요 등장인물인 방삼복과 백 주사의 심리 상태는 물론, 해방을 맞이하여 자기의 이익에 따라 희비가 달라지는 방삼복의 작중 상황이나 백 주사가 예전의 부를 되찾기 위해 불쾌하지만 방삼복에게 비굴하게 처신하는 사건 등을 전지적 시점에서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의 소설이다.

- | 오답 피하기 |** ① 이 작품은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 아니다.
 ② 이 작품은 서술자가 작중 인물로 등장하여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 아니다.
 ④ 이 글에 회상과 관련된 장면은 없으며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하는 액자 소설식 구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에서 사건은 과거와 현재가 반복적으로 교차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건 전개상의 입체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067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③

| 정답 해설 | ㉠에서는 신기료장수인 방삼복 혼자 값을 올려 받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파는 다른 업자들도 값을 올려서 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만 올랐지, 자신이 얻는 소득은 예전과 비슷하다는 불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은 당시의 경제 상황에 대한 방삼복의 불편한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은 해방의 상황에 대한 역사적 인식 자체를 갖지 못한 방삼복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방삼복은 해방으로 인해 새로운 국가를 수립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물론 이에 대

한 비판적인 전망도 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인물로 표현되어 있다.

② ㉠은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한 치안 부재의 상황에서 이로 인해 방삼복이 슬픔과 분노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다.

④ ㉡은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로 권력과 부를 누리던 과거의 영화는 사라지고 몰락하여 초라함을 느끼고 있는 백 주사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⑤ ㉢은 갑자기 득세하여 미스터 방이 된 방삼복이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음을 이야기한 것으로, 인물의 혼란스러운 내면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068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②

정답 해설 친일파로 일제에 기생하며 부와 권력을 누렸던 백 주사의 몰락을 가져온 해방의 시대 상황은 올바른 역사의 흐름이지, 개인을 억압하는 부당한 시대 변화로 볼 수 없으므로 ②는 올바른 감상 활동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해방된 사회에 대해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방삼복의 출세는 해방 직후의 사회의 혼란상을 통해 부정적 단면을 보여 주므로, 이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은 올바른 감상으로 볼 수 있다.

③ 백 주사가 자신의 몰락을 가져온 상황을 반전시켜 옛날의 기득권을 되찾고자 미국의 권력을 등에 업은 방삼복을 이용하려는 것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지 못한 부정적인 인물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

④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독립을 기뻐했다가 불리할 때는 다시 해방의 상황을 욕하는 방삼복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현실을 바라보는 올바른 인식이 없는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비판하는 활동은 올바른 감상이다.

⑤ 해방 전 자기가 권력을 누릴 때 대수롭지 않은 존재였던 방삼복이 미군정 시대에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되면서, 마음속으로는 불쾌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굴하게 부탁하는 백 주사의 이중적 태도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의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판적 감상이 가능하다.

069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①

정답 해설 ㉠은 백 주사가 방삼복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간 대상에게 분풀이를 하고 동시에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므로, 한 가지 일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됨을 의미하는 ‘핑 먹고 알 먹는다.’가 이에 부합하는 속담이다.

오답 피하기 ② 조금 주고 그 대가로 몇 곱절이나 많이 받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 빈 외양간을 고치느라 수신을 떠나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④ 상대방이 자기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자기도 상대방에게 좋게 한다는 뜻으로, 말은 누구에게나 점잖고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⑤ 욕을 당한 자리에서는 말 못 하다가 뒤에 가서 불평하는 것으로, 화가 난 마음을 애매한 다른 곳에 옮겨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학습 17

본문 85~88쪽

허준, 「진동」

▶ 수록 「진동」의 동일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해방 직후 만주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귀향의 여정을 중심으로, 해방의 환희와 기쁨에 도취되기보다는 해방 직후의 현실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특히 패망한 일본인들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을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 작품이다.

| 주제 | 해방 후 새로운 인간 정신의 모색

전체 줄거리 | 해방 직후에 '나'는 친구인 방과 함께 만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다가 그와 헤어지게 되고 화물차를 얻어 타 수성까지 오게 된다. '나'는 제방을 따라 내려가다가 한 소년을 만나는데, 이 소년은 뱀장어를 일본인에게 팔면서 돈 많은 일본인을 알아내어 한국인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일본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열성적인 복수의 모습을 망연히 바라만 본다. **★수목수목부분** '나'는 방을 만나려고 청진역으로 갔다가 국밥 장사를 하는 할머니를 만난다. 할머니는 서른에 남편을 잃고 독립운동하던 아들까지 잃은 사람인데도 난민이 되어 쫓겨나게 된 일본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는 너그러운 태도를 보인다. **★고제수목부분** **3수목수목부분** 방을 만나 열차를 타고 청진을 떠나는 '나'의 머릿속에는 국밥집 할머니의 모습이 황량한 폐허 위에 퍼덕이는 '한 점 먼 불 그늘', 곧 '잔등'으로 새겨진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허준의 「잔등」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작품의 내용 파악, 구절의 의미 추리, 서술상의 특징 파악,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기를 묻고 있습니다.

「잔등」은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에도 출제되었던 작품으로, 작품의 내용, 서술상의 특징, 감상의 적절성, 인물의 심리 및 태도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해방 직후의 우리 현실과 패망한 일본인을 바라보는 이중적인 심리, 그리고 서술자가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 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잔등」의 어떤 부분이 출제되더라도 잘 풀 수 있을 것입니다.

070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하루아침은 문득 그것(노인의 아들)이 죽었으니 찾아가라는 기별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야 얼마나 앞이 아득하였겠어요.'라는 노인의 말에서 노인이 아들의 죽음을 직접 보지 못했고, 단지 사망 소식만 전해 들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그 애(노인의 아들)가 돌아가던 해 여름, ~ 몇 해 만에 다시 남의 고궁살이를 들어갔지요.'라는 노인의 말에서 노인이 '그 애'가 죽기 전에도 고궁살이를 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또 아이 몇 잃어버리는 동안에 생긴 잠 안 오는 나쁜 버릇이 다시 도져서'라는 노인의 말에서 노인이 불면의 고통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③ '행상의 여인네'는 남루한 행색의 일본인 아낙네가 과일값을 묻자 가격을 알려 주었을 뿐 공짜로 과일을 주지는 않았다.

⑤ '세 어린것'이 각자 엄마(일본인 아낙네)를 밀고 당기고 어깨 너머를 훑아오르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보챌 때 으레 하는 행동이다. '행상의 여인네'에게 구걸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07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노인과 '나'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지 않다. '나'는 노인의 생각과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사적 상처, 민족 간 갈등을 넘어서는 보편적 인간애의 가치를 깨닫는다.

오답 피하기 ② [B]에서 '사람의 가족은 질기다고 했습니다.'라는 말은 노인이 마지막 자식마저 잃는 비통한 일을 겪고도 여전히 혼자 남아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진 목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③ [B]에서 노인의 성격은 그가 하는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마음이 제법 단단해 보이던 그도 한번 내달으니 비로소 젊음이 앞에서 긴 한숨을 견잡지 못하였다.'와 같이 직접적인 서술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④ [B]의 '긴 한숨을 견잡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에서 자식을 모두 잃은 '노인'의 깊은 슬픔과 고통스러운 심정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노인은 일제 강점기에 자식들을 하나둘 잃어버렸으며 마지막 남은 아이마저 감옥에서 죽고 만다. [A]와 [B]에서 '그 애', '그것', '그놈'은 모두 감옥에서 숨진, 노인의 마지막 남은 자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072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①

정답 해설 [가]에서 '나'는 그날 낮에 좁은 행상으로 위에서 목격했던 장면을 회상하면서, 그때 보았던 일본여자의 남루하고 애처로운 행색을 사실적으로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길에서 만난 일본여자의 모습을 사실

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 '자기'와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에서 '나'는 거리를 두고 대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위치에 있다. 현재의 '자기'가 과거 속의 자아를 부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④ '나'는 일본 여자가 처한 실제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⑤ '나'의 회상 속에는 일본 여자의 현재의 처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미래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07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일본인 아낙네는 아이들과 함께 여러 날 굶주렸을 것이나 과일의 가격을 물어보고, 기운 없이 행상의 여인네를 바라만 볼 뿐 구걸하지는 않는다. 행상의 여인네 또한 무심히 과일값을 알려 줄 뿐 애처로운 행색의 일본인 아낙네에게 어떠한 자선이나 동정도 베풀지 않는다. 따라서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일본인 아낙네의 아이들이 '야단'인 모습을 보고 비참하다고 한 데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나'의 객관적 태도가 연민과 동정의 태도로 변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노인과의 대화를 하면서 노인이 보여 준 측은지심에 영향을 받은 '나'는 그날 낮에 마주쳤던 일본인 아낙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이를 통해 '나'가 노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노인은 자국의 패망으로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일본인들에게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느끼고 있다.

④ '측은한 표현'이라는 말에서 '나'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제삼자의 태도에서 벗어나 비참한 지경에 놓인 잔류 일본인들을 같은 인간으로서 측은하게 여기는 태도로 옮겨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용 학습 18

본문 89~91쪽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 수록 「너와 나만의 시간」의 유사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실존적 상처를 안고 사는 형과 관념적 고민을 가지고 사는 동생의 아픔과 갈등을 통해 1960년대 젊은이들의 정신적 상처와 극복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 이 작품은 6·25 전쟁 때 자신의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쓴 형의 소설과 전후의 현실 속에서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동생의 이야기가 액자 형식으로 엮여 있는데, 두 이야기를 통해 아픔의 원인을 가진 전쟁 체험 세대와 아픔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전후 세대의 상처의 원인과 그 극복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 주제 | 두 형제의 서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인한 아픔과 그 극복 과정

| 전체 줄거리 |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형은 6·25 전쟁 당시의 불행한 체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중, 어느 날 소녀의 수술을 실패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갑자기 병원 일을 소홀히 하고 소설 쓰는 일에 몰두한다. 우연한 기회에 그 소설을 접하게 된 동생 '나'는 형의 소설이 진행되는 것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문제 수록 부분** 소설이 진척이 없을 때는 자신의 그림 그리는 일마저 의욕을 상실한다. 결국 형의 소설은 체험의 회고가 아니라 재구성이었음이 드러나고, '나'는 삶의 허무로부터 벗어나 현실의 세계를 직시하고자 하는 용기와 자기 연민의 극복 의지를 가지게 된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황순원의 「너와 나만의 시간」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서술상의 특징과 작품의 내용, 그리고 소재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너와 나만의 시간」은 6·25 전쟁의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겪는 갈등 상황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를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인간을 어떻게 극한으로 몰아가는가와, 그로 인한 상처를 극복할 방안을 두 작품이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면 관련된 작품이나 장면이 출제되더라도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074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인물이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장면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인물의 내면적 갈등과 관념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간결한 문체와 사실적인 묘사

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피하기 ① ‘형의 내력에 대한 관심도 문제였지만, 형의 소설이 나를 더욱 초조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이상하게 나의 그림과 관계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구절을 보면, 형의 소설과 ‘나’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제시된 장면은 서술자인 ‘나’의 내면적 갈등과 관념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④ 줄표와 줄임표는 ‘나’가 자신의 그림과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고, ‘나’에 대한 형의 못마땅한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⑤ ‘창세기적 아벨의 선 개념’, ‘신으로부터 영원한 악으로 단죄받은 카인의 질투’ 등 추상적인 개념어를 사용한 요약적 서술이 나타나고, 형과 ‘나’의 대화를 통한 장면 제시 또한 활용되고 있다.

075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정답 ④

정답 해설 동생이 형의 소설을 읽은 시점은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있던 중이고, 사람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해인과 헤어진 후이다. 또, 형이 동생의 화실을 방문한 것은 소설을 쓰기 전날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배열해 보면, 동생이 해인과 헤어진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생이 사람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한 것, 세 번째는 형이 동생의 화실을 방문한 것, 네 번째는 형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076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나는 인간의 근원에 대해 생각을 좀 더 깊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절실했던 점만은 지금도 고백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과 ‘얼굴의 외곽선을 떠 놓고(그것은 나에게 있어 참 이상한 방법이였다.) 나는 며칠 동안 고심만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그림은 인간의 근원과 관련된 것이지

형과의 갈등 해소와는 관계가 없다.

② 동생이 그림을 통해 도달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근원을 아는 것이지 종교적 깨달음이 아니다.

③ 동생이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지는 제시된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

⑤ 동생은 해인과 이별한 상처를 치유하고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077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A]는 동생의 그림에 대한 형의 논평이므로, 이것이 동생의 예술적 견해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② ‘선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야.’를 보면 그림을 통해 형이 동생의 심리 상태를 간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동생의 그림의 방향을 예측하고, 동생의 그림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것은, 형이 동생의 그림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것을 찾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④ ‘그 새로 탄생할 인간의 눈은, 그리고 입은 좀 더 독이 흐르는 쪽이어야 할 것 같은데……’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⑤ 동생의 그림은 결국 동생의 삶의 태도와 관계된 것이니, 그림에 대한 조언은 곧 동생의 삶의 태도 변화를 원하는 형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078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이 글의 ㉠는 ‘몸이나 몸체를 부르르 떨거나 움직이다.’라는 뜻이고, <보기>의 ㉡는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비, 눈 따위가 세차게 뿌리다.’라는 의미이다.

오답 피하기 ① 이 글과 <보기>의 ㉢는 ‘해가 저서 어두워지다.’의 의미이다.

③ 이 글과 <보기>의 ㉣는 ‘연필, 붓 따위로 어떤 사물의 모양을 그와 닮게 선이나 색으로 나타내다.’를 뜻한다.

④ 이 글과 <보기>의 ㉤는 ‘몹시 추워하거나 두려워하

다.'를 의미한다.

⑤ 이 글과 <보기>의 ㉓는 '일을 미루다.'라는 뜻이다.

적용 학습 19

본문 92~94쪽

서정인, 「강」

▶ 수특 「후송」의 유사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현실에서 소외된 세 사내의 동행을 소재로 하여, 소시민적 삶의 비애와 삶에 대한 허무를 그려 내고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는 특별히 의미 있는 대화나 뚜렷한 사건이 제시되지는 않지만 현실로부터 소외된 인물들에 대한 담담한 묘사를 통해 인생의 허무와 비애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제목인 「강」은 이 소설에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거스를 수 없는 강의 물결처럼 흘러간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주제 | 삶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의 소시민적 비애

| 전체 줄거리 | 김 씨와 이 씨는 박 씨네 하숙생들이다. 셋은 버스를 타고 군하리의 혼шат집으로 가고 있다. **★고제 수록부분** 밤늦게 혼шат집에 다녀온 세 남자는 취해 버리는데, 박 씨와 이 씨는 낮에 만났던 여자의 술집으로 가고, 김 씨는 혼자 여인숙에서 아이를 만난다. 일등을 했다고 자랑하는 아이를 보며 김 씨는 자신이 어릴 때는 촉망받는 천재였다가 평범한 대학생으로 전락하는 과정에 대해 생각한다. 동네의 천재였던 아이가 가난과의 싸움에서 피곤한 낙오자로 전락하는 과정을 떠올리며 김 씨는 잠이 든다. 김 씨를 데리러 온 여자는 그에게 연민을 느끼며 이불을 덮어 준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서정인의 「후송」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서술상의 특징, 인물의 심리와 태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을 바르게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서정인은 소설을 통해 타락한 세계의 비인간성을 주목하고 비판하는 한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후송」이 전자의 경향을 보여 주는 작품이라면 2016학년도 10월 학력평가에 출제된 「강」은 후자의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정인의 작품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 두 작품을 연계하여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정인의 작품이 작품 속에 드러나는 배경과 사건의 성격과 그 사건을 둘러싼 인물들

의 심리와 태도 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관련된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079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이 씨'가 껌을 나눠 주는 장면에서 '이 씨는 옆에 있는 김 씨에게 그리고 뒤에 앉은 박 씨와 그 옆의 여자에게까지'로 서술된 것을 통해 각 인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버스가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고 출발한 것에 대해 기분이 상했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은 '여차장'보다 '운전사'에 가깝다. '여차장'의 반응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여자'에게 군하리에 가는 이유를 묻고 있는 인물은 '이 씨'가 아닌 '박 씨'이다.

④ '손님 머릿수가 적은 것이 눈에 안 차는 모양이다.', '손님들이 오히려 미안해해야 할 모양이다.'의 서술로 미루어 '운전사'가 승객에게 미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일행이 하숙하고 있는 집의 주인은 '박 씨'이다.

080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여자의 웃음소리는 김 씨의 상상을 망쳐 버린다.'라는 구절을 통해 ㉠이 '김 씨'가 장님이 되는 상상의 흐름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은 '박 씨'와 '여자'의 대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웃음소리가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든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이 특별히 어떤 긴장감을 조성하지 않았기에, 그 긴장감이 ㉡을 통해 해소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 '김 씨'의 상상을 망쳤기에 인물에 대한 호감을 강화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고, ㉡은 '박 씨'와 여자의 대화 중에 나오는 소리이므로, 이것이 인물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과 ㉡ 모두 현실에서 들리는 소리이다.

081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⑥는 여자와 심리적으로 멀어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박 씨’)의 말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것에 가깝다.

오답 피하기 ① ‘질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생각이 전혀 없’었던 여차장이 ‘비로소’ 뒤를 돌아보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설명이다.

③ 몰랐던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버스가 늦게 출발한 사실에 대한 불만을 비꼬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앞서 ‘이 씨’가 “너, 곰이로구나?”라고 했던 농담을 활용하여 여차장이 맞받아친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세요?’라는 말을 통해 여자가 자신에 대해 ‘박 씨’에게 말하기를 꺼려 함을 알 수 있다.

08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이 글에서 ‘김 씨’, ‘이 씨’, ‘박 씨’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장면을 찾을 수 없다. 이들은 일행인 서로에게보다 처음 만난 이들에게 주로 말을 걸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박 씨’에 대한 정보는 작품 속에서 한 번에 주어지지 않는다. 인물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가 흩어져서 제시되고 있다.

③ ‘이 씨’와 ‘여차장’이 나누는 대화는 가벼운 농담에 가까우며 관계의 발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소통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서술 대상이 바뀌어 대상에 대한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정보가 제시되면 상대적으로 시간의 흐름이 지연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사 전개가 지연된다.

⑤ 이 글에서는 인물들의 상상이 다른 인물들의 대화에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자연스러운 서사의 흐름을 방해하고 실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간보다 서술자의 서술로 이루어진 시간을 길게 하는 서사의 지연을 낳는다.

적용 학습 20

본문 95~97쪽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 수록 「도요새에 관한 명상」의 동일 작품

해제 | 이 작품은 1976년 발표된 중편 소설로, 한 가족 구성원들의 삶과 갈등 양상을 통해 당시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파괴, 정치적 자유의 억압, 물질 중심적 사고의 확산, 분단의 고착화 등과 같은 문제들을 다양한 층위에서 보여 주는 작품이다. 총 4부 가운데 1~3부에서는 동생 병식, 형 병국, 아버지의 시점을 통해 각각을 중심으로 한 사건과 내면의 서술이 밀도 있게 이루어지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4부에서는 이야기 밖 서술자의 시점에 의해 전체 사건이 마무리된다. 병국과 병식을 통해 당대 젊은이들의 고민과 방향이, 아버지를 통해 실향민의 아픔이 형상화되며, 특히 이들의 가치관과 삶의 지향은 작품의 핵심 소재라 할 수 있는 ‘새’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주제 |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상처 입고 방황하는 이들의 삶

전체 줄거리 | 재수생인 병식은 동진강 하구에서 밀렵한 새를 박제사에게 넘기고 번 돈을 유흥비로 쓴다. 그리고 한때 촉망받는 수재였으나 학생 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제적되어 낙향해 온 병국을 보며 실망한다. 낙향한 병국은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 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품고 살아온 상처의 원인을 듣는다.

※수록수록부분 또 동진강 하구에서 자취를 감춘 도요새를 찾아 헤매면서 인근의 수질 오염 문제에 관심을 쏟는다. **※교재수록**

부분 한편 아버지는 이복 출신 실향민으로 철새가 도래할 무렵이면 갯벌에 나가 새를 보며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추억하는데,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무기력한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아버지는 해안 통제 구역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군 당국에 붙잡힌 병국을 데리고 오면서, 병식이 새 떼를 독살했을 것이라는 말을 병국에게 듣는다. 병국은 병식을 찾아가 잘못을 추궁하려다가 병식과 격렬하게 다툰다. **※수록수록부분** 이후 술집에 갔다가 바깥에서 아버지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통일을 염원하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말이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발걸음을 돌린다. 그리고 바다를 응시하다가 도요새가 날아오르는 환상을 본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서술상의 특징 파악, 작품의 내용 파악,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을 묻고 있습니다.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에도 출제되었습니다. 작품의 주요 인물인 병국과 병식, 그리고 아버지의 가치관과 세계에 대한 대응 방식이 ‘새’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해한다면 어떤 장면이 출제되더라도 답을 찾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083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이 글에서는 '나'가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개펄에서 새 떼를 만나고 나서(체험) 도시의 생활 환경이 자연을 파손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현실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됨을 보여 준다.

오답 피하기 ①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인물이다. 따라서 어리숙한 인물이라 할 수 없으며, 진술이 해석적인 부분도 없다.

② 이 글의 서술자는 '나'이므로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사건의 주인공이며, '나'는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관찰자 입장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이 글의 서술자는 '나'이므로 서술자가 작중 인물이 아니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84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㉔에서 도요새의 재잘거림을 환청으로 들어 왔다는 것은 [A]에 제시된 것과 같은 생각을 '나'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인물이 대상(도요새)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인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도요새는 '나'에게 정신적 자유를 의미하고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존재이므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를 '나'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 피하기 ① 새가 '수백 마리로 떼를 이루어 의식의 공간을 무한대로 휘저었다.'는 것은 '나'의 머릿속이 대상(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후의 진술을 보아도 '나'는 대상(새)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므로 이 진술은 적절하다.

② '나'는 대상(도요새)을 찾아 헤매었으나 대상(도요새)은 이미 시베리아 등으로 북상한 뒤여서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대상(도요새)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

다리고 있다고 했으므로 이 진술은 적절하다.

③ '나'의 사고는 '전혀 자유스럽지 못한', '굳게 닫힌 문'의 상태이다. 이러한 '나'의 사고를 '도요새가 그 날 카로운 부리로 쪼'었다고 했으므로 '나'의 의식이 도요새에 의해 각성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나'가 석교천과 동진강을 예전의 자연수 상태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수천 번 반복하여 자기 최면에 걸릴 정도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스스로의 다짐을 반복함으로써 자기 세뇌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나'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해진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뜻한다.

085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A]는 도요새가 사람처럼 말을 하도록 하여, 즉 우화적 장치를 이용하여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자연을 파괴하고 스스로 기계와 조직의 노예가 되는 인간 세상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A]에 도요새들 간의 논쟁적 상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A]에서 도요새의 이동에 따른 공간 변화는 떠올릴 수 있으나 도요새 무리의 갈등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갈등 해소 과정도 보여 주지 않는다.

④ [A]에 도요새의 비행경로에 관한 관찰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대의 추운 지방'에서 '지구의 반을 가로지르는 여행길'을 비행경로라고 오해하더라도 그것이 인간 문명의 발전 과정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A]에서 도요새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므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86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이 글의 '도요새'는 '나'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존재이고, <보기>의 '매화'는 어리고 성기어서 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꽃을 피우고,

암향이 부동하기까지 하여 화자가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오답 피하기 ① ‘도요새’가 인물에게 자신감을 주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도요새와 같은 자연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 오염을 극복하겠다는 ‘나’의 의지는 찾을 수 있으나 그것이 자신감과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매화’가 화자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화자는 ‘매화’를 보며 감탄하고 있는 것일 뿐 자존감을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② ‘도요새’는 ‘나’의 의지와 욕망을 대리 표현한 소재라고 볼 여지가 있다. [A]에서 ‘도요새’가 한 말은 사실 ‘나’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화’는 화자가 극복해야 할 존재는 아니다.

③ ‘도요새’는 인물에 종속된 존재라고 볼 수 없다. 이 글에 ‘도요새’는 실제로 등장하지 않으며 ‘나’가 자신의 의식을 강화하고 표현하기 위해 동원한 자연물체가깝다. ‘매화’는 화자가 두고 보아 온 존재로 굳이 말하자면 화자와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도요새’는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인물의 태도를 표상한다. ‘매화’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념을 상징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어리고 성긴’ 상태에서도 꽃을 피워 내고, ‘암향부동’까지 한 것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내고 결실을 맺은 존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적용 학습 21

본문 98~100쪽

박완서, 「나목」

▶ 수록 「겨울 나들이」의 유사 작품

해제 | 이 소설은 6·25 전쟁 혼란기의 서울을 배경으로 화자인 옥희도와 ‘나’가 맺었던 인연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전쟁의 피해가 가시지 않은 삶의 현장에서 가난함 속에서도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정신을 잃지 않았던 옥희도와 그를 사랑했던 젊은 날의 ‘나’의 이야기가 세월이 흐른 뒤에 ‘옥희도 유작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매개로 ‘나’의 삶에 다시 환기되는 구조를 지닌다. 젊은 시절의 ‘나’는 혼란과 방황 속에서도 세속적인 삶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기에 옥희도의 가난한 삶을 사랑할 수 있었지만, 결국 태수와 결혼하게 되면서 옥희도와의 인연을 정리하게 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나’는 유작전에서 옥희도의 그림 「나목」을 보고 옥희도가 추구했던 진정한 삶과 예술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제시된 부분은 ‘고가’를 제재로 하여 과거의 ‘나’가 지녔던 내면의 고뇌와 갈등을 보여 주는 부분과 ‘옥희도 유작전’을 보고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주제 | 젊은 날의 내면 갈등과 진정한 예술가의 초상

전체 줄거리 | 6·25 전쟁 중에 폭격으로 두 오빠를 잃은 ‘나’(이경)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미군 부대 안의 초상화 가게에서 일하게 된다. 외로움과 절망감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나’는 어느 날 초상화 가게에 일하러 온 옥희도를 만나게 된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옥희도의 황량한 분위기에 ‘나’는 매력을 느끼고 그를 사랑하게 된다. 그림을 그린다는 이유로 옥희도가 가게에 나오지 않자, ‘나’는 그의 집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고목이 그려진 그림을 보게 된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미군 부대 전기공이었던 황태수와 결혼한다. 6·25 전쟁이 끝나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나’는 옥희도의 유작전에 가서 자신이 전에 보았던 나무 그림이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교재 수록 부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박완서의 「겨울 나들이」를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서술상의 특징 파악, 구절의 의미 이해,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을 묻고 있습니다.

박완서의 소설은 6·25 전쟁 체험과 소외되고 억압받는 존재로서 여성의 삶을 주요 키워드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형에 출제되었던 박완서의 「나목」과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전쟁 체험이 주인공의 삶과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소외받는 존재로서 여성의 삶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박완서의 어떤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BS

087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 ①

정답 해설 이 글에서 남편은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면을 지닌 인물로, '나'는 그것과 합치되지 못한 채 남편의 그런 모습을 선뜻 수용하지 못하는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의 '장사꾼들과 몇 푼의 돈 때문에 큰소리로 샷대질까지 해' 대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 이런 남편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고, ㉡은 추억이 있는 은행나무에 대해 집착하면서 실용적인 편리만으로 정신적인 면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여기는 '나'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에서의 남편의 행동이 내면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나'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는 없다. 즉 남편의 흥정은 세속적인 이익을 위한 흥정일 뿐, '나'가 지키고 싶은 은행나무와 거기에 갖든 소중한 가치의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 ㉠의 장사꾼들과 흥정하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도 세속적이면서도 영악한 남편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고, ㉢의 남편의 콧구멍과 코털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도 '모멸과 혐오'를 느끼고 있는 '나'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 ㉠에서 '나'가 고가의 해체가 주는 내면적인 고통을 견딘 것은 고가의 해체마저도 실리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남편에게 맞춰 보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에서 '나'는 과거의 추억을 지니고 있는 은행나무를 지키려는 자신의 태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 속에 남아 있는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를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여전히 남편에게 동화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 ㉠의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었다.'라는 표현에는 남편의 가치관과 판단에 자신을 맞추려는 '나'의 심리가, ㉤에는 남편의 이마에 돌발적인 키스를 퍼부음으로써 세속적으로 살아온 남편의 삶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을 이겨 내려는 '나'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 고가를 해체하고 새집을 짓는 과정에서 ㉢과 같이 '나'가 은행나무만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실용적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가족들과 자신의 애환 등 내면의 잠재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088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이 글의 내용을 통해 남편이 고가를 철거하는 이유는 고가가 '터무니없이 넓은 대지에 불합리한 구조'로 서 있기 때문이고, '음침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으며, '불필요한 방들만 많고 손댈 수 없이 퇴락'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남편은 단순히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면만 고려하고 있을 뿐 '나'와의 친밀감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고가를 해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 남편이 결혼식을 치르자 제일 먼저 고가의 철거를 주장한 것은 고가를 해체하고 대지의 반쯤을 처분하여 새집을 짓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나'는 '모두가 남편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견고한 양옥'의 설계에 남편의 뜻이 반영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나'가 고가의 해체를 보며 '나 자신의 육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은 고가가 과거의 '나'가 투영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고가는 해체된 뒤에도 '나'의 내면에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를 남김으로써 갈등상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음침한 고가'에는 고가에 대한 남편의 부정적 인식이, '숙연한 고가'에는 고가에 대한 '나'의 아쉬움과 애뜻함이 담겨 있다.

089

인물의 심리 파악, 관용 어구의 이해

정답 ④

정답 해설 ㉠에서 '농간'이라는 표현을 통해 남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 멋대로 화가를 평가하는 비평가들에 대한 비판이다. 즉 죽은 다음에 그렇게 치켜세울 만한 화가였다면 왜 살아 있을 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 제기로, 특별한 원칙 없이 대상을 평가하는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표현인 셈이다. 그러므로 ㉡에는 '어떤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둘러대기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의미를 지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곧 허물어질 수 있는 물건이나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생각해 주는 척함을 이르는 말이다.
 ③ 아무 관계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잘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장래성이 엿보인다는 의미의 관용구이다.

경한다. 안진진은 결혼을 전제로 두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는데, 유복하게 자란 계획적인 성격의, 능력 있는 남자인 나영규와 부족하게 자라고 충동적인, 그렇지만 낭만적인 김장우 사이에서 고민한다. 안진진이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이 최악해진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고 사고뭉치 남동생은 살인 미수로 재판을 받게 된다. **★교재 수록 부분** 안진진이 동경하던 이모는 언제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활기가 가득했던 언니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안락하지만 무료한 삶을 불행하다고 느껴 자살을 하고, 안진진은 사랑보다는 안락한 삶을 위해 나영규와 결혼하는 모순된 선택을 한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공선옥의 「명랑한 밤길」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작품의 내용 파악, 서술상의 특징 파악, 구절의 의미 이해,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을 묻고 있습니다.

「명랑한 밤길」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애환을 드러내는 한편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의 삶의 비애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2021학년도 9월 고2 학력평가에 출제된 양귀자의 「모순」을 연계해서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이 겪는 삶의 고달픔,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존재로서 남성과의 역할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면 유사한 주제를 지닌 어떤 작품과 장면이 출제되더라도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 학습 22

본문 101~103쪽

양귀자, 「모순」

▶ 수록 「명랑한 밤길」의 유사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1998년에 발표된 양귀자의 장편 소설로, 모순으로 둘러싸인 한 여성의 삶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다양한 모순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가 병들고 쇠약해지자 돌아온 이기적인 아버지에 대한 이중적 감정, 남편과 자식의 문제로 온갖 고생을 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생의 활력을 얻는 어머니, 남부러울 것 없는 남편과 안락한 삶을 누리지만 정작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이모, 그 사이에서 주인공 역시 모순된 선택을 강요받는다. 작가는 이처럼 모순에 가득찬 현실을 감각적이며 섬세한 문체로 그려 내며, 그 속에서 살아가며 삶을 탐구해야 하는 여성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 주제 | 모순으로 가득찬 현실을 살아가며 탐구하는 여성의 삶

| 전체 줄거리 | 안진진은 25세 아가씨로, 무능력한 알콜 중독자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 사고뭉치 남동생과 자식의 뒷바라지로 늘 바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다. 어머니에게는 일란성 쌍둥이 여동생이 있는데, 얼굴과 성격, 학교 성적까지 같았던 두 자매의 삶은 결혼 후 정반대로 나타났다. 술주정에 폭력을 일삼다 집을 나간 아버지 때문에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힘겹게 살고 있는 어머니와 달리 자상하고 능력 있는 남편을 둔 이모는 최고급의 안락한 삶을 살고 있고, 안진진은 그런 이모를 동

090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서술자인 '나'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인생의 모순을 둘러싼 자기 내면의 복잡한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이 글에 '4월'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계절적 배경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이 글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④ 인물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한 서술자의 추측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진술이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니다.
 ⑤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가 교차되어 서술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물 간 갈등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09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이모의 가르침대로'라면 더 사랑한다고 느끼는 김장우를 선택해야 하지만, 최종 결혼 상대로 나영규를 스스로 선택하였기에 '나'는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기 위해 그 상황을 '잘 견디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고려한다면, 김장우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기 위한 성숙함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나'의 태도를 소극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김장우가 형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고 있듯이 '나' 역시 사고를 치고 재판을 기다리는 남동생 진모로 인해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슬픈 일몰'과 '아름다운 비밀 반쪽'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나'가 아버지에게 대한 애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③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서로를 영영 알아보지 못하게 헤어진다는 것은 '나'가 아버지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으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일 년쯤 전에' '나'는 인생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 년쯤'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인생은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말을 수정하게 된다. 이것은 '일 년쯤' 사이의 기간 동안 '나'를 둘러싼 일련의 경험을 통해 인생이란 것이 아무리 탐구해도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092

인물의 행동 특성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어머니는 과거에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 책'을 읽었고, 현재는 재판을 기다리는 진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 책'을 읽고 있다. 미래에 '나'의 어머니가 읽어야 할 책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어머니는 '궁지에 몰리는 마지막 순간에는 버릇처럼 책을 떠올리는 사람'이므로 미래에도 어머니가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 '어떤 난해한 분야의 책들'을 계속 읽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

다. 이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독서'는 자신이 직면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찾는 적극적인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어머니가 책을 읽는 목적이 어떤 대상과의 차별화에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어머니는 결코 이모가 읽어 왔던 그 많은 소설책이나 시집을 선택해 책값을 치르지 않을 것'이란 점만은 분명했다.'라는 구절을 보면 어머니는 감정 정화를 위해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어머니가 책을 읽는 이유는 자신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즐거움을 얻기 위한 행위는 아니다.

⑤ 어머니가 책을 읽는 이유는 개인적 성찰에 있지 않다.

09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이모와 어머니의 삶을 통해 '나'는 완벽하게 행복한 삶이나 완전히 불행하지만 한 삶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나'는 '어떤 종류의 불행과 행복을 택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나'가 불행을 거부하기 위해 '내게 없었던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는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병든 아버지의 간호와 경제적인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는 어머니는 표면적으로는 바쁘고 불행해 보이지만, 오히려 '나날이 생기를 더'해 가며 행복해 보인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불행의 이면에 있는 행복이라는 삶의 모순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고 싶었던 중요한 인생의 비밀'은 사랑하는 가족을 멀리하고 밖으로만 떠도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아버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세상의 일이 모순으로 짜여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삶의 본질이 모순에 있음을 드러낼 수 있다.

③ '그 다짐에 충실했던 일 년' 동안 '나'는 하나의 개념어에 필연적으로 잇따르는 반대어 같은, 정반대 조건의 나영규와 김장우 사이에서 어떤 사람을 결혼 상대로 선택해야 할지 '살필 수 있는 만큼' 다 살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생각’한다. 이를 통해 ‘그 다짐에 충실했던 일 년’이 사전적 의미와 그 반대 의미 까지도 탐구하여 모순된 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 시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난하여 힘들게 살았던 어머니와 정반대 삶을 살았던 이모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보였’지만, 이모는 자신의 삶을 ‘한없는 불행’으로 인식하여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 이모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빈곤 때문에 행복할 수 없었고 이런 자신의 모순된 삶을 ‘무덤 속 같은 평온’의 상태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적용 학습 23

본문 104~106쪽

최일남, 「흐르는 북」

▶ 수록 「아주 느린 시간」의 유사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1980년대 우리 사회의 현실적 단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서울에 기반을 둔 한 중산층 가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흐르는 북」은 이기적 삶의 세태를 배경으로 하면서 속물적 삶과 본원적 삶과의 갈등을 예리하게 그려 내고 있다. 또한 할아버지(민익태), 아버지(민대찬), 손자(민성규)로 이어지는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합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의 중심 소재인 ‘북’은 민 노인의 삶의 궤적을 보여 주며, 실리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예술 정신과 전통 세계의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던 아버지 때문에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은 민대찬은 아버지를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세속적인 가치를 열렬히 추구한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성규에게도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강요한다. 그러나 성규는 새로운 세대의 입장에서 할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더 나아가 아버지에게도 할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성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작품은 당대 사회에서 인간이 잃어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현대인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에 대한 소설적 성찰이라고 볼 수 있다.

| 주제 | 삶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합 모색

| 전체 줄거리 | 젊은 시절 북에 빠져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민 노인은 아들 내외에게 무시를 당하며 아들 집에 얹혀산다. 아들 친구들이 모인 어느 날 민 노인은 아들 친구들의 요청

으로 북을 치게 되고, 이 일로 아들의 심기를 건드려 불편해진다. 그날 이후 민 노인은 집에 손님이 오면 항상 외출을 하게 된다. 외출을 나간 어느 날 민 노인은 손자 성규를 만나게 되고, 성규로부터 학교 동아리 발표 때 북을 쳐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민 노인은 아들 내외를 생각하여 거절을 하지만, 성규의 설득으로 연습을 같이 하고 공연에 참여한다. 이러한 일은 아들 내외의 심기를 다시금 건드리게 되고, 아들은 민 노인을 끌어들이는 성규를 꾸짖는다. **★ 문제 수록 문단** 이런 일이 있은 후 성규는 데모를 하다가 잡혀가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민 노인은 성규의 데모와 자신의 북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북을 두드린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최일남의 「아주 느린 시간」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작품의 맥락 이해,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을 묻고 있습니다.

최일남의 소설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이면에 흐르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을 보여 주는 작품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6 학년도 6월 모의평가 B형에 출제되었던 「흐르는 북」을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개인과 세대의 갈등을 현대사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다른 장면이나 최일남의 다른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094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㉔은 성규의 어머니의 발화인데,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장면에서 삽입되어 있다. 성규의 어머니는 성규가 아버지의 말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자, 이를 ‘도박도박 말대답하는 것’으로 보고 자신의 아들에게 핀잔을 준 것이다. 따라서 이는 둘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민 노인의 삶에 대한 성규와 아버지의 가치관 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㉑의 ‘아들’, ‘며느리’, ‘민 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등으로 보아 ㉑은 민 노인의 시선을 통한 장면 제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더 많은 힐난을 내쫓고 있음’이라고 해석하여 며느리(성규의 어머니)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② ㉠은 '허랑방탕한 한평생'이라고 집약된 민 노인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면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을 모른 채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성규의 아버지가 민 노인과 같등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③ ㉡에서는 민 노인의 아내가 살아 있던 과거의 시절에는 그래도 아내가 '어지간히 바람막이 구실을 해주'기도 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아내 없이 '외톨이'로 남게 된 현재의 상황은 '운신하기가 수월찮았다.'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이로 보아 ㉡은 아들과의 '단절'로 상징되는 민 노인의 현재 처지가 부각되고 있는 서술로 볼 수 있다.

④ ㉢의 앞 발화에서 성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관계를 이해하지만 그것이 '저와 연결'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성규의 말은 둘 모두를 이해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규의 아버지는 이를 비꼬기 위해 '기특하다'고 반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09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성규의 아버지가 현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생활인의 감각' 바로 앞부분에 제시된 '노상 이기적인 현실에의 집착'이라고 서술된 내용이다. 이 부분의 발화는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생활인의 감각'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성규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세련된 입신'은 '민 노인'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방황하는 삶을 그만두고 세속적인 삶을 지향하기를 바라는 것은 민 노인이 아니라 성규의 아버지이다. '일단은 세련된 입신으로 평가되는 아들의 내력'이라고 한 데서 '세련된 입신'이 민 노인의 소망이 아니라 아들, 즉 성규의 아버지에게 대한 일반 사람들의 평가임을 알 수 있다.

② '낯선한 생활'은 민 노인이 자신의 아들의 삶을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성규가 지향하는 삶과 관련성이 없고, 성규의 아버지의 비판적 시선과도 무관한 구절이다.

③ '역사의 의미'란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화합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이는 '쾌적한 만남'으로 상징된다. 따라서 성규의 두려움과는 관련이 없다.

⑤ '비극의 차원'은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지, 민 노인과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갈라선 상황에 대한 진술이 아니다.

096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이 글에서 성규가 민 노인에게서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으려 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④의 진술은 일단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성규가 아버지와 민 노인 간의 화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장면 역시 찾기 어렵다. 다만 아버지와 달리 성규 자신은 민 노인과 불화할 까닭이 없음을 아버지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성규의 아버지와 민 노인의 갈등은 민 노인의 예술 지향적인 삶을 성규의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두 사람이 공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와 소통하기 어려운 까닭은 할아버지의 삶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규와 성규의 아버지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민 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중략된 부분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 민 노인은 아들에게 '자신의 고통과 낭떠러지의 세월'을 떠올리게 한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삶만 생각했기 때문에 민 노인은 아들에게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⑤ 이 글의 앞부분을 보면 성규의 아버지는 민 노인이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 이유는 민 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이 '제 체면을 판판이 우그러뜨리'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적용 학습 24

본문 107~109쪽

이선, 「티타임을 위하여」

▶ 수록 「도도한 생활」의 유사 작품

해제 | 1991년에 발표된 소설로 '나'의 가족이 아파트로 이사 하면서 벌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허영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여기서 '강남 아파트', '티타임'은 아내가 동경하는 중산층의 삶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아내는 그들과 삶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식기류를 구입하고, '자몽'과 같은 과일을 사다 먹고, '카스텔라', '화과자' 같은 간식을 구비한다. 그런 아내의 선망은 실제 그들의 삶과 괴리된 것으로, 중산층에 대한 아내의 허영심에서 비롯된 환상이다. 작가는 이와 같은 '아내'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들의 허영심을 통렬하게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 현대인의 허영심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 아내는 아파트로 이사한 후 주민들의 삶을 동경하며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티타임을 하자는 이웃의 말을 들은 아내는 그날부터 그럴듯한 티타임을 준비하기 위해 식기류나 온갖 간식을 마련한다. 그러나 티타임은 계속 연기되고 아내는 전전긍긍한다. **☆근대소속부분** 그러던 중 옛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며 집들이를 하던 날, '나'는 술에 취해 복도로 나가 이웃들을 향해 티타임을 갖자고 소리를 지른다. 그날 이후 아내는 이웃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며 '나'를 원망하는데, 어느 날 출근한 '나'는 아내로부터 급작스럽게 티타임을 위해 이웃들이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는 전화를 받는다. 퇴근한 '나'는 기운이 빠져 앉아 있는 아내로부터 티타임 대신 떡 잔치가 열렸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서 아내는 그동안 자신이 이쪽 사람들도 손으로 떡을 집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허탈해한다. **☆고재**

수록부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김애란의 「도도한 생활」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서술상의 특징, 소재의 기능,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을 묻고 있습니다.

「도도한 생활」에서 「피아노」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지향하는 '도도한 생활'의 상징과도 같은 소재입니다. 이와 같은 소재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보면 2021학년도 3월 고2 학력평가에 출제된 이선의 「티타임을 위하여」와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두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는 각각 「청년들의 고단한 삶」과 「현대인의 허영심 비판」으로 서로 다르지만 현대인의 삶을 관통하는 현실과 지향의 괴리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관련된 문제들을 잘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097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이 작품은 서술자인 '나'가 중심인물인 아내로부터 전해 들은 사건의 전말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② 인물의 외양 묘사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교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지도 않다.
④ 인물들의 서로 대립되는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098

사건에 따른 서술자의 심리 이해

정답 ③

정답 해설 '어느 날' 아내는 '당분간 밤참은 없을' 것이라는 '폭탄선언'을 한다. 이에 대해 '나'는 서운해하면서도 밝은 표정으로 당분간 불필요한 지출이 줄겠다고 말하는 아내를 보며 개운함을 느낀다. 이는 '당분간 밤참이 ~ 기분이 들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가 마음이 무거울 아내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그날' 아내는 화보에서 보았다며 '자몽'을 사 온다. 이에 대해 '나'는 한동안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시끄러웠는데 왜 하필 자몽을 사 온 것인지 의아해한다. 이는 "그런데 왜 하필 자몽이야?", "한동안 농약이 ~ 못했던 말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밤참을 내오기 시작한 '그날'부터 '어느 날' 폭탄선언을 하기 전까지, 아내는 티타임에 사용하기 위해 계속해서 간식을 구입하지만 밤마다 그 간식을 가족들에게 밤참으로 제공한다. 이에 대해 '나'는 날마다 밤참이 제공되는 것은 티타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다음 날이라도 티타임이 ~ 간식을 제공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그날 밤'에 '나'는 티타임을 갖자고 술에 취해 복도에서 난동을 부린다. 이에 대해 '나'는 '그날 밤'의 소동 때문에 아내가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렇다면 우르르 ~ 되돌아갔다는 말인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그때'에 피자 같은 음식이 아닌 떡을 먹고 있던 아

이들의 모습을 이웃들이 보게 되면서 아내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에 대해 ‘나’는 당시 아내가 느낀 부끄러움을 이해한다. 이는 ‘나는 아내의 ~ 그 기분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

09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화보’는 아내로 하여금 티타임을 더욱 그럴 듯하게 준비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하는 소재이다. 또한 ‘하마터면 창피당할 뻔했지 뭐예요. 티타임이면 난 그냥 차만 마시는 줄 알았거든요.’에서 아내가 이전부터 티타임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보’가 아내로 하여금 티타임을 갖겠다고 결심하게 만드는 소재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② 아내는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가 위치한 동네를 ‘이쪽 동네’라고 칭하면서, 다른 동네에 서라면 몰라도 ‘이쪽 동네’에서 구입한 자몽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아내가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③ 아내는 우연을 가장하여 13호 여자를 만나 티타임 시기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 내는데, 이는 언제 있을지 모를 티타임 때문에 간식을 사느라 불필요한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는 아내가 티타임을 아파트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중산층의 삶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불필요한 지출이 늘자 티타임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아내는 아파트 주민들이 망년회로 바쁘다는 이야기를 엿들은 후, 13호 여자에게 자신도 망년회가 밀려 있다고 거짓말한다. 여기서 주민들은 아내로 하여금 모방 심리를 불러일으켜 간접화된 욕망을 가지도록 하는 매개자에 해당하며, 아내는 이들에게 알보이고 싶지 않다는 경쟁 심리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아내는 티타임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13호 여자가 떡 잔치나 하자고 하며 손으로 떡을 집어 먹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이는 아내의 간접화된 욕망의 대상인 중산층의 삶이 허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적용 학습 25

본문 110~113쪽

작자 미상, 「양주 별산대놀이」 ▶ 수록 「양주 별산대놀이」의 동일 작품

해제 「양주 별산대놀이」는 경기도 양주 지방에 전승되어 온 전통 가면극으로 총 13과장(科場)으로 나뉜다. 가면극 공연은 대체로 널찍한 마당에서 아무런 무대 장치 없이 벌어지는데, 내용 전개 과정에 따라 공간적 배경이 수시로 변화하는 특징을 지닌다. 산대놀이는 고려 시대에 발생하여 조선 시대에 발전한 가면극 놀이로, 이때 ‘산대’란 임시 무대를 가리킨다.

제시된 장면은 제13과장으로 신할아버지와 미알할미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별산대놀이의 마지막 과장에 해당한다. 미알할미가 죽게 되자, 일찍이 집을 떠났던 도끼와 도끼누이가 모여 어머니의 장례(굿)를 치르는 내용이다. 익살, 과장, 반어, 비속어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흠어졌던 가족의 재회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 미알할미의 죽음과 가족의 재회

전체 줄거리 | 「양주 별산대놀이」는 제1과장 상좌춤, 제2과장 상좌와 움중놀이, 제3과장 움중과 먹중놀이, 제4과장 연원과 눈꿈적이놀이, 제5과장 염불놀이, 제6과장 침놀이, 제7과장 애사당법고놀이, 제8과장 파계승놀이, 제9과장 신장수놀이, 제10과장 취발이놀이, 제11과장 의막사령놀이, **★주목수록부분** 제12과장 포도부장놀이, 제13과장 신할아버지와 미알할미놀이로 구성된다. 파계승, 물락 양반, 무당, 사당, 하인 및 그 밖의 늙고 젊은 서민 등이 등장하여 지배 계층의 위선과 무능을 드러내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상을 재미있게 표현한다. 제13과장의 경우, 신할아버지가 부인 미알할미와 서로 다투다가 미알할미가 죽게 되자, 아들 도끼와 딸 도끼누이를 불러 장사를 지내는데, 이때 딸이 무당 역할을 맡아 굿을 하는 내용이다. **★조제수록부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양주 별산대놀이」를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표현상의 특징 파악,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구절의 의미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양주 별산대놀이」는 2019학년도 수능특강 문학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주 별산대놀이」가 양반이나 승려 등 권력층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표현상 익살과 해학을 담고 있다는 점, 서민층의 애환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과장이 출제되더라도 잘 풀 수 있을 것입니다.

100

갈래의 특징과 성격

정답 ④

정답 해설 도끼누이 역과 왜장녀 역을 하는 연희자가 동일인인 것은 맞지만, 그러한 교체가 ‘탈을 바꾸어 쓰는 행위’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탈춤 공연의 경우, 탈을 바꾸어 쓰지 않은 상태로 둘 이상의 인물(역할)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탈춤 공연은 일반적으로 관객들이 둘러싼 둥근 원형 무대에서 진행된다. 연희자들은 무대를 돌아다니며 관객들과 소통하거나, 관객들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면서 가면극을 진행한다. 이는 신할아버지의 연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③ 탈춤을 공연할 때 공간적 배경은 별다른 무대 장치나 소도구 없이도 연희자들의 연기, 즉 행동이나 대사만으로 달라질 수 있다.

⑤ 도끼누이가 진행하는 ‘굿’은 「양주 별산대놀이」를 마무리하는 장면으로, 다양한 예술 장르가 탈춤 공연 안에 뒤섞여 있었음을 보여 준다.

101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정답 ⑤

정답 해설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들리지 않는다.’는 속담 표현을 활용하여 등장인물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낸 말이다. 이 속담은 우리말의 일반적 통사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재미를 주려는 목적으로 독특하게 어순을 배열한 것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물건이 불에 완전히 타고 난 뒤에 남은 가루’를 뜻하는 ‘재’는 ‘먼지’와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다. 또한 ‘잿골’, ‘먼지골’이라는 두 단어를 대응시켜 읽으면 ‘골’이라는 음절의 반복이 만드는 음악성과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② ‘네 말이 옳다마는’은 도끼의 말에 신할아버지가 동의를 표현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웃음을 준다. 앞에서 도끼는 자신이 상제이므로 ‘아버지가 갔다 오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할아버지는 미알할미의 남편이므로 ‘아버지’ 또한 상을 당한 처지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③ ‘내가 도끼요./ 짝귀라고?/ 내가 도끼라고요.’라는 대사가 이어질 때, ‘ㄷ’이라는 음운이 연속적으로 활

용되면서 음악적 재미가 생겨나고 있다.

④ ‘도끼’라는 말을 들은 도끼누이는 동생인 도끼보다 ‘대패’라는 연장을 먼저 떠올리는데, 이러한 오해를 통해 남매가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을 재미있게 드러내고 있다.

102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 ①

정답 해설 [B]는 「양주 별산대놀이」의 마지막 부분으로, ‘지노귀굿(씻김굿)’의 일부를 빌려서 도끼누이가 하는 대사에 해당한다. <보기>에 따르면 ‘지노귀굿’을 통해 유족들은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를 얻는다. [B]의 ‘굿’ 또한 배우들의 연극이 끝났음을 알려 주는 신호가 되는데, 특히 ‘적적히 놀고 가시오.’라는 마지막 대사는 공연이 마무리되는 상황을 드러내면서, 관객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환기해 준다.

오답 피하기 ② 관객들이 미알할미에 대해 별다른 오해를 하고 있지 않으며, 도끼누이가 하는 ‘굿’의 내용이 미알할미와 관객의 화해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다.

③ 죽은 미알할미는 퇴장한 이후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굿’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관객들이 [B]를 하기 전에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떠올리던 상황은 아니다.

④ 신할아버지가 미알할미의 요청에 따라 굿을 벌인 상황은 아니다. 또한 도끼누이의 ‘굿’이 ‘지노귀굿’의 전체 과정을 보여 주지는 못한다.

⑤ 무당 역할을 하는 연희자가 [B]에서 다른 연희자들을 꾸짖거나 질책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가 안민영, 「매화사」

해제 | 이 작품은 모두 8수로 된 연시조이다. 이 작품은 추운 계절에도 능히 꽃을 피우는 매화의 고아한 절개를 그리고 있다. 화자는 매화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윽한 향으로 인해 느껴지는 운치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고 있다. 안민영의 시조 작품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으로 꼽히며 매화가 상징하는 지조, 절개의 의미와 더불어 그에 걸맞은 멋과 향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제 | 매화에 대한 예찬

- 구성** | • 제1수: 매화 그림자와 풍류
 • 제3수: 매화의 아름다움과 지조
 • 제8수: 매화의 높은 절개

나 송순, 「면앙정가」

해제 | 이 작품은 강호가도를 확립한 가사이다. 정국인의 「상춘곡」을 이어받고, 정철의 「성산별곡」에 영향을 준 작품으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제시문에서는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흥취를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노래하고 있다. 다양한 수사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자연의 경치를 실감 나게 묘사하고 있고,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고유어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주제 | 사계절에 따른 면앙정의 경치와 이를 즐기는 흥취

- 구성** | • 서사: 제월봉의 위치와 형세, 면앙정의 모습
 • 분사 1: 면앙정 주변의 풍경(근경 → 원경)
 • 분사 2: 사계절에 따른 면앙정의 주변
 • 결사: 풍류와 호연지기 및 역군은(亦君恩)

다 박지원, 「홍덕보 묘지명」 ▶ 수록 「수레 제도」의 유사 작품

해제 | 이 작품은 묘지명에 해당하는 잡문이지만 수필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글이다. 덕보 홍대용과의 교유에 따른 개인적인 체험과 일화를 통해 그의 비범한 재주를 찬미하고 있는 글이다. 몇 일화를 통해 홍대용의 인물됨을 예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홍대용의 평소의 생활 자세와 그가 지닌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주제 | 덕보 홍대용의 인물됨과 비범한 재주에 대한 예찬

- 구성** | • 1문단: 홍덕보의 식견과 정밀함
 • 2문단: 재주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덕보의 품성
 • 3문단: 웅대하고 결출한 덕보의 견해 ★교재수록부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박지원의 「수레 제도」를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작품의 내용 파악, 표현상의 특징 이해, 작품

의 맥락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박지원은 성리학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실학파의 중요한 학자인 '홍대용'을 칭송한 박지원의 「홍덕보 묘지명」을 연계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실학에 대한 박지원의 태도와 그가 비판하고 있는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면 비슷한 주제를 지닌 어떤 글을 보더라도 쉽게 이해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가)의 화자는 매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면앙정 주변 사계절의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다)의 글쓴이는 덕보 홍대용이 지닌 비범한 능력과 인물됨을 찬양하고 있다. 결국 주어진 세 작품 모두에는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다)에는 자연 친화 의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다)는 모두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다)에서는 사물에 의탁하여 삶에서 얻은 흥취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가)~(다) 모두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은 나타나지 않는다.

104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황혼월'은 '매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보조 관념이 아니다. 황혼 속의 달이라는 자연 정취와 연관되는 시어로, 시 전체에 걸쳐서 단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백발옹'은 (가)의 화자가 스스로를 지칭하고 있는 시어이다.

③ '아치 고절'은 '매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아한 품

치와 고상한 절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 ④ '두견화'는 진달래로, (가)의 화자는 철쭉이나 진달래의 속됨과 대비되는 매화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눈'은 어려운 환경을 의미한다. (가)의 화자는 이러한 눈을 이기는 매화의 생명력을 부각하기 위한 소재로 '눈'을 활용하고 있다.

105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가)의 분위기는 우아함과 절제된 아름다움, (나)의 분위기는 아름다움과 신비함의 흥취이다. 그런 만큼 동영상에서 (가)를 '구슬픔'이라는 분위기와 연관하여 영상화한다면, 이는 (가)의 분위기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가)의 '잔 잡아 권할 적에'라는 구절과, (나)의 '남여를 재촉해 타고'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한 내용이다.

③ (가)의 '백설 양춘'이라는 시어와 (나)의 시상 전개 의 흐름으로 보아 적절한 내용이다.

④ (가)의 '달', (나)의 '사양'이라는 시어로 보아 적절한 내용이다.

⑤ (가)는 '동각'이라는 시어에서 공간적 배경으로 한옥의 뜰이 연상되며, (나)는 남여를 타고 길을 통해 '백척 난간'에 도달한 것에서 주변 풍경의 조망이 가능한 곳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을 판단할 수 있다.

106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㉔은 아름다운 가을 산의 풍경과 모습이다. 이는 뒤에 이어지는 흥에 겨운 피리 소리와 연관해 볼 때, 적막감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피하기 ① '황앵'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었다.

② '긴 조으름'이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의 한가로운 상황이 구체화되고 있다.

④ 청각적 심상으로서의 '어적'과 시각적 심상으로서의 '달'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⑤ '가는 곳곳마다 불만한 경치로구나'라며 화자의 감회를 집약하고 있다.

107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㉔의 거문고 연주는 노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매화를 완상하는 화자의 풍류적 감각을 드러낸다. 반면 ㉕의 거문고 연주는 그 이후의 내용으로 보아 '자중자애하면서 세속을 벗어나 마음을 닦'는 수양의 도구가 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㉔의 거문고 연주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감흥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㉕의 거문고 연주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감흥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수양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② ㉔, ㉕의 거문고 연주 모두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심정을 나타내는 도구가 아니다.

③ ㉔, ㉕의 거문고 연주 모두 연주하는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다.

⑤ ㉔의 거문고 연주는 주변 사람과 어울리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지만, ㉕의 거문고 연주는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것이지 재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108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덕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바뀐 것이 아니라 (다)를 통해서 글쓴이가 덕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다)에는 덕보의 평소 생활 자세인 겸손함이 잘 드러나고 있다.

② (다)의 1문단에서 서양인들과 비교하여 덕보의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③ (다)의 첫 문장에 덕보에 대한 글쓴이의 감탄적 어조가 드러나 있다.

⑤ 전체적으로 여러 일화와 예를 동원하여 덕보의 인물됨을 말하고 있다.

가 정철, 「사미인곡」

| 해제 | 이 작품은 정철이 고향 창평에 은거하고 있을 때 지은 가사로, 여성 화자가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빚대어 임금을 향한 자신의 충절과 연군의 정을 고백하고 있는 작품이다. '서사-본사-결사'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본사는 다시 '봄-여름-가을-겨울'의 계절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서사에서는 광한전에서 임과 함께 지내던 화자가 하계로 내려온 상황을 그려 임금과 떨어져 있는 자신의 상황을 드러낸다. 본사에서는 봄의 매화를 보며 임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 긴 여름날 임에게 보낼 옷을 짓는 정성스러운 마음, 가을 맑은 달을 보며 임에게 청광을 보내고 싶은 마음, 추운 겨울날 임을 염려하며 따뜻한 벌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그리고 있다. 결사에서는 차라리 죽어서라도 임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면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연정을 보여 주고 있다. 「과과정」을 잇는 충신연주자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 주제 |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움, 연군지정

| 구성 | 서사: 임과의 인연과 이별 그리고 무심한 세월

- 본사 1: 임에게 매화를 보내고 싶음.
- 본사 2: 임에게 옷을 보내고 싶음.
- 본사 3: 임에게 청광을 보내고 싶음.
- 본사 4: 임에게 양춘을 보내고 싶음.
- 결사: 죽음을 초월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나 신홍, 「창 밖기~」

| 해제 | 이 작품은 임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음성 상징어와 '착각-진실'의 구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낸 시조이다.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임이 오신 소리로 착각하여 살펴보지만, 낙엽 지는 소리임을 깨닫고 애달파하는 화자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 주제 |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 구성 | 초장: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 중장: 낙엽 소리를 임이 오는 소리로 착각함.
- 종장: 임에 대한 그리움

다 유본학, 「옛집 정성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 수록 「통곡헌기」의 유사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예전에 살던 집의 당호를 소재로, '고요함'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면서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글이다. 소란스러움과 더위라는 외적인 번잡함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당시의 태도를 떠올리면서 글쓴이는 옛집에서 지냈던 뜻을 잊지 않고 되새기고자 하고 있다.

| 주제 |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는 삶

| 구성 | 1문단: 장흥방 집에 당호를 붙임.

- 2문단: 고요함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 3~4문단: 다시 찾은 옛집의 모습
- 5~6문단: 지난 시절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없는 안타까움
- 7~8문단: 새집을 짓고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고자 함. **☆고제 수록부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는 허균의 「통곡헌기」를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작품의 내용 파악,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구절의 의미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통곡헌기」는 집의 당호를 지은 이유를 바탕으로 삶과 세상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당호의 의미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유본학의 「옛집 정성초당을 둘러보고 쓰다」와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당호의 의미와, 그 속에 반영된 글쓴이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다면 유사한 성격의 어떤 글이라도 문제없이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09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가)에서 화자는 베개 머리맡을 비추는 달을 보며 임을 떠올리고 있다. 임과 동일시되는 대상인 달을 보며 '님이신가 아니신가'라고 독백하는 것을 통해 홀로 지내는 긴 시간 동안 화자가 임을 간절히 그리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님이신가' 착각하고 일어나 살펴보고 있다. 낙엽 날리는 작은 소리에도 혹시 임일까 여기는 간절한 마음을 독백적 어조를 통해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가), (나)의 '님이신가'라는 어구는 임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독백적 어조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의 '노여'는 '전혀'의 의미로,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비교할 대상이 전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즉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은 어디에 비할 바 없는 절대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나)의 '다'는 임을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인해 간장이 '모두' 끊어질 것 같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의

‘노여’와 (나)의 ‘다’가 입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흐느고야’는 세월의 흐름에 대한 화자의 인식, (나)의 ‘흐노라’는 입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을 드러내고자 사용되었다. 이들을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종결형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가)의 ‘되화’는 화자가 입에게 보내고 싶은 것으로, 자신의 변치 않는 마음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님이 너를 보고’를 통해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을 의인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헤란’이 의인화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④ (가)의 ‘므스 일고’는 아직 차가운 날씨임에도 피어난 매화에 대한 감동을 드러내고 있지만, (나)의 ‘므스 일고’는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에 대한 낙담을 드러낸 것이므로 둘 다 반가움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염냥’이 ‘가는 듯 고터’ 온다는 인식은 유한한 인생에서 입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시간의 흐름이 속절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언제 입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입과 단절된 채 흐르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유한한 화자의 인생에 비해 빨리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보기>에 따르면 천상의 시간적 질서에서는 끝없는 사랑이 지속되므로, 입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 짓는 것은 입과의 사랑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다.

② ‘점어 잇고’라는 시구는 화자가 ‘광한던’에서 입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과거의 한때, 즉 ‘천상의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 ‘늑겨야’라는 시어는 화자가 입과 헤어져 ‘하계’에서 외로이 지내고 있는 현재, 즉 ‘지상의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점어 잇고’와 ‘늑겨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보기>를 통해 화자가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냄을 알 수 있다. 화자가 입과 함께 광한전에서 지내던 때를 ‘엇그제’로 표현한 것은 입과 함께한 기억이 너무나 선명히 남아 있어 ‘삼 년’이라는 지상의 물리적인 시간을 심리적으로 압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보기>를 통해 천상의 시간적 질서와는 다른 지상의 시간적 질서가 화자를 힘겹게 함을 알 수 있다. ‘인심은 유흔’과 ‘무심흔 세월’은 유한한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른 화자의 불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다)에서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군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글쓴이가 집을 지으려는 곳이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외적 고요의 공간인 ‘임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외부의 낙엽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화자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 즉 외적 고요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② 낙엽 소리를 입이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화자가 간절하게 입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③ <보기>에 따르면 (다)의 글쓴이는 내적 고요를 추구함으로써 삶에서 느끼는 슬픔을 이겨 내는 동력을 얻고 있다. (다)에서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는 것은 옛집을 돌아본 경험으로 인해 글쓴이가 느끼는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는 곧 글쓴이가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④ ‘임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외적 고요를 드러내는 데, 글쓴이는 이에 당호를 더함으로써 내적 고요까지 추구하려 하고 있다.

112

작품 간 비교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가)의 화자는 광한전에서 홀로 하계로 내려와, 함께 지내던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다)의 글쓴이는 형제들과 함께 선친을 모시고 학문과 예술을 담론했던 때를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가)와 (다) 모두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가)의 ‘올 저귀 비슨 머리 헛틀언’에 외양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지만 (다)에서는 외양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와 (다) 모두 새로운 것을 중시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다.

④ (가)에서 인생의 유한함이 언급되기는 하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한 (다)에서 인간사의 변화와 그로 인한 슬픔이 드러나기는 하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극복 의지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⑤ (다)의 글쓴이는 장흥방 길갓집에 살던 때의 마음가짐을 떠올리며 그 뜻을 잊지 않으려 하고 있으므로,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113

작품의 맥락 이해

정답 ③

정답 해설 (다)의 글쓴이는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마땅히 임원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 옛 이름의 편액을 걸어 옛집에서 지냈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옛집에서 다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지냈던 뜻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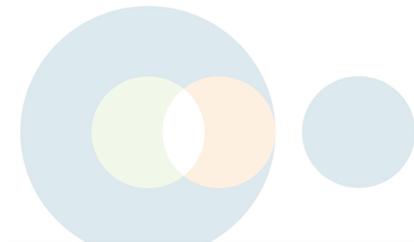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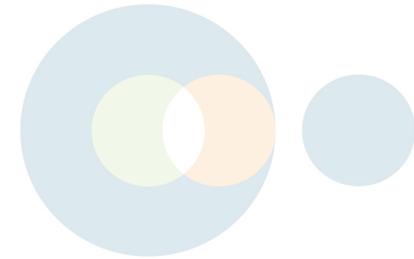
오답 피하기 ① ‘초당이 동쪽으로 치우쳐 햇볕을 받았기에 여름이면 너무 더웠다. 그래서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靜勝熱]’는 말을 당호로 정해 문설주에 편액을 해 걸어 두고 위안을 삼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내가 여기에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하던 때였다. 선친께서 승명전에 봉직하실 때라, 퇴근하신 밤이면 우리 형제들이 모시고 앉아 학문과 예술을 담론

하고 옛일을 기록하거나, 시를 읽거나 거문고를 들었으니 유중영의 옛일과 비슷하였다. 그 즐거움을 잊을 수는 없건마는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그새 주인이 바뀐 지 여러 번이지만 집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에서 옛집의 외양이 변함없음을,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마땅히 임원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에서 변해 버린 인간사로 인해 새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집 역시 그릇과 같이 무언가를 담는 부류이긴 하나, 사람은 집이 아니면 몸을 붙여 머물 데가 없고 집보다 더 거처를 많이 하는 것은 없으므로,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게 가깝다 하겠다. 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를 통해 알 수 있다.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수능특강을 공부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지문·자료·문항 분석력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적용 학습 28

본문 121~123쪽

가 주제봉, 「오류가」

해제 | (가)는 주제봉이 황해도 관찰사로 재직할 때 오류이라는 유교적 가치관을 백성들에게 계도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이 작품에는 가부장적인 가정 질서와 국가 질서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서사인 <제수>에서 오류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밝힌 후 나머지 각 수에서 유교적 덕목에 해당하는 가치들을 하나씩 노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관념적인 주제를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인간의 일상적 삶을 통해 표현한 점, 적절한 비유를 사용한 점, 순우리말을 자연스럽게 구사한 점 등이 돋보인다.

주제 | 인간이 지켜야 할 오류의 도리 강조

- 구성** | 제1수: 삼강오륜을 배워야 하는 이유
 제2수: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
 제3수: 임금에 대한 신하의 도리
 제4수: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
 제5수: 형제간에 지켜야 할 도리
 제6수: 연장자에 대한 연하자의 도리

나 이곡, 「차마설」

▶ 수록 「낙차설」의 유사 작품

해제 | (나)는 말을 빌려 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소유에 대한 보편적인 깨달음을 제시하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세상의 부귀와 권세도 본래부터 소유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빌린 것임을 제시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를 망각하고 마치 자기 소유인 양 생각하고 반성할 줄 모른다고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지적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외물에 따른 인간의 심리 변화와 그릇된 소유 관념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 소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

- 구성** | 전반부: 빌린 말이 좋은 말인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따른 글쓴이의 심리 변화
 후반부: 외물에 따른 인간의 심리 변화와 그릇된 소유 관념 **☆교재 수록 부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김창흡의 「낙차설」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표현상의 특징,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을 묻고 있습니다.

한문 수필의 양식인 '설'은 의리(義理)를 해석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세워 자세하게 서술하는 글로, 일반적으로 전반부의 사건과 후반부의 깨달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낙차설」은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에 출제된 이곡의 「차마설」과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설'의 형식적 특징과 구조를 이해하고, 사실과 글쓴이의 깨달음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유사한 다른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4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가)는 '이 말삼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형제가 불화하면 개돼지라 하리라', '같은데 불공하면 어디가 다르고' 등의 표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으며, '사람 사람마다 이 말삼 드러사라', '한 마암에 두 뜻 업시 속이지나 마음사이다' 같은 표현을 통해 오류를 지키며 바람직하게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는 세상의 부귀와 권세도 본래부터 소유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빌린 것임에 주목하면서 그릇된 소유 관념을 경계하고 소유욕에 얽매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가)와 (나)는 모두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계와 권고의 의도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와 (나)에 '어와', '아' 등과 같은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가)와 (나)에 바람직한 삶에 대한 가치관이 드러나 있지만 상반된 세계관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와 (나)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의 행동이나 생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시선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는 현실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자세를 권고하는 작품으로, 이상향에 대한 의식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역설적 표현을 통한 진술 또한 찾아볼 수 없다.

115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나)는 말을 빌려 탄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얻은 소유에 대한 개인적 깨달음을 임금, 신하, 부모

와 자식, 부부, 주인과 비복 등과 관련한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로 일반화하여 소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경계하고 참되고 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는 <제2수>부터 <제6수>까지 관념적 덕목(유교의 오륜)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지켜야 할 도리를 제시한 것이지, 각각이 지닌 모순점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가)는 유교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지어진 작품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 삶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④ (나)에 욕망의 실현을 돕는 자연적 질서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에 자연물이 지닌 덕성을 부각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공지를 드러내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1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㉔

정답 해설 (가)의 <제4수>는 '반상을 들오되 눈썹에 마초이다(거안제미, 擧案齋眉)'를 통해 남편을 섬기는 아내의 도리를 노래하고 있으므로, 아내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정당화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4수>는 화자가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지, 지아비와 지어미의 문답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가)의 <제3수>는 여왕벌이나 여왕개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벌과 일개미의 생태로부터 주인(임금)에 대한 중(신하)의 도리라는, 윤리적 실천의 주체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유추하고 있다.

③ (가)의 <제5수>의 초장에서 아우가 '형님 자신 젓을 내 조처 먹나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젓'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시어로 볼 수 있다. <제5수>에서는 형님과 아우가 이를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④ (가)의 <제5수>의 '개돼지'는 오류를 지키며 실천하는 바람직한 사람과 대비되는 존재를 비유한 표현이다.

⑤ (가)의 <제6수>의 초장에서 '늪은이'는 부모에, 어

른은 '형'에 빗대어져 쓰이고 있다. 그리고 종장에서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마로리이다'라며 장유유서(長幼有序)의 도리를 정당화하고 있다. 즉 비유적 표현을 통해 사회 윤리가 가정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117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 ㉓

정답 해설 (나)에 인용된 맹자의 말은 그릇된 소유 관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글쓴이는 맹자의 말을 통해 오래도록 빌리고서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문제의식을 떠올리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나)에서 '나'는 '노둔하고 야윈 말'을 빌린 경우 전전공공하게 된다고 여기고 있으나, '노둔하고 야윈 말'로 인해 위험에 처한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나)에서 위험은 준마를 빌려 질주하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② (나)의 2문단의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를 통해 준마를 소유할 때 의기양양한 감정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나)의 글쓴이는 세상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대부분 빌린 것을 소유했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것이 미혹된 일이라 보고 있다.

④ (나)에서 '독부'는 빌린 권력을 돌려준(빼앗긴) 후의 임금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적용 학습 29

본문 124~125쪽

이강백, 「결혼」

▶ 수록 「알」의 유사 작품

| 해제 | 다양한 실험적 기법을 통해 현대인으로 하여금 소유의 본질은 무엇인지와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성찰하게 하는 작품이다. 특별한 무대 장치도 없고 필요한 소품을 관객으로부터 빌려 오다가 하면, 이야기책 속의 사건을 극 중 현실로 바꾸어 상황을 관객에게 설명하거나, 극 중 시간과 상연 시간을 일치시키는 등의 기법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작가는 공연에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혼」이라는 소재를 통해 이 세상에 처음부터 자신에게 소유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일시적으로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과, 누군가를 사랑해 결혼한다면 정해진 시간 동안 빌린 물건을 아끼는 것처럼 죽어서 이별할 때까지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주제 의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 주제 |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

| 전체 줄거리 | 한 사기꾼 남자가 외로움을 느껴 결혼을 하려고 한다. 남자는 너무 가난했기에 결혼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빌린 후 여자와 맞선을 본다. 남자는 맞선 본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빌린 물건들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여자에게 과시하며 자랑한다. 그런데 갑자기 하인이 나타나 남자가 빌린 물건을 대어 시간이 다 되었다며 하나씩 다시 빼앗아 가기 시작한다. 남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는 남자를 떠나려 하고, 남자는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며 진심을 다해 여자를 설득한다. **☆문제 수록 부분** 여자는 동정심을 느끼면서 남자를 믿게 되고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여 둘은 결혼하려 간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이강백의 「알」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작품의 내용 파악, 소재의 기능 파악,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을 묻고 있습니다.

이강백의 희곡에는 우의적인 기법으로 현실의 문제를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 많습니다. 「알」 또한 이러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런 점에서 「알」은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A·B형에 출제된 이강백의 「결혼」과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이강백의 희곡에 나타난 우의적인 기법을 이해하고, 그가 비판하고자 하는 현대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이강백의 다른 작품을 만나더라도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18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③

정답 해설 [A]는 남자의 실상을 알아차린 여자가 남자를 사기꾼이라고 하자 남자가 소유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철학적 사고를 여자에게 들려주는 내용이다. 여자가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가는 것은 그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음에 실망하여 보이는 행동이지 남자의 말을 거짓이라 생각하여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의 ‘책’은 남자가 빌린 것으로, 시간이 되자 하인이 강제로 회수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되돌려 주어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의 ‘회중시계’는 물건을 빌리기로 한 시간이 다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도 물건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남자는 벡타이를 빌렸었던 남성 관객을 증인으로 삼아 결혼 후에 여자를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⑤ ㉢은 ‘구두발’로 상징되는 하인의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남자를 동정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A] 앞부분의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라는 지시문과 연결되어 결국 여자가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11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이 글의 하인은 대사가 없는 인물로, 소통을 거부한 채 주어진 명령만 수행하는 인물이다. 남자와 하인만 있던 무대 공간에 여자가 등장함으로써 본격적인 사건이 진행되므로 여자의 등장이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의 전개 과정에서 남자와 하인 사이에 갈등 관계가 조성된 것은 맞지만, 그 갈등이 해소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남자의 첫 대사 중 ‘그래서 즉시 여성 잡지를 뒤져 사교란에 주소를 낸 여자에게 전보를 썼습니다.’를 통해 남자가 전보를 치는 행동이 현재의 무대 공간에서 인물의 대사를 통해 제시됨을 알 수 있다.

② 하인은 무대에 나타나서 물건을 빼앗고 그것을 가지고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하인의 행동은 물건을 빌린 시간을 의식해야 하는 남자의 초조감을 고조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의 긴장감도 유발한다.

③ <보기>에 '무대 위에서 보여 줄 수 없거나 보여 주지 않아도 되는 사건은 무대 밖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건을 빼앗아 사라지는 하인의 행동은 굳이 그 후의 상황까지 보여 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하인이 무대 공간을 벗어나 무대에서 보여 주지 않는 공간에 있다가 되돌아온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④ 남자가 관객들에게 물건을 빌리거나 말을 건네는 행동은 관객을 극의 진행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관객석과 무대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적용 학습 30

본문 126~128쪽

차별식, 「불모지」

▶ 수록 「불모지」의 동일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1957년 발표된 2막짜리 장막극으로, 전후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당대인들의 현실 인식을 사실주의적으로 형상화한 희곡이다. 최 노인 일가가 살고 있는 낡은 기와집이 극 중 공간으로 설정되어 주위의 최신식 고층 건물들과 대비를 이루는데, 이는 각각 최 노인이 고수하려고 하는 전근대적 가치와 급격한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리고 집을 지키고자 하는 최 노인과 집을 팔고 이사 가기를 바라는 자식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는데, 이는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는 구세대와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신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최 노인이 운영하던 전통 훈구 대여업이 몰락해 가는 상황과, 실업 상태에 놓여 있던 제대 군인 경수와 허영심에 차 영화배우를 꿈꾸던 경애가 결국 파멸하는 장면은, 작품이 발표된 당시의 어둡고 불안한 시대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 준다.

| 주제 | 전후 근대화에서 소외된 가족의 해체와 신규 가치관의 대립

| 전체 줄거리 | 최 노인 부부는 서울 도심에서 전통 훈구 대여업을 하며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주위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 주거 여건이 나빠지고 최 노인의 사업도 쇠퇴하자, 셋째 경운이 식자공으로 일하며 버는 수입에 의존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상황에 놓인다. 가족들은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집을 팔고 교외로 이사 갈 것을 최 노인에게 권하지만, 집에 애착을 가진 최 노인은 단호히 이를 거부한다. **☆문제수록**

부분&수록수록부분 한편 제대 군인인 장남 경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삶을 비판하고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강도질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신세가 되며, 배우를 꿈꾸던 장녀 경애 역시 사기를 당해 울분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두 자녀의 비극을 목도한 최 노인은 방성통곡한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차별식의 「불모지」를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을 묻고 있습니다.

「불모지」는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두 지문을 비교해 보면 장면은 다르지만 출제되는 요소는 거의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이 전달하려는 주제 의식을 중심으로 작품 상황에 대한 각 인물들의 심리와 태도를 중심으로 작품 내용을 이해하면 다른 장면이 출제되더라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BSi

EBSi

수능의 7대 합정

오답률 높은 대표 합정 7대 유형을
철저히 분석!
아쉽게 틀리는 문제없이 1등급까지

120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㉔

정답 해설 이 글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 서울 한복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중략' 바로 다음 부분의 경수의 대사 중 '여긴 종로 한복판입니다.'와 같은 말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서울 중심의 실제 지명을 노출함으로써, 최 노인이 자기 집 주변에 '멋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 막아서 햇볕을 가리는 상황을 개탄하며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역정을 내는 극 중 상황에 사실감이 더해지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언어유희란 말이나 글자를 소재로 놀이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말 잇기 놀이, 어려운 말 외우기, 새말 만들기,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말장난 같은 것이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인물 간의 긴장을 고조하기 위해 이러한 언어유희를 활용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집을 둘러싼 각 인물의 내면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장면의 전환을 통해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③ 경재가 제복을 차려입고 무대에 등장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복장을 통해 경재의 심리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④ 경재의 등장, '복덕방'의 퇴장, 최 노인의 퇴장과 등장 등에 대한 지시를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인물들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12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㉔

정답 해설 ㉔에서 어머니와 경운은 '예? 전세라고요?'라고 말하는 경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수와 마찬가지로 최 노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 줄로 알고 있었기에 놀라서 서로 쳐다보는 상황이다. 뒤에 나오는 '여보 그럼 집을 전세로 줘서 댈 하시게요?'라는 어머니의 대사,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집을 팔으실 줄만 알았어요.'라는 경운의 대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최 노인은 주변에 들어서게 된 높은 건

물들 때문에 '흔한 햇볕도 안 드는 집'이 되어 버린 집에서 '화초며 고추 모가 도무지 자라질 않는단' 사실을 개탄하고 있다. 그러면서 ㉑과 같이 '말세야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② 경재는 변화된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옛날 일만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향해 '웅변 연사의 흥을 내며' 장난스러운 훈계를 한다. 일반적인 대화에 사용하는 말투가 아니라 웅변을 하는 어조로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말에 자연스레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③ 아들인 경수의 무례한 말에 화가 난 '복덕방'이 흥정을 그만두고 나가자 최 노인은 '김 침지! 김 선생!'이라고 급히 부르며 따라 나간다. 그 앞의 대화에서 최 노인은 '복덕방'을 계속 '김 침지'라고 불렀다. 이때의 '침지'는 대체로 나이 많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그 김 침지가 기분이 상하여 흥정을 깨려 하자 그의 마음을 돌려 보고자, '침지' 대신에 그보다 좀 더 대우하고 존중하는 느낌을 주는 '선생'이라는 호칭으로 고쳐 부른 것이다.

⑤ 최 노인이 갑자기 화초밭을 짓밟기 시작하자 화들짝 놀란 어머니는 말리려고 황급히 뛰어내리느라 신발도 챙겨 신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㉔은 어머니의 다급한 심리가 행동을 통해 제시된 것이다.

12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㉔

정답 해설 ㉔는 집을 전세로 육 개월만 내놓겠다는 최 노인의 계획을 어머니가 못마땅해하며 한 말이 아니라 그 계획의 의도를 짐작도 못하여 하는 말이다. 그리고 ㉔로 인해 최 노인이 계획을 변경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밭을 고려해 가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경재의 말에 대해 최 노인은 ㉔와 같이 말한다. 이는 그가 예전과 달라진 지금의 각박한 세상을 말세라고 볼 만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그 말을 들은 경재는 옛날 일이 무슨 소용이냐며 오늘은 오늘이라고 말한 뒤, 웅변 연사의 흥내를 내면서, 역사는 설 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변화무쌍하다는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다소 익살스럽게 들릴 듯한 연설을 하는데, 이것은 아버지에게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복덕방’은 ㉠와 같이 말하는 경수의 태도가 노인인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느껴서 기분이 완전히 상하고 말았으며, 이는 전세 계약을 위한 흥정의 중 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③ 경수는 아버지 최 노인이 집을 팔려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 노인이 ㉡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음을 알게 되었다.

⑤ ㉢는 경우도 경수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최 노인이 집을 팔려 하는 줄 알았다는 말이다. 이를 들은 최 노인은 ‘흥! 너희들은 모두 한속이 되어서 어찌든지 내 일을 안 되게 하고 이 집을 날려 버릴 궁리들만 하고 있구나! 이 천하에 못된 것들!’이라며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23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 ㉤

정답 해설 최 노인은 좌우를 가로막은 건물들 탓에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작물들이 도무지 자라질 않는 상황에서도 화초밭을 정성껏 가꾸어 왔다. 그의 마지막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화초밭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정성을 들였다. 그러나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화초밭은 ‘불모지’가 될 지경이고 집을 전세 놓으려던 계획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답답함, 분노, 상실감과 좌절감 등을 느낀 최 노인은 화초밭을 마구 짓밟으며 ‘이 집안에서는 되는 거라곤 하나도 없어!’라고 외친다. 그러므로 화초밭은 최 노인이 자기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에 허망해하는 감정이 드러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앞부분의 경재가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밭을 넘어다보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화초밭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족들이 화초밭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② 화초밭을 짓밟는 행위가 어떤 면에선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그것은 울분

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집을 지키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두 인물의 상반된 행동’을 화초밭을 짓밟는 최 노인의 행동과 이를 말리는 어머니의 행동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화초밭’에서 두 사람이 갈등을 해소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최 노인은 현재의 고통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자책하고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가 화초밭을 짓밟는 것은 자책으로 인한 행위가 아니라 분노나 절망으로 인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실전보다 더 실전같이! 제대로 어렵게!

상위권 학생을 위한

고난도 특화 프리미엄 모의고사

적용 학습 31

본문 129~131쪽

윤홍길 원작, 윤삼육 각색, 「장마」 ▶ 수특 「장마」의 동일 작품

해제 | 이 작품은 윤홍길의 「장마」를 각색한 시나리오 작품으로, 어린 동만이 6·25 전쟁을 겪으며 집안에서 벌어지는 좌우 이념의 대립과 화해의 과정을 체험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으로 각각 국군과 빨치산으로 참전한 아들을 둔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갈등하게 된다. 하지만 할머니들이 공유하고 있는 민족 고유의 토속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이들의 갈등은 용서와 화해로 해소되기에 이른다.

주제 | 6·25 전쟁으로 인한 이념적 갈등과 민족적 참상의 극복

전체 줄거리 | 서울에 살던 외할머니는 6·25 전쟁으로 시집간 딸네 집으로 피난을 내려와 친할머니와 같이 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국군 소위인 외삼촌이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는다. 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놓고, 외할머니는 침묵하며 식음을 전폐한다. **★교재 수록 부분** 이튿날 장맛비를 보며 외할머니가 빨치산을 향해 저주를 퍼뼀다. 친할머니는 이를 빨치산으로 산속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향한 악담이라고 생각하여 노발대발하고, 두 할머니는 서로 반목하게 된다. 빨치산인 삼촌이 밤에 몰래 집에 다녀가고, '나'는 맥고모자를 쓴 형사의 유인에 그 사실을 털어놓는다. 그 일로 아버지가 잡혀가고, '나'는 친할머니에게 모진 소리를 듣는다. **★수특 수록 부분** 빨치산 소탕 작전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지만 친할머니만은 점쟁이의 말대로 아들의 생환을 굳게 믿으며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아들이 나타나리라고 예언된 날 아들 대신 상처 입은 구렁이 한 마리가 집안으로 들어와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외할머니는 졸도한 친할머니를 대신해 정성껏 구렁이를 달래 보낸다. 깨어난 친할머니는 외할머니와 화해하게 되고 얼마 후 숨을 거둔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윤홍길 원작/ 윤삼육 각색, 「장마」를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소재의 기능, 원작의 일부 각색, 재구성을 묻고 있습니다.

「장마」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소설 원작이 있는 작품의 경우 원작 소설을 극으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 장르가 인물의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작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극 장르의 어떤 형식적 장치를 통해 보여 주는가를 이해한다면 다른 장면이 출제되더라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24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이 글은 외할머니의 아들인 길준의 전사 소식을 접한 외할머니, 어머니, 할머니, 이모, 동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다.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한 집안의 모습이 그려지고 이를 통해 전쟁과 이데올로기 대립이 가져온 비극적 상황을 느낄 수 있다. #32에서 이모(길자)가 아버지에게 가져갈 점심 식사를 이고 나가자 동만은 이모를 따라 나온다. 이어서 #33에서 전쟁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동만이 이모(길자)에게 외삼촌이 죽은 이유를 묻고 있다. 이는 순진한 어린아이의 시각을 통해 어른들이 초래한 전쟁의 비극성을 반문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따라서 ③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외할머니가 #32에서 말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들(외삼촌)의 죽음에서 받은 충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친할머니의 첫 번째 대사에서(사부인(외할머니)을 염려하고 있으므로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은지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이다. ② 동만 모는 #31에서 자신의 어머니, 길자, 남편의 식사를 걱정하고 있다.

④ #31과 #32를 통해 이모는 형부(동만의 부)의 점심을 챙겨 주기 위하여 나간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30의 친할머니 두 번째 대사에서 동정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125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㉔에서 아들을 잃은 외할머니는 먼 산을 쳐다보며 넋을 놓고 있고, 동만의 행위를 간신히 알아차리고 있다. 그리고 동만의 이모는 동만 아버지의 점심을 이고 밖으로 나가고 있다. 따라서 ㉔이 소통 부재의 상황을 해소하는 공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핏빛 울음소리’와 눈물, 울음을 연상하게 하는 ㉔이 뒤섞이며 장면의 비극성을 고조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감상은 적절하다.

② ‘멀리 회색빛 응자를 자랑하’고 있다고 한 데서 ㉔은 동만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것으로, 원경으로 제

시되어 배경을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30에서 ㉠을 까는 것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 외할머니의 모습이 #32에서 동만으로 인해 다시 버릇처럼 ㉠을 까는 외할머니의 모습으로 연결되어 시간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되는 외할머니의 상실감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④ ㉠을 매개로 외할머니, 어머니, 동만, 길자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12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보기>는 시나리오의 매개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매개 요소란 각 장면을 이어 주는 형식적 연결 고리로 공통성, 대립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31과 #32에서 이모가 밥 소쿠리를 이고 나가자 동만이 따라 나오으로써 자연스럽게 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이모의 성격은 계속 같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모(길자)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끝없이 쏟아지는 장맛비는 긴장을, 보슬비는 상대적으로 이완을 나타내어 대립적인 매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② 어둠과 밝음은 그 성격 자체가 대립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의 전환을 통해 시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③ 앉아 있는 외할머니나 누워 있는 동만 모의 모습은 서로 대비되지만 모두 상실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④ 두 장면에서 식사를 권유하는 대사를 반복하는 것은 공통성의 매개 요소를 통해 장면 전환을 매끄럽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적용 학습 32

본문 132~133쪽

김영현, 「대장금」

▶ 수록 「뿌리 깊은 나무」의 유사 작품

| 해제 | 이 글은 조선 역사상 최초로 임금의 여 주치의로 활약했던 의녀 대장금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 「대장금」의 극본이다. 수라간에서 요리를 하던 대장금은 궁궐에서 쫓겨났다가 의녀가 되어 돌아와 임함과 인연을 맺게 되고 「대장금」이라는 칭호도 받게 된다. 장금의 부모가 만나는 내용에서부터 드라마가 시작되어 장금의 탄생, 수난, 업적 등으로 그 내용이 전개된다.

| 주제 | 음식에 대한 장금의 신념으로 인한 위기와 극복 과정

| 전체 줄거리 | 드라마의 전반부에서는 조선 궁궐의 수라간을 중심으로 절대 미각과 착한 성품을 가진 장금이 수라 상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주로 보여 준다. 장금은 어머니의 친구이자 스승인 한 상궁을 만나 음식에 대한 철학을 배우며 실력을 쌓아 가지만, 최고 상궁 자리를 놓고 한 상궁 측과 최 상궁 측이 경합을 벌이면서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교재 수록 부분** 결국 최 상궁의 모함으로 한 상궁은 죽고 장금은 제주도로 귀양을 간다. 제주도에서 의녀 장덕을 만난 장금은 의술을 배워 여러 가지 공을 세우고 결국 한양에 올라가 의녀로서 다시 궁에 입궐하게 된다. 스승 신익필을 통해서 의학에 대한 신념을 가지게 된 장금은 중전과 대비의 병을 치료하면서 더욱 신망을 얻게 된다. 중종의 병을 치료하면서 중종의 신임을 받게 된 장금은 결국 최 상궁 측을 단죄하고 어의의 자리에 올라 대장금이 된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김영현·박상연의 「뿌리 깊은 나무」를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극적 형상화 방식의 이해,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촬영 편집의 방법과 효과 추리를 묻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사극 드라마 대본으로 2012학년도 6월 모의 평가에 출제된 김영현의 「대장금」을 연계하여 읽어 볼 수 있습니다. 극 양식으로서 드라마 대본의 형상화 방식을 이해하고, 사극에서의 인물들 간의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한다면 유사한 장면이나 작품을 이해하고 풀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7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S#29~S#30」에서 최 상궁이 보쌈을 당해 끌려온 박 나인의 죄를 추궁하고 있고, 이때 기미 상궁과

나인들 예닐곱 명, 최 나인 등이 최 상공을 보좌하고 있다. 'S#50'에서의 한 나인의 발언으로 보아 박 나인은 '남자와 통정'했다는 죄목으로 사약을 받게 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최 상공의 수하인 한 나인은 박 나인의 목숨을 염려하며 애태우고 있고, 천수는 천수대로 박 나인으로 하여금 토약질을 하게 하여 목숨을 살리려 애쓰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박 나인을 중심으로 할 때, 최 상공과 박 나인은 대립적 관계로 볼 수 있고, 박 나인과 한 나인, 그리고 천수는 우호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최 상공, 박 나인, 한 나인, 천수 등의 대사에서는 주로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암시적이고 비유적인 대사들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S#48'과 'S#50'에 회상 장면이 나온다.

③, ⑤ 이 글에 제시된 장면들의 시간적 배경은 밤이다. 그런데 'S#29', 'S#30'은 죄인을 엄하게 추궁하는 긴장감이 감도는 장면이고, 'S#47'은 사약을 받은 박 나인이 토약질을 하는 장면이며, 'S#48~S#51' 장면은 매우 침통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므로 고즈넉한 분위기나 갈등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128

소재의 가능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S#50'에서 한 나인은 '네가 남자와 통정했다는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여 박 나인의 결백을 믿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그것은 심정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앞부분의 '나도 일의 전모는 알 수 없으나'라는 내용으로 보아 구체적인 증거물에 근거한 생각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S#48'의 '네가 이걸로 살아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구나. 살았느냐, 명이야…….', 'S#49'의 '혹, 죽었거든 나를 용서치 말며 혹, 살았거든 내 말을 들어 다오.'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② 'S#50'의 한 나인의 '목소리'를 참조하면 박 나인이 최 상공에게 추궁당하는 죄목은 '남자와 통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S#48'의 '부자탕은 감두탕이나 녹두로 해독할 수

있다는 네 말이 떠올랐다.'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다.

⑤ 'S#30'에서 몹시 불안한 몸짓으로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술병 안에 무언가를 넣는' 한 나인의 태도로 미루어 알 수 있는데, 'S#48'의 내용으로 보아 그 '무언가'는 박 나인이 받아먹은 부자탕을 '해독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2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보기>의 촬영 기법은 '인물의 권위나 위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물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 찍는 촬영 기법이다. 'S#30'은 최고 상공이 바닥에 꿰려져 있는 박 나인을 내려다보며 추상같이 죄를 추궁하는 장면이므로, 박 나인의 시각에 맞추어 최고 상공의 모습을 올려 찍으면 그 위세가 잘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오답 피하기 ㉠, ㉡, ㉢, ㉣의 인물들은 그 권위나 위세를 내세울 상황이나 처지가 아니다.

적용 학습 33

본문 134~135쪽

이상, 「권태」

▶ 수록 「산촌 여정의 유사 작품

해제 | 이 작품은 1936년 글쓰기가 일제 강점하의 답답한 조선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갔던 일본 동경에서 쓴 작품이다. 그곳에서 글쓰이는 식민지인으로서 설움을 당하였고, 현실과 자신에 대해 무력감을 느꼈다. 이 글의 배경이 되는 것은 평안도 성천에서의 체험인데, 글쓰기가 일본에서 이를 떠올린 것은 일본에서의 자기 처지가 성천에서의 자기 처지와 유사했기 때문이다. 도시인으로 살았던 글쓰이에게 시골 성천에서의 삶과 식민지인으로서 살고 있던 동경에서의 삶은 모두 무기력하고 권

태로웠던 것이다. 전체 7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자신과 농민의 권태로운 삶, 풍경과 자연의 한없는 권태를 독창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어, 수필이 교양이나 취미에 그치지 않고 자기 성찰의 진지한 문학 양식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주제 | 단조로운 농촌에서 느끼는 극도의 권태

- 구성 | 제1장: 단조로운 일상과 변함없는 자연에서 느끼는 권태
- 제2장: 한없는 초록색 자연과 단순 노동을 일삼는 농민을 보며 권태를 느끼는 자신이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 제3장: 변화가 없는 마을에 짓지 않는 개를 보며 권태를 느낌.
 - 제4장: 개의 교미와 세수를 따라 하는 주인집 아들의 행위에서 권태를 떠올림.
 - 제5장: 되새김질하는 소가 지상 최대의 권태자라고 생각한다. **※제5주독부분**
 - 제6장: 권태로운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봄.
 - 제7장: 멍석 위에서 자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의 생활을 '극권태'라고 여김.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이상의 「산촌 여정」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작품의 내용 파악, 서술상의 특징 파악,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을 묻고 있습니다.

이상의 「산촌 여정」은 작가가 평안남도 시골 마을인 성천에서 머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입니다. 해당 공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인 이상의 「권태」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B형에 출제되었습니다. 산촌의 풍경을 도시인의 감각과 정서로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관련된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130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주인공 '나'는 비유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관련된 상념을 표현하고 있다. 즉 '나'는 자신이 느끼는 '사소한 고독'을 '세균'에 비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관련한 자신의 상념인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내일'을 마치 '흉명한 형리'에 비유함으로써 '내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이 글에는 우화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우화를 통해 글쓴이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③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④ 과거의 삶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과거의 삶과 대비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⑤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타인의 생각과 비교하여 글쓴이가 삶에서 깨달은 진리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131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보기>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글쓴이의 탐색 대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은 글쓴이가 탐색한 대상이며, 글쓴이는 ㉠~㉢에 대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특히 글쓴이는 ㉠을 통해 자신이 권태에 빠진 고독한 존재임을, ㉡을 통해서 열정 없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고는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다. 즉 '소'를 '지상 최대의 권태자'라 하며, 자신의 '반추'가 가능할는지 불가능할지를 몰래 생각하고 있다. 또한 '불나비'를 '정열의 생물'로 바라보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그저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라며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풀밭'은 글쓴이가 '소'를 바라보며 자신의 고독감을 확인하고 있는 공간으로, 충족감을 주는 안식처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좁은 방'은 자신의 나태한 삶을 피해 은신한 도피처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글쓴이는 '좁은 방'의 불빛에 달려들어 불을 끈 '불나비'를 통해 권태에서 벗어나려는 의욕마저 갖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② '풀밭'은 글쓴이가 무기력한 삶의 원인을 찾아 고

뇌하는 공간이 아니며, 그 원인을 '소'에서 찾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지도 않다.

③ 글쓴이는 '좁은 방'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불나비'에 주목하고 있지만, 자신의 현실 대응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지는 않는다.

⑤ 글쓴이는 의미 없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이 '소', '불나비'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소'를 통해서 '식욕의 즐거움조치를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라고 하며, 자신의 '사색의 반추'의 가능 여부를 생각하게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대조적으로 '불나비'를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자 '정열의 생물'로 바라보고 있다.



적용 학습 34

본문 136~137쪽

가 신영복, 「매직펜과 붓」

▶ 수록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 줍니다」의 유사 작품

해제 | 이 글은 편지글의 형식을 통해 동서양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글쓴이는 붓과 매직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들의 특성을 대조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글쓴이는 매직을 실용과 편의의 서양적 산물인 '인스턴트 시대의 총아'로, 붓을 동양 정신을 담은 '매운 지조의 선비'로 비유함으로써 붓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 동양 정신의 상징으로서 붓을 선호하는 이유

- 구성** | 1문단: 인스턴트 시대의 총아라 할 만한 매직펜의 특성
 • 2문단: 매운 지조의 선비 같은 붓의 특성
 • 3문단: 동·서양적 사고의 산물인 붓과 매직펜
 • 4문단: 절충보다는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키는 것이 타당함.
 • 5문단: 붓을 더 선호함. **☆교재수록부분**

나 이어령, 「폭포와 분수」

해제 | 이 글은 분수가 지닌 특성을 바탕으로 서양의 역사와 문화가 지닌 힘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글쓴이는 분수의 특성을 인위적이고 자연과 본성을 거스르는 힘으로 보고, 그것이 곧 서양인의 사고와 가치관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글쓴이는 자연 그대로의 힘을 따르는 폭포를 동양인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놓고, 이를 분수와 대조하고 있다.

주제 | 인위적이고 자연을 거스르는 힘인 분수를 통해 본 서양인의 사고와 가치관

- 구성** | 1문단: 폭포와는 달리 인위적이며 자연을 거스르는 속성을 지닌 분수
 • 2문단: 서양인의 사고와 가치관을 보여 주는 분수의 힘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신영복의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 줍니다」를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서술상의 특징 파악, 작품의 내용 파악,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을 묻고 있습니다.

신영복의 작품은 사물과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인생에 대한 사색과 성찰을 이끌어 냅니다. 이런 점에서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이어령의 「폭포와 분수」와 함께 복합 지문으로 출제된 신영복의 「매직펜과 붓」과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편지글의 형식을 통해 독자와 밀착된 정서를 공유한다는 점과, 앞서 언급했듯이 사물과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삶에 대한 사색과 성찰을 보여 준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신영복의 다른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3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가)와 (나)가 대상을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가)는 마지막 문단에서 붓을 선호한다고 자신의 선호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나)는 자신의 선호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② (가)는 매직펜과 붓을 사용해 본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는 폭포와 분수의 특성을 제시할 뿐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가)는 '펜처럼', '마치 피아노의 건반을 아무나 눌러도 정해진 음이 울리듯', '문명의 비명 같은', '어머

님의 약손같이' 등의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화산이 불을 뿜듯이', '로켓이 치솟아오르듯이',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듯이' 등의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는 매직펜과 붓을, (나)는 폭포와 분수를 대비하여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133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대지의 중력'과 '물의 표정'은 모두 자연 그대로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숙련'은 붓과 관련된 속성이고, '자극성의 냄새'는 매직펜과 관련된 속성이다.

② '자극성의 냄새'는 매직펜의 속성으로 서양적 사고의 산물을 뜻하고, '대지의 중력'은 자연 그대로의 힘으로 동양적 사고를 상징한다.

④ '물의 표정'은 자연 그대로의 힘을, '창조의 힘'은 인위적인 힘을 의미한다.

⑤ '숙련'은 동양 정신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창조의 힘'은 서양적 사고의 의미를 갖는다.

134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㉓는 특정인이 아닌 막연한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를 지닌 말로, 이와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은 특정인을 가리키지 않고 막연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⑤이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④ 특정할 수 있으나 잘 모르는 대상을 의미한다.

135

글쓴이의 관점, 주제 의식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가)의 글쓴이는 절충이나 종합은 은폐와 호도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하면서,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과 가장 가까운 관점은 중간을 부정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미워할 때 미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②의 관점이다.

오답 피하기 ① 중간 노선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가)의 관점과 상반된다.

③ 인간은 모두 주관적이라는 관점이므로 (가)의 관점과 상이하다.

④ 편견과 인습에 대한 논의는 (가)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⑤ 인간의 위대함이 두 극단에 도달하여 중간을 채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관점은 (가)와 논의의 관점이 다르다.

적용 학습 35

본문 138~140쪽

가 정철, 「관동별곡」

| 해제 | 정철이 45세가 되던 선조 13년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유람한 내용을 노래한 기행 가사이다. '서사-본사-결사'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관찰사로서 선정에 대한 포부와 연군지정(戀君之情)과 같은 위정자로서 사회적 자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동시에 자연에 동화되어 신선이 되고픈 개인적 자아의 욕망, 그리고 두 자아 사이의 갈등과 해소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표현의 측면에서는 역동적이면서 생동감 넘치는 풍경 묘사와 아름다운 순우리말 표현, 속도감 있는 내용 전개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 주제 | 관동 지방의 절경과 풍류

| 구성 | 서사: 강원도 관찰사 부임과 관내 순찰

- 본사 1: 내금강 유람
- 본사 2: 관동 팔경과 동해안 유람
- 결사: 동해에서의 달맞이와 풍류

나 최익현, 「유한라산기」

▶ 수록 「열하기유」의 유사 작품

해제 | 조선 말기에 최익현(崔益鉉)이 지은 한라산 기행문으로 『면암집』에 수록되어 있다. 한라산을 등정하게 된 경위를 시작으로 하여 등반 과정, 백록담의 풍경, 정상에서의 감회, 한라산의 주변 풍경 등에 대해 서술한 후 한라산의 형세와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글을 쓰게 된 동기 등에 대해서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사실적인 묘사와 주관적인 감정의 표출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이다.

주제 | 한라산의 수려한 풍경과 진면목

전체 줄거리 | 탐라로 귀양을 가게 된 나는 섬사람들에게 한라산이 범상한 사람들이 용이하게 구경할 수 없는 곳이라는 말을 듣고 매우 놀라고, 귀양에서 풀려난 후에 한라산을 탐방하게 된다. 검은 안개로 산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마음을 굳게 먹고 수백 보를 전진하여 백록담에 다다른다. 최고봉에서 바라본 풍경을 말하고, 「맹자」의 말에 담긴 역량을 상상하며, 소동파의 시구가 적벽에서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어서,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 백록담가로 되돌아와서 식사를 한다. **☆고제 수록 부분** 한라산은 맑고도 높아서 기온도 많이 차다. 따라서 의지와 기개가 견고하고 근골이 강한 자가 아니면 올라갈 수가 없다. 현인들의 웅장한 문장으로도 진면목이 발휘된 적이 없다. 산의 본연의 모습이 조금도 소개되지 않아서, 나는 이 말을 써서 구경을 가고 싶는데도 못 가는 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서호수의 「열하기유」에 청나라로 사행 간 사행자들의 개성적인 인식과 북경에 위치한 '원명원'에 대한 설명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열하기유」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기행 기사인 홍순학의 「연행기」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열하기유」는 기행 기사로, 사행 기간 동안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행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행문으로는 최익현의 「유한라산기」가 있습니다. 「유한라산기」는 한라산의 수려한 풍경과 진면목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으로, 정철의 「관동별곡」과 묶여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에 출제되었던 작품입니다. 내용의 이해를 묻는 문항을 비롯하여, 산수 유람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참고하여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기행을 하는 동안의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에 주목하여 이 작품에서 글쓰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을 것입니다.

136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는 모두 여정에 해당한다. ㉔에서 화자는 자신이 지나온 곳을 간단히 나열하는 한편 서술어는 「너머 디어」로 최소화하여 여정을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㉑은 「노국이 좁은 것도 우리는 모르는 데」라는 의미로, 성현(공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넙거나 넓은 천하」를 작다고 했던 공자의 기개와 높은 경지를 떠올리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

② ㉒의 「더 디워」는 천하를 작다고 했던 성현(공자)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㉒에는 화자가 해아릴 수 없는, 성현의 높은 기개와 정신적인 경지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③ ㉓의 「삼일우」는 「음애에 이온 풀」을 살려 낼 수 있는 소재로서 죽어 가는 대상에게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음애에 이온 풀」이 백성(민초)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㉓은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화자의 정치적인 소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⑤ ㉔의 「남여」는 「의자와 비슷하고 뚜껑이 없는 작은 가마」를 의미하고 「완보」는 「느린 걸음」을 뜻하므로, 이동하는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37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일행이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 백록담가로 내려온 내용과 하인들이 식사 준비를 완료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등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행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의 「검은 안개가 몰려오더니」와 「섬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등의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주위가 1리 남짓하고 ~ 얼음이었다」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은연히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 「참으로 천부의 성곽이었다」 등에서 작가의 소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의 '그러나 따라오는 자는 겨우 세 명뿐이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마지막 문단의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 백록담가로 되돌아오니'와 같은 간략한 서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8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B]에서는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좌로는 부상을 돌아보고', '남으로는 소주와 항주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등의 표현을 통해 자연물인 '최고봉'을 의인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기>에서는 '노호 고래', '은산을 깃거 내어 육합의 느리는 듯', '오월 장천의 백설' 등을 통해 '망양정'에서 바라본 물결과 파도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A]와 <보기> 모두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은하수'는 '은하'를 강에 비유하여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A]에서는 폭포를 '은하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지상의 자연물을 천문 현상에 비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자연물인 물결과 파도의 모습을 '고래', '은산', '백설' 등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천문 현상을 지상의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B]에서는 '굽어보며', '돌아보고', '가리키고', '끌어당기고 있었다.' 등의 표현을 통해 최고봉을 인격체처럼 표현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장관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냉혹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는 대상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139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보기>에 따르면 '와유'는 글을 통해 자연을 감상하는 간접 유람에 해당하고, '원유'는 실제 여행을 통해 자연을 즐기는 직접 유람에 해당한다. (가)의 '이적선이 이제 이서 고타 의논하게 되면 / 여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허려니'에서 화자는 '여산'을 직접 유람한 것이 아니라 이적선의 글을 통해 와유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을 비교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화자는 '화룡소'를 직접 보고 느낀 감회를 서술하였으므로 (가)를 읽는 다른 이들에게 와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나)의 글쓴이는 2문단에서 직접 백록담과 주변을 관찰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원유를 통해 자연의 형세를 묘사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나)의 글쓴이는 4문단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최고봉의 모습을 서술한 후, 5문단에서 『맹자』의 "바다를 본 자에게는 다른 물이 물로 보이지 않으며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라는 말에 담긴 성현의 역량을 이로써 가치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원유가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나)의 글쓴이는 5문단에서 '또 소동파에게 당시에 이 산을 ~ 라는 시구가 적벽에서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와유했던 적벽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확인한 한라산의 모습'을 비교하여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용 학습 36

본문 141~143쪽

김만중, 「사씨남정기」

▶ 수록 「사씨남정기」의 통일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시대 가부장적 사회를 배경으로 선인인 사 씨와 악인인 교 씨를 등장시켜 처첩 간의 갈등을 보여 줌으로써, 여성이 지녀야 할 올바른 행실뿐만 아니라 악행에 대한 처벌이 필연적임을 강조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 또한 유 한림의 모습을 통해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에는 무능한 가정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조선 사회에 대한 은근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 글에는 교 씨의 참소로 폐출된 사 씨의 모습과 교 씨와 동청의 모의로 유배당한 유 한림의 행적이 제시되어 있다.

| 주제 | 사 씨의 덕행에 대한 칭송과 악행을 저지른 교 씨에 대한 징벌

| 전체 줄거리 | 유연수는 중국 명나라 세종 때 금릉 순천부에서 유현의 아들로 태어나 15세에 장원 급제하고 한림학사를 제수받는다. 유 한림은 덕성과 재학을 겸비한 사 씨와 결혼하나 늦도록 후사가 없어 교 씨를 첩으로 맞이들인다. 교 씨는 천성이 간악한 인물로 아들을 낳자 정실이 되기 위해 사 씨를 참소한다. 결국 유 한림은 사 씨를 폐출하고 교 씨를 정실로 삼는다.

★수특수록부분 집안에서 쫓겨난 사 씨는 술한 시련을 겪고 산사에 거한다. **★교제수록부분** 한편 교 씨는 문객 동청과 모의하여 유 한림을 참소하여 유배시킨다. 이후 유 한림에 대한 혐의가 풀리자, 조정에서는 충신을 참소한 동청을 처형한다. 유 한림은 사망으로 사 씨의 행방을 찾다가 소식을 듣고 온 사 씨와 해후한다. 유 한림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간악한 교 씨를 처형하고 사 씨를 다시 정실로 맞이들인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교 씨의 계략에 의해 쫓겨난 사 씨의 처지에 주목하여 김만중의 「사씨남정기」를 작자 미상의 사설 시조인 「나무도 바이 돌도 없는 산에～」와 함께 수록하여 두 작품의 표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소재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처첩 갈등을 본격적으로 다룬 가정 소설인 「사씨남정기」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출제되었습니다. 작품의 내용 파악 여부를 묻는 문항을 비롯하여 소재의 기능 파악, ‘꿈’의 기능에 대한 이해,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감상의 적절성 평가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사씨남정기」의 경우 작품 분량이 긴 편이기 때문에 출제된 장면에 나타난 인물 간의 갈등 구조나 소재 및 공간의 기능 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이해한다면 어떤 장면이 출제되더라도 어렵지 않게 문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0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라는 사 씨의 질문에 유모와 시비가 “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모는 황릉묘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모가 황릉묘에 가서 사 씨를 깨울 방도를 찾아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남해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요.’를 통해 사 씨와 남해 도인이 인연이 있음을,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를 통해 사 씨를 바다 끝으로 데려다 줄 조력자가 예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꿈결에 관음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를 통해, 여승이 관음보살의 명을 받아 사 씨를 도우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사 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오.”를 통해, 유 한림이 동청을 꺼렸던 사 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를 통해, 유 한림을 낫게 한 샘물이 마을 사람들의 병을 없애는 방도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1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배’는 사 씨를 바다 끝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여승이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사 씨가 배를 사전에 준비했다는 것과 배가 사 씨와 두 왕비의 재회를 돕는 매개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와 시비가 부인이 깨신다 하고 부르거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렴을 내리는 소리’는 그림 속 왕비를 만나

는 꿈에서 깨도록 하는, 즉 사 씨를 비현실 세계에서 유모와 시비가 있는 현실 세계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 ‘분명히 저 길로 갔다 왔으니 어찌 꿈이라 하리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나무 수풀’은 사 씨가 왕비를 만나러 가는 상황과 유모와 시비가 있는 곳으로 나오는 상황, 즉 비현실적 상황과 현실 상황을 중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이에 사 씨가 향을 피우고 절하며 말했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초상화’는 사 씨가 꿈속에서 만난 인물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역할과, 초월적 존재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꿈에 나타났음을 믿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⑤ ‘병을 뜯 가운데 놓고 사라졌다. 한림이 놀라 일어나니 꿈이었다.’와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병’은 꿈에서 본 물건으로서, ‘병’이 있던 자리에서 솟은 샘물은 유 한림의 병을 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42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①

정답 해설 ①에는 곤경에 처한 사 씨에게 조력자가 나타날 것임을 알려 주는 왕비가, ②에는 유배지에서 죽을 지경에 이른 유 한림을 낫게 해 줄 ‘병’을 전달하는 노파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①과 ②에 꿈을 꾸 주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출현한다는 진술은 적절한 이해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② ①의 경우 꿈에 등장한 인물이 순임금의 부인인 아황과 여영임을 밝히고 있지만, ②의 경우 흰 옷을 입은 노파라고만 말하고 있어 해당 인물을 역사적 인물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유 한림이 노파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③ ①에서 왕비는 사 씨에게 ‘때가 멀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②에서는 유 한림을 낫게 할 수 있는 ‘병’을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꿈을 꾸 주체가 처한 곤경이 심화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①에서 사 씨는 역사 속 인물을 만나 도움을 받고

있고, ②의 경우 유 한림은 어느 노파를 만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①과 ②의 경우, 사 씨와 유 한림이 아황과 여영 또는 흰 옷 입은 노파를 만난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글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렵다.

⑤ ①과 ②에는 꿈을 꾸 주체가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 씨와 유 한림의 출생 내력을 언급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143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 ⑤

정답 해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행주 사람들이 유 한림과 관련한 신기한 사건을 목격하고 그 물을 통해 치유의 효과를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주 사람들이 샘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유 한림은 유배지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노파를 만나 병이 낫는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뀌는 경우’로 볼 수 있다.

② 유 한림이 외로움과 고초를 겪게 되면서 예전의 총명함이 돌아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장면을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한 것은 적절한 감상에 해당한다.

③ 사 씨가 꿈에서 역사 속 인물을 만나고, 관음보살의 명령을 받은 여승을 만나는 장면을 <보기>에서 설명한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양상으로 이해한 것은 적절한 감상에 해당한다.

④ 유 한림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과 관련된 곳을 사람들이 학사정이라고 지칭하고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장면을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평한’ 것과 관련지어 이해한 것은 적절한 감상에 해당한다.

가 윤선도, 「견회요」

| 해제 | 이 작품은 작가인 윤선도가 광해군에게 권신인 이이첨의 횡포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벌을 받아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총 5수의 연시조이다. 이 작품에는 나라와 임금을 근심하고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절절한 심정이 드러나 있다. 제목인 '견회요'는 '시름을 달래는 노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당대의 권력자를 탄핵하던 젊은 윤선도의 강직한 성격과 신념,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주제 |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

- | 구성 |**
- 제1수: 신념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소신과 다짐
 - 제2수: 임금을 위하는 진실된 마음과 결백의 호소
 - 제3수: 변함없이 임금을 따르는 충성심
 - 제4수: 유배지에서 느끼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
 - 제5수: 충과 효의 동일시를 통해 인식한 연군의 의지

나 홍성민, 「마환우설」

▶ 수록 「의산문답」의 유사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작가인 홍성민이 1591년 정철의 당인으로 몰려 함경도 부령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고전 산문이다. 작가가 유배지에 도착한 후 가진 것이 없어 굶을 처지에 놓이자 유배지의 주인이 말을 팔아 소를 사서 남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곡식을 받아 굶주림을 면하라는 조언을 했다. 그러자 작가는 먼 길을 동행하며 함께 고생한 말을 차마 팔 수 없다고 대답한다. 이에 누군가가 작가를 우월하다고 탓하며 천지 만물은 원래 정해진 주인이 없으니 말에게 신의를 지키는 데 연연하지 말고 굶주림을 면하라고 깨우쳤다. 작가는 이 말에 수긍했으나 유배지에서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부끄러움과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 제목인 '마환우설'의 '마환우'는 '말을 소로 바꾸다'라는 의미이다.

| 주제 |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모색과 고뇌

| 전체 줄거리 | 신묘년 가을 북쪽으로 유배를 가게 된 '나'는 먹을 것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곳에 사는 어떤 이가 말을 팔아 소를 살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나'는 자신이 유배지에 오는 데 도움을 준 말을 파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며 거부한다. 그러자 어떤 이는 만물은 각기 주인이 있지만 그 주인은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며 '나'의 생각이 고루한 것이라 말한다. '나'는 살기 위해 말을 팔아 소를 사는 것이 맞다는 어떤 이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살기 위해 동물들에게 누를 끼치는 등 보잘것없는 신세가 되어 버린 자신의 신세에 대해 한탄한다. **☆문제 수록 부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수필이 우리 일상 속의 수많은 인물과 경험 중에서 독자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경험과 인물들을 다룬다는 점에 주목하여 고전 수필인 홍대용의 「의산문답」을 현대 수필인 김용준의 「추사 글씨」와 함께 수록하여 두 작품에서 활용된 주제 전달 방식의 특징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의산문답」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 세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글쓰기와 마을 사람의 대화를 통해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모색과 고뇌를 다루고 있는 홍성민의 「마환우설」과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마환우설」은 2020학년도 3월 학력평가에 윤선도의 「견회요」와 묶여 출제되었습니다. 표현상의 공통점, 대상의 기능을 파악하는 문항, 사대부들의 유배 문학에 대한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각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항 등이 출제되었는데, 「마환우설」을 감상할 때에는 마을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글쓰기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 전환이 글쓰기의 행동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작품과 관련된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4

작품의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 ②

| 정답 해설 | (가)의 경우 '분별할 줄 이시랴', '내라 하여 모를쏨가' 등을 통해, (나)의 경우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필요가 있겠는가?', '무슨 해가 되겠는가?' 등을 통해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화자나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가)와 (나)에서 지향하는 공간의 이름 다음을 나타낸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③ (가)와 (나)에 현실의 부정적 측면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와 (나)에 영탄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가치를 예찬하는 것은 아니다.

⑤ (가)와 (나)에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145

대상의 기능 파악

정답 ㉔

정답 해설 ㉓는 화자의 행동에 대해 임에게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말하는 대상이다. 즉 화자를 포함해 갈등 상황에 놓이도록 하는 존재이다. ㉔는 말에 대한 신의를 강조하는 글쓴이에게 말을 팔아 소로 바꾸어 생계를 유지하라고 충고하는 존재이다. ㉕의 충고로 인해 글쓴이는 ‘나는 그제야 퍼뜩 깨달았지만’에서 보듯이 인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㉓는 화자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㉔는 글쓴이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점에서 화자나 글쓴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상과는 관련이 없다.

② ㉓는 화자와 갈등 상황에 놓인 존재일 뿐 화자에게 삶의 허무함을 주지 않는다. ㉔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글쓴이에게 깨달음을 주는 존재로, 글쓴이에게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 주는 존재와는 관련이 없다.

③ ㉓는 화자와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화자가 호감을 지닌 대상이 아니며, ㉔는 글쓴이에게 삶의 깨달음을 준다는 점에서 글쓴이가 반감을 지닌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

④ ㉓는 화자의 행동에 대해 임금에게 언급하는 대상이지 화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존재는 아니다. ㉔는 말을 저버릴 수 없다는 글쓴이의 판단에 대해 우월하다고 비판하는 존재이다.

146

외적 증거를 통한 작품 감상

정답 ㉔

정답 해설 ㉓은 유배를 당한 후 말을 팔아 소를 사서 남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곡식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다. 이는 사대부인 자신이 마치 장사꾼과 같은 행동을 했다고 괴로워하는 것이지, 글쓴이의 신분이 사대부에서 상인으로 강등되어 바뀐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㉓은 길게 뻗은 산의 속성과 멀리 흐르는 물의 속성을 통해 화자가 그리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유배지에 격리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㉔의 ‘외기리기’는 유배지에서 외롭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③ ㉔은 충과 효가 합일되는 부분으로, 임금에 대한 충성과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결국은 하나라는 것을 확대하여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㉔은 북쪽으로 유배를 온 글쓴이가 주머니에 남은 것이 없어 결국 말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곤궁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고뇌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47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㉓

정답 해설 제3수의 ‘그칠 뉘를 모르나다’는 시냇물이 임을 향한 화자의 뜻을 따라 밤낮으로 흘러 그칠 줄을 모르다는 의미로, 임금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지조를 드러내는 구절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제1수의 ‘그 밧기 여남은 일’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일로 볼 수 있다.

② 제2수의 ‘이 마음 어리기도’는 화자의 마음이 어리석다는 의미로, 순수한 본성의 회복을 바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제4수의 ‘많고 많고 하고 하고’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제5수의 ‘하늘이 삼겨시니’는 임금에 대한 충성이 하늘의 뜻임을 밝혀 그 절대성과 당위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48

다른 작품과의 비교 감상

정답 ㉓

정답 해설 <보기 2>에 글쓴이가 오랑캐와의 매매를 통해 생계를 도모하는 과정이 나타나지만, 그곳 거주민들이 이민족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은 없다.

오답 피하기 ② [A]에서는 ‘말이 천하고 소가 귀하’다는, <보기 2>에서는 ‘바닷가는 곡식이 비싸고 소금이 싼데, 오랑캐 땅은 곡식이 많고 소금이 부족하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굶주림을 모면하는 방법을 글쓴이에게 조언하는 주민이 등장하고 있다.

- ③ [A]의 ‘아이종이 불만스러운 얼굴이었다.’, 〈보기 2〉의 ‘아이종이 성을 내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A]에는 글쓴이와 ‘그곳에 사는 사람’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타고 온 말에 대한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 ⑤ 〈보기 2〉에는 글쓴이가 아이종을 시켜 몇 말 곡식을 소금과 교환한 후 다시 이 소금을 스무 말의 곡식과 바꾸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적용 학습 38

본문 148~150쪽

김용준, 「강희자전과 감투」

▶ 수특 「추사 글씨」의 유사 작품

해제 | 이 작품은 글쓴이가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강희자전」이라는 귀한 책을 판 경험과, 돈으로 관직을 사려는 친구의 이야기를 연결하여 느낀 점을 쓴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대상의 본질적인 가치를 잊은 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쓴 글이다.

주제 | 본질적 가치를 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태 비판

구성 | 처음: 「강희자전」을 팔았다가 되사 오면서 느낀 점
 • 중간: 감투를 돈 주고 사려는 G군에게서 책 장사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됨.
 • 끝: 본질적 가치를 중시해야 함을 G군에게 충고함.

★교재 수록부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삶의 태도나 관점에 차이를 보이는 인물들을 통해 교훈을 주고 있다는 공통점에 주목하여 김용준의 「추사 글씨」를 홍대용의 「의산문답」과 세트로 구성하여 작품의 내용 파악,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을 묻고 있습니다.

「추사 글씨」는 추사 글씨를 둘러싸고 사람들 간에 있었던 일화를 바탕으로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2015학년도 수능특강 A·B형에 수록된 김용준의 「강희자전과 감투」와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글쓴이의 태도와 익살맞고 정갈한 김용준 특유의 문체에 주목하여 글을 이해할 수 있다면 김용준의 다른 수필 작품을 만나더라도 어렵지 않게 해석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149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나’가 책 장사의 말대로 칠십 원에 「강희자전」을 사러 갔더니 팔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책 장사가 겨우 이십 원밖에 남지 않는다며 오십 원에 「강희자전」을 산 것은 헐값에 책을 산 후 비싸게 팔아 이익을 많이 남기려 했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① 책 장사가 「강희자전」을 구하고 싶어했으나 그동안 구하지 못해서 아쉬워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고, 칠십 원이 높은 금액도 아니다.

③ ‘나’는 쌀 한 말에 팔백 원인데 「강희자전」의 값이 겨우 칠십 원이라고 탄식하고 있다. 따라서 ‘칠십 원’이 ‘나’가 책을 되사러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금액이라 볼 수 없다.

④, 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150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나’는 G가 감투(직책)를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강희자전」을 팔고 샀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G에게 충고를 하고 있다. ㉠은 책 장사가 책을 사고팔 때도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것처럼, 돈을 주고 감투를 사면 당연히 들인 돈 이상의 이익을 취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G는 교장 노릇을 하다가 자신도 감투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의미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

③ ‘나’가 충고하는 부분을 보면 감투는 값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G가 감투를 돈 주고 사려는 것이 감투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나’는 돈으로 감투를 사는 G의 태도에 충고를 하는 것이지 때를 기다리라는 충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

⑤ 이 글의 ‘나’는 돈을 주고 감투를 사려는 G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나’가 G가 돈을 주고 감투를 사는 것을 용인하는 듯하게 진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 박두진, 「향현」

| 해제 | 이 작품은 산을 소재로 하여 화합을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갈망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이 시의 화자는 멀리 있는 산을 보기 위해 비상한다. 거기서 본 산은 다양한 존재들을 품고 있다. 화자는 이 존재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4연과 5연에 비추어 볼 때, 산에 사는 존재들의 침묵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는 이를 깨트릴 '화염'을 기다리면서 '여우 이리 등숙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세계가 도래하기를 노래하고 있다.

| 주제 | 화합을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갈망

- | 구성 |**
- 1연: 순수 공간인 깊은 산에의 동경
 - 2연: 다양한 것들의 공존을 포용하는 산
 - 3연: 지리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는 산
 - 4연: 화염을 기다리는 열망
 - 5연: 화합과 이상에의 희구(希求)

나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해제 | 이 시는 '물'과 '불'의 원형적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의 합일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죽어 가는 것들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찾는 '물'로 인해 세상은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파괴와 죽음을 모두 넘어서서 다음 물로 다시 만나 모든 것이 융화된 새로운 이상향을 향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삶에 대한 긍정과 희망을 보여 주고 있다.

| 주제 | 완전한 합일과 생명력이 충만한 세계에 대한 소망

- | 구성 |**
- 1연: 물이 되어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
 - 2연: 물이 되어 바다에 닿고 싶은 마음
 - 3연: 불로 만나려는 현재의 상황
 - 4연: 불이 지난 뒤에 물로 만나고 싶은 소망

다 박이문, 「눈」

▶ 수록 「존재의 테이블」의 유사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눈[雪]과 눈 덮인 세계에 대한 사색이 담긴 수필이다. 글쓰는 눈을 따뜻하며 조용하다고 인식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여 글쓰는 고독에 빠진다. 그런데 이 고독은 오히려 자신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글쓰는 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라고 말한다. 눈이 오는 밤은 무한히 고요하고 거룩하여 순수한 시간이므로 누구나 사색과 철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 주제 | 눈의 속성과 그에 대한 사색

- | 구성 |**
- 1문단: 따뜻한 눈의 속성
 - 2문단: 조용한 눈의 속성
 - 3문단: 고요한 눈의 속성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나희덕의 「존재의 테이블」이 사물을 매개로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이준관의 「구부러진 길」과 세트 구성하여 작품의 내용 파악, 구절의 의미 이해, 감상의 적절성 평가, 소재의 기능 파악을 묻고 있습니다.

「존재의 테이블」은 '테이블'이라는 사물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사색과 철학적 성찰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사물을 보며 글쓰기가 잠기는 철학적 사색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박이문의 「눈」과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와 삶을 성찰하는 글에서 사물이 어떤 방식으로 매개되는가에 주목하여 두 작품을 해석해 본다면, 유사한 발상과 표현 방식을 보이는 다른 수필 작품을 대상으로 한 문제들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5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 정답 해설 | 시에서의 청자란 시적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가)는 '산'을 '너희들', '너희'라고 지칭하고 있으므로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기다려도 좋으랴?'라고 거듭 묻고 있다. 이 물음은 '화염'과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설의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는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 청자를 찾을 수 있다. '흐르는 물로 만나자.'와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는 화자가 '그대'에게 바라는 것이므로 청자에게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대구란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것으로 짝 지은 둘 이상의 글귀를 말한다. (가)의 4연과 5연의 끝 구절은 모두 '기다려도 좋으랴?'인데, 이를 대구로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회고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나)에서 '물'과 '불'의 대립적 이미지를 찾을 수는 있으나, 이들이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④ (가)와 (다)에서 반복적인 표현을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가)는 화자의 과거 체험을 드러낸 것이 아니

라 화자의 상상을 형상화한 것이다.

⑤ (나)와 (다)에서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152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④

정답 해설 (가)의 '내 마음'이 '똥똥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넘었 산'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나)의 화자는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합일하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노래하고 있으므로 현실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가)의 4연과 5연에서 드러난 화자의 바람으로 보아 (가)의 '침묵'은 산의 부정적 상태를 드러낸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② (가)의 '내 기다려도 좋으랴'는 화자의 바람을 설의 법으로 드러낸 것이므로 '화염'은 화자가 기대하는 산의 변화이다.

③ '물이 되어 만난다면 /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말하는 (나)의 화자는 '저 불 지난 뒤에 / 흐르는 물로 만나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소망의 실현을 바라고 있다.

⑤ (가)의 '즐거이 뛰는 날'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사는 것과 연관되므로 평화로운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나)의 '넓고 깨끗한 하늘'은 '저 불 지난 뒤에 / 흐르는 물로 만나'는 것과 연관되므로 진정한 합일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153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가)에서 물은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으므로 ㉠의 '우르르 우르르'는 물의 생동하는 힘을 표현한 것이다. ㉡은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이므로 불이 소멸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가)의 물은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로 비유되고 있다. ㉢은 불의 충족감과는 관련이 없다.

② 비는 '물'의 한 모습이므로 ㉠의 비는 긍정적 의미

를 함축한다. ㉣은 소리의 긍정적 의미와는 무관하다.

③ ㉤은 비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을 드러낸다.

⑤ 비는 상승하는 물의 움직임보다는 하강하는 물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154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다)의 4문단에서 글쓴이는 '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흐뭇한 내용을 갖게 한다.'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스스로를 다시금 발견하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자아를 재발견하는 것과 연결할 수 있으므로 (다)의 글쓴이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온 세상'이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한 모습은 (다)의 2문단에 서술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연관된 부분에서 스스로 연민을 느끼는 장면을 찾을 수 없다.

② (다)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철학가의 모습은 자연스럽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철학가'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다)의 마지막 문단에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진술은 사색에 잠기는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지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⑤ (다)의 1문단에서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구들과 모여 앉아 따뜻한 온돌에 발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웃과의 유대감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15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의 재구성

정답 ⑤

정답 해설 ⑤에서 '포근하다'라는 단어는 보드랍고 따뜻한 촉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⑤가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짧은 글이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 ㉡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글이다.

④ ㉢의 조건을 충족시키고는 있으나, ㉣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글이다.



적용 학습 40

본문 154~156쪽

김유정, 「봄·봄」

▶ 수록 「금 따는 콩밭」의 유사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1930년대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배경은 1930년대 어느 봄 강원도 산골 마을이다. 이 작품은 구성이 특이하다.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의 회상에 의해 진행되는데,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한다. 즉 시간적 순서가 부분적으로 뒤바뀌어서 '장인님'과 '나' 사이의 갈등을 유쾌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소설은 혼인을 핑계로 일만 시키는 교활한 장인과 그런 장인에게 반발하면서도 끝내 이용당하는 '나'의 갈등을 그리고 있지만 삶의 현실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모습을 보여 준다. 또한 장인과의 갈등이 희극적으로 과장되어 작품 전반에 웃음이 넘치게 하고 있다. 딸의 키를 핑계로 혼례를 미루고 일만 시키는 장인의 속보이는 술책, '나'를 총동질하는 점순이의 당돌함, 장인의 술책에 맞서 보지만 번번이 당하기만 하는 '나'의 우직함 등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해학적 모습이 잘 드러난다.

| 주제 | 우직하고 순박한 데릴사위와 그를 이용하는 교활한 장인의 해학적 갈등

| 전체 줄거리 | '나'는 점순이와 혼례를 올리기로 하고 3년 7개월간이나 변변한 대가 없이 머슴 일을 하고 있다. 장인은 점순이가 덜 컸다는 이유로 혼례를 미루고 **☆교재 수록 부분** '나'는 구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구장은 장인의 편을 든다. 결국 '나'는 장인과 싸움을 하게 되고 점순이는 아버지의 편을 든다. 허탈해진 '나'를 장인이 다독이며 혼례를 약속하자 '나'는 다시 일터로 향한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이 일제 강점기 농촌 경제의 황폐화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과, 소망의 꽃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유치진의 「토막」과 세트 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김유정의 작품들은 해학과 풍자를 통해 일제 강점기 농촌의 현실을 그려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에 출제된 김유정의 「봄·봄」과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김유정 특유의 해학적 형상화 방식과 작품 속에 나타나는 1930년대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것이 당대의 농촌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김유정의 어떤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6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나'와 장인이 대립하고 있던 중에 장인이 '나'의 뺨을 때린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서술자인 '나'는 '작년 이맘때'의 사건, 즉 장인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 '나'가 태업을 하자 장인이 장가를 들여 주겠다고 회유했고 '나'가 이에 넘어갔던 사건을 회상한다. 그러한 회상을 통해 '나'가 점순이와 혼인하기로 하고 장인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인물임이 드러나며, 인물들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현재 사건을 서술하다가 '작년 이맘때'의 사건, '그 전날'의 사건이 회상되고 있으므로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의 병치로 볼 수 없다.

③ 일상적인 구어체로 서술하고 있어서 현학적 표현을 찾기 어렵다.

④ 서술자인 '나'는 자신이 겪은 일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전하고 있다.

⑤ '나'가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

157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나'에게 점순이는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라고 종알거렸고 "성례시켜 달라지 뭐 어떻게." 하고 쏘아붙이기까지 했다. 이로 미루어 점순이는 성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나'에 대해 불만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나'는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은 아니다. 이 대목은 '장인님'이 '나'에게 '큰소리할 계제'가 아님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서술된 것이다.

- ③ '나'와 장인이 갈등을 겪는 이유는 장인이 일만 시키고 점순이와 혼례를 시켜 주지 않는 데 있다.
- ④ 장인이 동리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은 것은 마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작인들에게 못되게 굴었기 때문이다.
- ⑤ '나'는 장인이 동리 사람들에게 취하는 행동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158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은 점순이가 겉으로 보이는 키는 크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제법 성숙해진 듯하다는 뜻에서 한 말이다.

- 오답 피하기** ① ㉡은 '욕필'이라는 별명이 본명인 '봉필'과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 ② ㉢은 괄호를 제거해도 문장이 자연스럽다.
 - ③ '나'는 장인에 대한 반감을 장인 소유의 소에게 대신 표출하는 중인데, ㉣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은 점순이의 행동 특성에 대해 장인이 '채신이 없이 들까분다'고 평가했음을 알려 주고 있다.

159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④

정답 해설 '밭'에서 '나'는 점순이의 키를 보고 생긴 울화를 소에게 풀고 있다. 점순이는 '나'의 화풀이 대상이 아니다.

- 오답 피하기** ① 장인은 마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소작인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많았다면 소작인들이 안정적으로 소작하기 어려워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 ② 장가를 들여 주겠다는 장인의 회유에 넘어간 '나'는 '논'에서 남이 이를 걸릴 일을 하루에 해치우는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 ③ '화전밭'에서 '나'는 생동하는 봄 풍경에 휩쓸려 몸이 나른하고 가슴이 울렁거리며 노래를 하는 등 분위

기에 취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 ⑤ '이날'은 '나'가 점순이도 자신과 혼례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다.

적용 학습 41

본문 157~159쪽

유치진, 「소」

▶ 수특 「토막」의 유사 작품

해제 | 이 작품은 선량한 소작농인 국서네 집안의 '소'를 매개체로 하여 1930년대 일제 강점기 농촌의 구조적 모순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의 비극적인 삶을 효과적으로 그려 낸 사실주의 계열의 희곡이다. '소'를 둘러싼 국서네 집안의 가족 분열과 지주, 마름, 소작농 등의 계층 간 대립이 몇 차례의 반전을 거치면서 극적인 요소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 글에는 오랜만의 풍년에도 불구하고 쌓인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는 국서네와 마름 간의 갈등, 애지중지하던 소를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족 간의 갈등이 제시되어 있다.

주제 | 일제 강점기의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상

전체 줄거리 | 선량한 농사꾼인 국서는 좋은 품종의 소를 가진 것을 긍지로 삼고 살지만 국서의 두 아들은 소를 팔 구리만 한다. 장남 말뚝이는 빚 때문에 일본으로 팔려 가게 된 귀찬이와의 결혼을 위해 소를 팔 것을 조르고, 차남 개똥이는 만주로 떠날 노자를 마련하기 위해 소를 팔자고 조른다. 국서네는 결국 소를 팔아 귀찬이네 빚을 갚아 주기로 하지만 소 장수가 그 소는 이미 팔렸다고 말한다. 말뚝이는 개똥이가 소를 몰래 판 것으로 의심하여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지만, 정작 소는 마름이 밀린 빚 대신에 가져가게 된다. **★문제해설부분** 말뚝이는 지주네 공간에 불을 질러 주재소에 붙잡혀 가고, 개똥이는 만주로 떠날 것을 결심한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유치진의 「토막」이 일제 강점기 농촌 경제의 황폐화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과, 소망의 플롯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과 세트로 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유치진은 1930년대를 대표하는 극작가로 극을 통해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형에 출제된 유치진의 「소」와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두 작품이 일제 강점기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두 작품의 다른 장면이나 유치진의 다른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0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이 글에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소장수 A에게 소를 넘길 궁리를 하는 개똥이를 의심하는 말뚱이의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만,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서와 개똥이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뚱이의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② 국서의 '보시다시피 우리는……'과 말뚱이의 '우리 집에 어디 쌀 한 톨 남았나 봐요! 막 뒤져 봐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사람은 빛을 갠기 어려운 형편에 대한 이해관계는 공유하고 있지만, 마름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국서는 사정 조로 말하는 반면 말뚱이는 대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그놈일지도 몰라. 그놈이 소 팔아서 만주 보내 달라구 좀 성화를 부렸어야지.'라는 국서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짧은 머리 깎은 녀석이지. 좀 똥똥허구.'라고 말하는 소장수 B의 말을 받으며 말뚱이가 '인제 알았어요. 아까 개똥이란 녀석이 웬 똥똥허구 짧은 사람을 데리고 왔겠지요.'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나는 그저 논입자가 하라는 대로 허는 사람이야. ~ 딱 잘라서 최후 결단을 지어 버리고 말 거란 말야!'라는 마름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1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헛간에서 자신의 시선을 피해 슬슬 나가는 개똥이와 소장수의 모습을 보며 말뚱이는 ㉠을 느끼

게 된다. 따라서 ㉠은 가족 몰래 소를 팔아 치우려는 개똥이의 모의(謀議)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의미하는 바는 '두고 봐! 가동이라두 빼어 가두 빼어 가구 솔이라두 떼어 갈 테니까.', '저놈의 소는 못 물고 갈 줄 아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말뚱이는 ㉢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소의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국서는 ㉣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말뚱이와 달리 마름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마름은 금명간 빛을 갠 못할 경우 ㉣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② ㉠은 헛간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때 개똥이가 취하는 행동을 통해 예감하는 것으로 말뚱이가 조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는 그예 너 늠 때문에 날려 버리고 말었다!'라는 국서의 말을 볼 때 말뚱이는 ㉣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동하고 있다.

③ ㉠의 결과로 인해 말뚱이가 개똥이에 대해 증오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은 빛을 갠 것을 중용하는 마름의 협박 수단이므로 이를 마름이 국서 부부에게 불만을 갖는 계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국서와 말뚱이의 갈등은 ㉠으로 인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름을 대하는 말뚱이의 태도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16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나를 보고는 그만 도망을 했어!'는 가족 몰래 소를 팔아 치우려는 계획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리를 피하는 개똥이에 대한 말뚱이의 개인적 판단이 담긴 대사이다. 이를 계층 간 위계 관계를 중시하는 당대 농촌 사회의 관습을 따른 판단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당대 농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 '울타리' 등의 소재를 연극적 장치로 사용할 경우 무대 상황에 사실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등장인물이 실제처럼 상황에 어울리는 감정 표현을 하거나 구어체의 말투로 연기할 경우 연극 상황에 좀 더 현실성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명령하는 마름의 모습과 조심스럽게 마름을 대하

는 국서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당대의 마음과 소작농 간의 관계를 보여 줄 수 있다.

④ ‘농지령’, ‘작인’, ‘도지’와 같이 특정 시기에 사용되었던 용어를 사용하면 당시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사실감 있게 보여 줄 수 있다.

EBS

적용 학습 42

본문 160~162쪽

조위한, 「최척전」

▶ 수특 「최척전」의 동일 작품

| 해제 | 이 소설은 전란의 와중에 이산과 상봉, 유랑과 귀향을 겪은 최척과 옥영 가족의 이야기이다. 시간적으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공간적으로는 조선, 일본, 중국, 베트남, 만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소설들이 중국이나 조선만을 소설의 배경으로 삼은 것과 달리, 사건의 무대가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를 만큼 광범위하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소설의 배경이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 당시의 전란을 겪은 민중의 고통을 다루었다는 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초자연적 도술이나 우연이 아닌 주인공들의 노력 위주로 이루어진 점 등의 측면에서 사실감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 주제 |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 전체 줄거리 | 남원에 사는 최척은 옥영과 약혼을 하지만 갑자기 징발되고, 옥영의 부모는 이웃의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한다. 이 사실을 안 최척은 진중에서 달려오고, 두 사람은 드디어 혼인을 한다. 그러나 정유재란으로 남원이 함락되자 옥영은 왜병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최척은 명장 여유문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간다. 몇 년 뒤 일본에 끌려간 옥영이 돈우의 상선을 타고 안남(베트남)으로 오고, 명나라로 건너갔던 최척도 동료들과 상선을 타고 안남으로 왔을 때, 최척의 피리 소리와 옥영의 시 소리가 매개가 되어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된다. **★고제 수록부분★**

수특 수록부분 이들은 중국으로 돌아와 살며 아들 몽선을 낳는다. 몽선이 장성하여 임진왜란 때 조선에 출전한 진위경의 딸 흥도를 아내로 맞는다. 이듬해 최척은 명나라 병사로 출전하였다가

청군(淸軍)의 포로가 되어 포로수용소에서 만이들 몽석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다. 부자는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여 고향으로 향하던 중 몽선의 장인 진위경을 만난다. 옥영 역시 몽선·흥도와 더불어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돌아와 일가가 다시 만나게 된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인물의 정체를 알게 되는 단서를 제공하는 소재가 등장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고전 소설인 조위한의 「최척전」을 현대 소설인 윤홍길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와 묶어 수록하여 소재의 공통점과 서술 방식의 특징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최척전」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최척과 옥영의 애정과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를 그리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가 구체적이면서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모의평가뿐만 아니라 학력평가에도 여러 번 출제되었습니다. 교재에는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서사 구조와 작품 배경의 의미 및 역할,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작품의 내용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작품 전체의 내용과 줄거리, 그리고 가족들이 헤어지게 된 원인 등을 파악한다면 「최척전」의 다른 장면이 출제되더라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3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

정답 ②

정답 해설 타국(베트남)의 강어귀에서 쓸쓸함을 느낀 최척이 조선의 곡조로 된 피리 소리로 마음을 달랠다. 귀에 익은 피리 소리를 들은 옥영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느껴 자신이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창작했던 시를 조선말로 읊는다. 이 소리는 다시 최척으로 하여금 일본인의 배를 찾게 만들어 들은 극적인 상봉에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두 사람의 상봉을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한 매개체는 조선의 곡조로 연주한 최척의 피리 소리와 옥영이 조선말로 읊은 시이다. 피리의 곡조와 조선말의 시는 모두 두 인물이 과거에 함께 나눈 문화적 경험이며, 문화적 경험에 대한 공동의 기억이 두 인물의 상봉을 가능하게 한 매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제시된 장면에서는 최척과 옥영을 제

외한 조선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최척과 옥영이 주변 인물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나, 그들에게 베푼 자비로 인해 상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④ 돈우가 옥영을 남성으로 오해하기는 하였으나, 옥영의 고난은 전란으로 인한 것이지, 돈우의 오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최척과 옥영이 상봉하면서 통곡하자 주변 인물 중 울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한편 돈우가 자신이 아끼는 옥영과의 이별을 슬퍼하기는 하나, 최척과 옥영의 상봉에 관하여 의심을 품는 것은 아니다.

164

작품 배경의 의미, 역할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최척은 아내가 창작한 시구를 아내와 비슷한 목소리의 인물이 읊는 것을 듣고, 그 인물이 혹시 아내가 아닌지 확인하려는 강한 욕구를 갖는다. 깊은 밤에 소란을 일으킬까 염려되어 아침까지 잠도 자지 않고 때를 기다린 다음, 아침이 되어 아내와 상봉한다. 따라서 밤은 최척이 이제껏 헤어졌던 아내와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서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때이고, 아침은 극적인 상봉을 통해 그 긴장이 해소되는 때이다.

오답 피하기 ① 이 글에서 밤에 오고 가는 피리 소리와 시 읊는 소리는 최척과 옥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에 해당하며, 초월적 존재와의 교감은 아니다.

② 부부가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고 재회에 이르는 과정을 위기의 조성 and 해소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③ 밤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다음 날의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며, 아침에 계획 실행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

④ 아침에 부부의 이별이라는 문제 상황이 해결된 것이지,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새로운 인물들 간의 갈등으로 확산된 것은 아니다.

165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㉔

정답 해설 최척의 말에 따르면, 밤에 옥영이 읊는 시는 부부가 헤어지기 전 아내가 짓고 읊었던 시이다.

옥영이 옛날에 지은 시를 읊고 한숨까지 내쉬는 것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유랑하는 처지에 대한 탄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지, 시가 이산과 유랑 체험을 담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이 글의 시간적 배경은 '경자년(1600년)'이다. 돈우가 옥영을 데리고 있게 된 지가 '4년'이라고 하였으므로, 옥영이 고향을 떠난 것은 1596년쯤으로 볼 수 있다. 이때는 임진왜란(1592~1598년)의 기간에 속하므로, 이 작품의 사건은 전란과 유랑 체험의 역사적 실제성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최척이 일본인의 배를 찾아가게 된 것은 일본인의 배 안에서 '조선말'로 된 시 읊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또 옥영이 저절로 시를 읊게 된 것은 '조선의 곡조'로 된 피리 소리를 듣고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조선말', '조선의 곡조'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사건의 배경이 타국(안남의 강가)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④ 부부의 상봉을 지켜보며 놀라 소리치거나 함께 통곡하는 사람들은 중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들이며, 이들의 눈물은 각국 백성들이 보인 인류애적 연민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⑤ 돈우가 옥영을 넘길 때 돈 받기를 사양하고 오히려 옥영에게 전별금을 주는 것은 '하늘'의 뜻에 따르는 양심을 보여 주는 행위로, 임진왜란 당시 교전국이었던 조선과 일본의 갈등을 넘어선 인간적 배려에 해당한다.

적용 학습 43

본문 163~164쪽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수록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의 동일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윤홍길이 1977년에 발표한 소설로, 다른 세 편의 소설과 묶여 연작 소설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구성한다. 교사인 '나'는 여러 해에 걸친 셋방살이 끝에 집을 장만하고 방 한 칸을 세놓는데, 이 방에 권 씨의 가족이 세를 들어 온다. 소설은 권 씨의 삶에 대한 '나'의 관찰과 추적으로 진행된다. 대하까지 나온 선량한 소시민인 그는 성남 지구 택지 개발이 시작될 무렵 철거민의 권리를 사서 들어왔으나, 당국의 불합리한 조치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자 이에 항거한다. 그는 왜소한 체구의 평범한 소시민이었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된다. 유순하지만 자존심 강한 그를 집주인인 '나'는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다.

| 주제 | 도시화로 인해 소외된 계층의 삶과 그에 관한 관심

| 전체 줄거리 | 성남의 고급 주택가에 무리해서 집을 마련한 '나'가 방 하나를 세놓자, 권 씨 가족이 이사를 온다. 하지만 권 씨 가족은 전세금 20만 원 중 10만 원만 내고, 권 씨의 아내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그리고 '나'는 자신의 구두를 소중하게 여기는 버릇이 있는 권 씨가 원래는 출판사에 다녔었고, 철거민 입주권을 얻어 집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 소요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주동자로 몰려 징역을 살다가 나온 사정을 알게 된다. 권 씨 아내가 출산을 위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교재수록부분** 권 씨는 '나'에게 수술 비용을 빌려 달라고 하나, '나'는 그 부탁을 거절한다. 권 씨가 돌아간 후 '나'는 권 씨 아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권 씨는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하고, '나'는 그가 권 씨임을 알게 된다. **☆주목수록부분** 정체가 탄로 났음을 알게 된 권 씨는 아홉 켄레의 구두만 남긴 채 사라진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윤홍길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조위환의 「최적전」과 세트 구성하여, 서술상의 특징 파악,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을 묻고 있습니다.

윤홍길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2016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B형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대학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을 영위하기조차 버거운 권 씨의 모습과 자신의 생활을 위해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려 했던 '나'의 모습에서 1970년대 도시화의 문제와 소시민의 고달픈 삶을 읽어 낼 수 있다면, 그리고 작품의 제목이 지닌 상징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다른 장면이 출제된다 해도 충분히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66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권 씨'의 부인이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진통하는 상황에 대하여, '나'의 아내는 '아무래두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애요.'라며 불안감과 우려를 드러낸다. 이를 계기로 '나'는 문간방의 '권 씨'를 불러내어 임신부에 대해 적절히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문간방에 쌀이나 연탄을 몰래 갖다 주고 난 후 아내가 '생병'을 앓은 이유는, 무책임하고도 무능하여 못마땅한 사내(권 씨)까지 돕게 된 상황이 화가 나서이다.

② '권 씨'는 '여전히' '계속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옛그제까지' 권 씨가 여간내기가 아니라고 아내가 속삭이기는 하였으나, '권 씨'가 '권 씨네'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권 씨 부인'의 진통은 '나'가 '아내'에게 알려 준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나'에게 귀뜸해 준 것이다.

⑤ '권 씨'가 '나'의 염려에 대해 '위로해 주는 투'로 변명한 것을 '위로'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후의 장면이 제시되지 않아 '아내'의 원망이 누그러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167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에서는 예정일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출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권 씨 부인'의 상황이 아내의 발화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에서는 '나'가 꿈의 내용이 사실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꿈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 ㉡에서 서술자는 '권 씨' 부부가 사태를 최악의 선까지 몰고 가고 있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권 씨' 부부의 내면 심리나 의도가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

④ ㉠과 ㉡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나'의 심리적 갈등이다. '권 씨' 부부와 외적 갈등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⑤ ㉢에는 출산 예정일도 모를 정도로 출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정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에는 최악의 선까지 몰려가는 부정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부정적 상황에 대한 '아내'와 '나'의 불안과 염려가 드러나 있으므로, ㉠과 ㉠에 인물들에 대한 긍정적 시선이 드러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68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

정답 해설 '나'가 '권 씨네'에 대해 염려하며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한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로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만'의 일이라도 일이 잘 못될 경우(출산 과정에서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가 '권 씨네'를 염려하는 모습은 이웃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는, 일면 공동체의 유대감의 표현이기는 하나, '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로 표현되는 소시민적 개인주의의 표현이기도 하다. '우리를 위해서'를 공동체적 유대감 회복으로 이해한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권 씨네'를 의식하는 행위가 공동체적 유대감의 표현이고, '권 씨네'의 상황에 대한 거리두기가 개인주의의 표현이라면,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나'의 모습은 공동체적 유대감과 개인주의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글에서는 일정한 직업 없이 막일을 하는 '권 씨'를 통해 주변부로 밀려난 도시 빈민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권 씨네'를 염려하면서도 '권 씨네'를 돕고 나서 꾀씹해하는 '아내'에게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 의식과 남의 상황에 거리를 두려는 개인주의의 사이에 놓인 소시민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④ 가난한 가정 형편 탓에 별다른 대책이나 준비도 없이 해산을 맞이하려는 '권 씨' 부인의 모습에서 궁핍한 소외 계층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적용 학습 44

본문 165~166쪽

우리나라 전기소설

▶ 수록 「전기의 개념과 구성, 성격의 유사 제재

| 해제 | 이 글은 우리나라 전기소설의 정립 과정을 다루면서 그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소설은 중국의 전기와 우리의 설화 등 다양한 서사 갈래의 영향을 받아 성립하였다. 중국 전기의 '기이한 사건'을 받아들여 다루면서도 '비극적 종결'이라는 독자성을 갖춘 전기소설은 외롭고, 소극적·폐쇄적이며, 내면성을 지닌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설화와 차별화 되어 왔다. 이러한 전기소설은 설화와는 다른 방식의 갈등을 다루면서 점차 소설적 면모를 갖추었고, 전기소설의 다양한 구도는 이후 몽유록 소설, 영웅 소설, 애정 소설로 계승되었다.

| 주제 | 우리나라 전기소설의 특징과 정립 과정

- | 구성 |**
- 1문단: 중국 전기의 영향을 받았으나, 독자성을 지닌 우리나라 전기소설
 - 2문단: 전기소설의 성립에 영향을 끼친 설화 및 전기소설 주인공의 특징
 - 3문단: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양식인 전기소설 **☆교제**

수록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전기(傳記)'의 개념과 구성 방식, 그리고 전기의 성격 등에 대한 설명문을 제시한 후, 석식영암의 「정시자전」과 박제가의 「소전」을 함께 수록하여 두 작품에 나타난 전기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전기'는 예부터 쓰여진 대표적인 한문 양식인데요, 수능특강의 '전기'에 관한 설명문은 우리나라 전기소설(傳奇小說)의 정립 과정을 다루면서 그 특징을 서술한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의 제시문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의 제시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전기소설이 중국 전기의 영향을 받았으나 독자성을 지니고 발전했다는 점을 언급한 후 전기소설의 성립에 영향을 끼친 설화와 전기소설의 주인공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항에서는 이러한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데요, 이러한 글과 같이 특정 문학 양식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 출제될 경우, 각 문단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제시문의 내용을 묻는 문항뿐만 아니라 제시문을 외적 준거로 활용하여 작품의 감상 능력을 묻는 문항까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69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정답 ⑤

정답 해설 1문단을 보면 우리의 전기소설에서 기이한 사건은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창작 동기에서 비롯하였으며, 작가의 분신으로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전기소설의 남주인공은 기이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에서 중국의 전기는 기이한 사건을 다채로운 문체로 엮은 서사 양식인데, 기이한 사건은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만 쓰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전기는 서사 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했고 결말의 양상도 다양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전기소설은 비극적 종결을 맞이하는 전형성을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1문단에서 중국의 전기는 당나라 문인들이 자신의 글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관습에서 유래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1문단의 끝부분에서 우리의 전기소설은 중국 전기의 영향을 받아 기이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비극적 종결을 통해 전기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 **전체 줄거리** | 저생은 채륜의 후손으로 성품이 맑고 깨끗하며 여러 가지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었다. 한나라 때 그 재주를 인정받아 벼슬길에 올랐다. 진나라 때는 글재주로 이름을 날렸으며, 양나라에 이르러 사서를 편찬했다가 위수의 불공정한 처사에 반발하여 사퇴하고 장부를 기록하는 미관말직으로 옮겨 갔다. 그 뒤에 진왕의 사랑을 받다가 수양제에 이르러 미움을 받아 벼슬길에서 쫓겨났다. 당나라, 송나라에서는 문명을 떨치고, 송나라 말기에는 왕안석(왕형공)에게 미움을 받아 배척당하고 쓰이지 못했다. 원나라 때에는 본업에 힘쓰지 않고 이익만을 도모하다가 세인들의 지탄을 받았으나, 명나라에서 벼슬을 하여 비로소 사랑을 받았다. 그 후에 자손들도 번창하여 모두 대부가 되었다. **★교재 수록 부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고려 시대 가전체 작품인 석식영암의 「정시자전」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문 양식인 전기(傳記)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기(傳記)의 개념과 구성 방식, 그리고 전기의 성격 등에 대한 설명 문 및 박제가의 「소전」을 함께 수록하여 전기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정시자전」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소리를 지킬 것을 권유한다는 주제를 지팡이의 의인화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가전체 문학이라는 점에서, 2020학년도 수능특강 문학에 수록된 이침의 「저생전」과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저생전」은 종이를 의인화하여 이상적인 인물 유형을 밝히고 있는데, 2020학년도 수능특강 문학에서는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과 가전의 구조, 그리고 종이의 의인화를 통해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가전체 문학의 작품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가전의 개념과 구조 등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다른 가전체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어렵지 않게 문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 학습 45

본문 167~170쪽

이침, 「저생전」

▶ 수록 「정시자전」의 유사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종이를 의인화하여 쓴 가전체로, 종이를 중국 역사에 대입하여 시대마다 종이가 처세한 내용을 관리의 생애로 표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저생의 일생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주고 있으며, 이면적으로는 한(漢)에서 명(明)에 이르는 종이의 내력을 통해 이상적인 인물 유형을 그리고 있다.

| **주제** | 종이의 생애

170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역사 속의 구체적인 사례에 덧붙여 인물의 행적을 시대순으로 드러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덧붙이며 서술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저생은 현실적 인간의 모습으로 의인화되어 있으며, 초월적 존재가 인물의 운명을 바꾸는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인용된 인물의 발화가 인물 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저생의 생애를 시대순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같은 시간에 벌어진 여러 사건을 병치하고 있지는 않다.

⑤ 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공간적 배경의 변화가 나타나 있으나, 공간적 배경의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가 변화하게 된 계기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17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원나라 초기 저생의 행실에 대해 서술자는 '본래의 사업에 힘쓰지 아니하고'라고 밝히고 있으며, '사람들 간에는 비루하게 여기기도 하였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밝히고 있어, 이때의 저생에 대해 관리로서 능란하게 처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한나라 때 저생이 '방정과에 응시'하는 것은 관직에 나아가려 함을 보이는 것으로, 저생의 생애를 관리의 생애에 대응시켜 서술하는 특징과 관련된다.

② 한나라 때 저생이 '저국공에 백주자사'가 된 것은 그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상승기의 초기에 해당하는 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관리로서 살아간 생애의 초기의 일로 볼 수 있다.

③ 양나라 때 저생의 일은 상승기에 공을 쌓았던 면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저생이 수나라 때 소의를 당하거나, 송나라 때 쫓겨나 쓰이지 못하게 된 것은 하강기의 면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72

갈래별 특징, 성격

정답 ㉔

정답 해설 [B]는 주인공의 선조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선계'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A]는 저생에 대해 '성은 저요, 이름은 백', '자는 무점'이며, '한나라 중상시 상방령을 지낸 채륜의 후예'라고 밝히고 있어, '서두'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③ [C]는 각 시대별로 저생의 공이나 행적 등을 밝히

고 있어, '사적'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④ [D]는 명나라에서 벼슬한 저생의 행적만을 밝히고 있어, '주인공의 죽음이나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노후를 보내는 모습'을 보이는 '종말'의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⑤ [E]는 저생의 자손이 보인 행적을 밝히고 있어, '후계'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적용 학습 46

본문 171~172쪽

박제가, 「소전」

▶ 수록 「소전」의 동일 작품

해제 | 이 작품은 전(傳)의 형식을 빌려 세속적 명리를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글쓴이 자신의 모습을 개성적으로 그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은 글쓴이가 어떤 사람의 독특한 행적을 기록하고, 여기에 교훈적인 내용이나 비판을 덧붙인 글을 말한다. 그런데 이 작품은 글쓴이 스스로 자신을 '그'라는 객관적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글쓴이는 자신에 대해 '권세 많고 부유한 사람은 멀리'하고, '심오한 것에 침잠하여 사유'하며, '현상의 이치를 가슴속에 또렷하게 터득'하였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를 통해 청빈하고 고고한 삶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조선 사회에서 서열 출신으로 태어나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없었던 처지에서 비롯된 안타까움이 엿보이기도 한다.

주제 | 세속적 명리를 추구하지 않고 살아갔던 박제가

- 구성** | • 처음(조선이 개국한 지 ~ 호를 지었다.): 박제가의 출생과 명명(命名)
 • 중간(그의 사람됨을 ~ 발견하기 바라노라): 박제가의 인물됨
 • 끝(그를 예찬하여 ~ 그인 줄 알 것이다.): 박제가에 대한 찬(讚) **★교재 수록부분 8수록 수록부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전기(傳記)'의 개념과 구성, 성격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박제가의 「소전」을 '전기'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다룬 설명문 및 고려 시대 가전체 작품인 석식영암의 「정시사전」과 함께 수록하여 서술상의 특징과 두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소전」은 북학파의 대표 학자 중 하나인 박제가가 지은 짧은 자서전으로, 글쓴이가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과 삶에 대한 가치를 전의 형식을 빌려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14학년도 인터넷수능 문학 B형에 단독으로 수록된 적이 있는데, 표현상의 특징과 글쓴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어구의 문맥적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전의 일반적인 구성 방식과 작품에서 언급한 글쓰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173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일대기란 인물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한 것인데,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은 인물의 외양과 행적 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는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일대기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아아!~’ 부분을 보면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나타나 있다.

② 이 글은 박제가라는 한 인물의 행적과 성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③ ‘물소 이마에 칼날 같은 눈썹’과 같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⑤ 전체적으로 산문이지만 인물을 ‘찬(讚)’하는 부분은 운문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

174

삶의 다양성 이해

정답 ③

정답 해설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제도할 학문을 좋아하였다.’라는 구절을 보면 ‘그’가 인간의 제도와 사회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알아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원대한 산천과 ~ 그 현상의 이치를 가슴속에 뚜렷하게 터득하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늘 가난하게 산다.’, ‘세상에서 힘써야 할 것은 보려고 하지 않는다.’ 등의 표현을 통해 ‘그’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삶에 대해

자부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⑤ ‘지금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175

어구의 문맥적 의미 이해

정답 ①

정답 해설 ㉠ 바로 앞의 ‘완전히 그 사람’이라는 말을 통해 ‘천만 명의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이 그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 즉 개성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고립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박제가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는 핵심적인 특성은 아니다.

③ 박제가의 삶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박제가의 가치를 단지 소수자라는 점에서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박제가가 지향하는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지위에 있지 않다.

적용 학습 47

본문 173~176쪽

가 장유, 「곡목설」

▶ 수록 「곡목설」의 동일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인간의 품성을 굽은 나무에 비유해 제시한 17세기의 한문 수필이다. ‘굽은 나무’를 보고 ‘바르지 못한 자’를 떠올린 ‘장생’의 말을 들은 ‘나’가, 나무가 상징하는 바는 인간 사에 반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설파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유추의 방식을 통해 인물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들의 말이 대화 형식을 통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주제 | 잘못된 인재 등용에 대한 비판

| 전체 줄거리 | ‘나’의 이웃에 살고 있는 ‘장생’은 산에 들어가 재목을 찾으려 할 때, 여러 번 보고도 그 구부러져 있음을 파악하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사람을 여러 번 보고도 그 실체를 짐작하지 못함에 대해 말한다. 또한 ‘장생’은 본래 곧은 나무도 곧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타고난 성품을 굽히고 본래의 모습을 벗어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점에서 바르지 못한 자가 많고 정직한 자가 적은 것이야 조금도 괴이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나’는 나무의 속성에는 곧음과 구부러짐이 모두 포함되지만, 사람의 속성은

본래 선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직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죽음을 면한 것이라 말한다. 또한 꿈은 나무는 큰 집을 이루는 재목으로 사용됨에도 활줄처럼 꿈은 사람은 세상에서 쓰이기 어렵고, 굵은 나무는 보잘것없는 목수에게라도 선택되기 어렵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높은 관직에 오른다는 점에서 잘못된 인재 등용을 비판한다. **☆교재 수록 부분 8 수록 수록 부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자연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사대부 문학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고전 수필인 장유의 「곡목설」을 조선 시대의 연시조인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및 조선 시대 가사인 정극인의 「상춘곡」과 함께 제시한 후, 각 작품에 드러난 자연의 의미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곡목설」은 곡목, 즉 겉으로 보기에는 꿈은 나무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굵은 나무였음을 알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데, 장생과 장자의 대화 형식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곡목설」은 2018학년도 3월 고2 학력평가에 출제되었는데, 허전의 「고공가」 및 이원익의 「고공담주인가」와 묶여 글쓴이(화자)의 표현 방식의 공통점과 작품에 드러난 인물들의 말하기 방식의 특징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곡목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항의 경우, 장생과 글쓴이의 생각과 이와 관련된 인간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으므로 이 문항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게 다른 문항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허전, 「고공가」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중기 임진왜란 직후에 허전이 쓴 가사로, 국사(國事)를 한 집안의 농사일에 비유하여 당시의 정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작가는 임진년의 환란 때 왜구들에게 삼천리강산이 무참하게 유린되어 온 산하와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음에도, 밥그릇 싸움에만 열중하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신하들을 집안의 게으르고 어리석은 머슴에 빗대어 그들의 무능하고 부패한 모습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주제 | 게으르고 이기적인 하인(신하)들에 대한 비판

구성 | 서사: 우리 집안의 내력

- 본사 1: 머슴(관리)들의 다툼으로 인한 폐해
- 본사 2: 머슴(관리)들의 각성 촉구
- 결사: 사려 깊은 새 머슴(관리)의 출현을 고대함.

다 이원익, 「고공담주인가」

해제 | 임진왜란 이후 이원익이 허전의 「고공가」에 화답한 교

훈 가사이다. 「고공가」에서 집안, 즉 나라일이 쇠락한 원인을 일방적으로 머슴, 즉 신하들에게서 찾고 있다면, 「고공담주인가」에서는 어른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한 국가의 살림살이를 농사짓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에 빗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주제 | 이기적인 관리들의 정치적 행태 비판과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방안

구성 | 서사: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볼 것에 대한 권유

- 본사 1: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머슴(관리)들에 대한 비판
- 본사 2: 어른 종(영의정)의 말을 듣지 않는 상전(임금)을 향한 충고
- 결사: 집안 살림을 일으킬 수 있는 방도 제시

176

작품들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가)에서 장생은 ‘바르지 못한 자가 많고 정직한 자가 적은 것이야 조금도 괴이한 것이 아니로구나.’라고 하며 정직하지 못한 자가 많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정직한 자보다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더 높이 등용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나)와 (다)에서는 고공, 즉 머슴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가세가 기울게 된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머슴과 주인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는 인물의 회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에는 ‘우리 집’이 지어지고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한 시기의 과거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과거 지향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② (가)~(다)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조적 흐름을 찾아볼 수 없다.

③ (가)의 끝부분에서는 ‘큰 집’과 ‘조정’을 사례로 들어 굵은 나무가 집짓기의 재목으로 쓰이지 않는 것과는 달리 바르지 못한 인재가 조정에 등용되는 현실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를 가상의 사례를 통해 가치관의 대립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나)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대조와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가세가 기울게 된 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 (다)의 서술은 세월의 흐름과 관련이 없다.

177

등장인물의 생각 이해

정답 ③

정답 해설 ‘나’는 나무와 같은 자연물과 인간사를 대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는 나무의 속성에는 곧음과 구부러짐이 모두 포함되지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직한 것이며 정직하지 않은 자가 죽음을 모면하고 사는 것은 일종의 요행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공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즉 ‘나’는 그 속성에 곧음과 구부러짐을 포함하는 나무와는 달리 인간의 천성은 오직 정직한 데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장생은 ‘나무’와 ‘인간’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고 있다. 장생은 나무를 여러 번 보고도 그 구부러짐을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사람을 여러 번 보고도 그 실체를 짐작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② 장생은 나무가 본래의 곧음에도 불구하고 곧게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타고난 성품을 굽히고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④, ⑤ ‘나’는 곧은 나무는 큰 집을 이루는 재목으로 사용되지만 굽은 나무는 보잘것없는 목수에게라도 선택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를 인간사와 대조하고 있다. 즉 나무의 경우와는 달리, 사람은 정직하면 세상에 쓰이기 어려운 반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17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다)의 화자는 (나)의 화자를 청자로 상정하여 가세가 기운 것에는 주인의 뜻도 있으니 어른 중을 믿고 종들을 휘어잡아 다시 가세를 일으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의 화자가 (나)에서 호명하는 청자에게 자신의 발화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장생이 굽은 나무를 보고 탄식한 내용을 ‘나’가 듣고 이에 대해 반응하면서 둘의 대화가 전개되고 있다.

② (가)에서 ‘나’는 ‘그대의 세상에 대한 관찰력이 뛰

어나네그려!’라고 하며 장생의 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고 있다.

③ (나)에서는 고공을 청자로 호명하는 화자의 말이 청자의 반응 없이 독백에 가까운 형태로 전달되고 있다.

⑤ (다)에는 (나)의 ‘새끼 꼬며 이르리라’에 대응하는 ‘새끼 꼬기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나 (나)의 ‘요사이 머슴들은 철이 어찌 아주 없어’에 대응하는 ‘철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와 같은 언급이 확인된다. 이 언급은 (다)가 (나)의 화자의 발화에 대한 반응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표지가 되며, 이 표지를 통해 (나)와 (다) 사이에는 텍스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9

시구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B]에서 화자는 ‘밥사발 큰지 작은지 옷이 좋은지 못한지’, ‘마음을 다루는 듯 호수를 시기하는 듯’과 같이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면서 머슴들 간의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하는 듯’과 같은 표현은 머슴들의 행동에 대한 추측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머슴들로 인한 피해를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피하기 ① [A]에서는 ‘할아버지’, 즉 조상이 터를 닦아 집을 지어 내 살림을 일으키고 이를 자손에게 물려주어 대대로 내려오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③ [C]에서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가 새어 썩은 집’과 ‘옷 벗어 무너진 담’, ‘누가 고쳐 이며’와 ‘누가 고쳐 쌓을까’ 간의 대응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시적 맥락 속에서 문제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마노라’와 관련하여 ‘옥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리’라는 설의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를 통해 밤낮으로 ‘크게 기운 집’에 대한 걱정을 도맡고 있는 ‘마노라’의 심리적 부담감을 부각하고 있다.

⑤ [E]에서는 앞 구절의 마지막을 이어지는 구절에서 반복하여 받는 연쇄법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자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밝히고 있다.

가 안서우, 「유원십이곡」

해제 | 이 작품은 작가 안서우가 은처에 칩거하며 그곳에서의 생활을 노래한 총 13수의 연시조이다. 전반부에서는 출사를 포기하고 강호에서의 삶을 살겠다는 태도를 밝히며 강호에 은둔하는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 보여 주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현재의 삶이 지난날의 벼슬살이보다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생각도 드러내지만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이 귀찮고 눈먼 데다 병어리 노릇까지 해야 하는 건딜 수 없는 상황임도 노래하고 있다. 이는 작가가 자연에 은둔하였지만 현실 사회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주제 | 강호에서의 삶의 모습과 그 속에서 느끼는 감흥

- 구성 | 제1장: 출사에 대한 체념과 성대농포에의 다짐
 제3장: 자연에서 시름없이 늙어 가며 느끼는 즐거움
 제6장: 자신의 생활에 대해 안분지족하는 태도
 제8장: 어제 잘못된 것이 오늘 옳게 됨을 깨달음.
 제9장: 벼슬을 그만두지 못하는 마음
 제11장: 자연에 묻혀 사는 흥겨움

나 성현, 「조용」

▶ 수록 「세 선비의 꿈」의 유사 작품

해제 | 이 작품은 15세기의 학자인 성현이 '나'와 '게으름 귀신' 사이의 대화를 활용하여 통념을 뒤집는 참신한 발상을 보여 주고 있는 고전 수필이다. 이 작품은 어느 날 게으름의 귀신이 든 것을 알게 된 글쓴이가 무당을 통해 게으름 귀신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자 게으름 귀신이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말문이 막힌 글쓴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근면은 도리어 화근이 되며, 물러나 앉아 사람들이 시비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물욕에서 벗어나 사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으름 귀신의 말을 '나'가 인정하는 것은 글쓴이가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 제시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 | 게으름이 가져다주는 유익함

전체 줄거리 | 어느 날 잠이 든 '나'는 정신이 산란하고 병이 든 것처럼 원기가 상하자, 게으름의 귀신이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라 생각하여 무당을 불러 자신에게서 나갈 것을 말한다. 그러자 게으름의 귀신은 게으름 덕분에 오히려 '나'가 물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이라 말하며 자신을 질책하는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 이에 '나'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살아갈 것이라 말하며 게으름의 귀신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문제 수록 부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성현이 엮은 「세 선비의 꿈」이 꿈 해몽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꿈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전달하고 있는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인 「산은 적적 월향훈에～」와 조선 시대 후기의 유배 가사인 안도환의 「만언사」를 함께 제시하여 작품에 나타난 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세 선비의 꿈」은 성현이 편찬한 『용재총화』에 수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에서 꿈을 해몽하는 사람은 통념을 뒤엎은 발상으로 세 선비들이 꾸 꿈을 해몽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통념에서 벗어나 게으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성현의 「조용」과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조용」은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던 작품으로, 안서우의 「유원십이곡」과 연결 지어 표현상의 공통점과 구절의 의미를 비교하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조용」의 대화 구조를 분석한 <보기>를 통해 이 작품이 '나'와 '게으름 귀신'의 대화라는 구조를 활용하여 게으름에 대한 사색의 결과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기>를 통해 이 작품이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다면 어렵지 않게 작품 전체의 내용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0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가)는 속세를 상징하는 '홍진', '인간' 등과, 자연을 상징하는 '백운', '녹수', '청산', '물외' 등의 대조적 소재를 통해 강호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도 '근면'과 '게으름'이라는 대조적 소재를 통해 삶에서 게으름이 유익한 경우도 있다는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가)에는 명령적 어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는 글쓴이의 은거지, (나)는 글쓴이의 집을 공간적 배경으로 볼 수 있으며, 둘 다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는 '게으름의 귀신'이라는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되어 있으나, (가)는 독백체로 구체적인 청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의 변화를 통해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지 않는다.

18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제9장>의 종장은 벼슬을 버리고 떠난 도연명과 소광의 처신을 누구나 부러워하는 당당한 태도(‘호연 행색’)로 여기고 있다. 속세에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오답 피하기 ① <제1장>의 초장은 ‘문장을 짓고자 하니, 사람은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근심이 시작됨이 오’라는 의미로, 화자가 강호를 선택해 은거하게 된 계기로 볼 수 있다.

② <제3장>의 종장 ‘시름 업시 늘거 가니’에서 강호를 선택하였을 때의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제6장>의 종장은 ‘싫거나 즐겁거나 내 분수인가 하노라’라는 의미로, 화자 자신이 분수에 맞는 선택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제9장>의 종장은 ‘(도연명과 소광의 태도가 부럽다는 것을) 알고도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하니 나도 몰라 하노라’라는 의미로,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리고 <제11장>의 종장은 ‘이제는 가려서 정하니 일흥(세속을 벗어난 흥취)을 참기 어려워하노라’의 의미로,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182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⑤

정답 해설 ‘유정코 무심한 것은 ‘무심코 유정’한 것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관심이 없음을 의미한다. 즉 ‘유정코 무심한 것은 ‘인간의 벗’, ‘봉우’에 해당하는 특성이다. ‘물외에 벗’은 ‘백운’, ‘구로’와 같은 자연물이며, 화자가 이들과 ‘위우’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들이 무심한 듯 보이지만 정이 있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① <제6장>의 초장은 ‘인간 세상에 벗이 있다 하나 나는 알기를 싫어한다.’의 의미로, 이를 통해 화자가 ‘인간의 벗’과 절교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② <제8장>의 초장의 ‘풍진’은 <제3장>의 초장의 ‘홍진’처럼 속세를 상징한다. 그리고 화자는 ‘풍진’의 ‘봉우’가 ‘유정코 무심’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봉우’를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제3장>에서 화자는 ‘백운’과 ‘위우’하여 자연 속에서 시름없이 늙어 가며 ‘무한지락’을 느끼고 있다.

④ ‘구로’는 무심한 듯 보이지만 정이 있는 자연물로, ‘물외에 벗’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물외에 연하’ 쪽한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83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은 화자가 과거의 생활이 그르고, 현재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생활이 옳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은 ‘나’가 ‘게으름 귀신’이 반박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잘못을 고치겠다고 반성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의 화자가 공자와 맹자를 배운다는 것은 성인의 도를 익히는 것인데, 이는 태평성대에 농사를 지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 ㉡의 ‘나’는 ‘그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며 ‘게으름 귀신’이 말한 제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나)의 ‘굳센 쇠’와 같은 변치 않는 삶은 게으름을 멀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가 이를 다짐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③ ㉠의 화자는 ‘녹수 청산’에서 시름없이 ‘무한지락’을 느끼고 있으므로, 그곳에서의 삶을 즐거워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의 ‘나’는 ‘깨끗한 것은 더러워지기 쉽고, 우뚝한 것은 꺾이기 쉽습니다.’라는 ‘게으름 귀신’의 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깨끗한 것’을 ‘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없다.

⑤ ㉠의 화자는 ‘풍우 다’한 인간 세계에 머물지 않겠다고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풍우 다’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의 ‘나’는 현재 물러나 앉은 상황으로 ‘시비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시비의 소리’에 흔들렸던 ‘나’가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18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보기>에 따르면 게으름의 양면성은 경계

해야 할 부정적 측면과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 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아울러 의미한다. ‘나’가 게으름 귀신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멋대로’ 행동하는 게으름을 탓하는 것으로 보아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과 연결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나’가 게으름 자체를 자신의 ‘허물’이라고 여기지는 않았고, 또 이것을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과 연결할 수도 없으므로, ③은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슴이 돌에 눌린 것처럼 답답한 게 게으름의 귀신이 든 것이 틀림없었다.’라고 판단한 ‘나’가 ‘무당’을 내세워 ‘귀신’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이것은 글쓴이가 자신의 게으른 생활에 대해 살피보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② ‘게을러서 집을 수리할 생각도 못하며, 솔밭이 부러져도 게을러서 고치지 않고, 의복이 해져도 게을러서 깎지 않으며, 종들이 죄를 지어도 게을러서 묻지 않고’ 등 ‘나’가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행위를 나열한 것은 글쓴이가 게으름의 폐단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나’가 게으름을 통해 물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⑤ ‘세상 사람들은 물욕에 휘둘려서 이익을 얻기 위해 날뛰지만’은 맹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세태를 비판한 표현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걱정이 없어 제정신을 잘 보존하니’라는 ‘게으름 귀신’의 말에는 이익을 얻기 위해 다투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비판적 시각이 담겨 있다.



적용 학습 49

본문 181~183쪽

정한숙, 「백자도공 최술」

▶ 수록 「고가」의 유사 작품

| 해제 | 이 소설은 고려청자의 맥이 끊어지고 난 뒤 여러 도공들이 단순히 관의 지시에 따라 습관적으로 도기를 만들고 있을 때, 창조적 열정으로 새로운 자기를 만들어 내는 데 힘써 마침내 백자를 만들어 낸 ‘최술’의 삶을 그리고 있다. ‘최술’은 창조적인 예술인으로 예술적 안목과 비판적인 시각을 함께 갖고 있는 인물이다. 작가는 이 인물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조적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주인공은 이런 유형의 인물이 되어야만 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 주제 | 백자 도공 최술의 창조적인 예술혼과 열정

| 전체 줄거리 | 광성식은 조선 시대의 도자기에 관한 논문을 쓰기 위해 답사를 다니던 중 우연히 백자 도공 최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도공의 아들이었던 최술은 어릴 때 청아한 푸른빛을 가진 아름다운 사기 조각을 보고 반한다. 17세 때 아버지의 대를 이어 도공이 된 최술은 어릴 때 보았던 푸른빛의 사기를 떠올리며 그런 솜씨를 부리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워한다. 조정에서는 도기를 만들 때, 하나부터 열까지 제요직의 지시에 따르게 하고, 최술은 독창적인 것을 만들지 못하는 것에 괴로워했다. 25세가 된 최술은 경기도 광주 땅으로 옮겨 왔다. 그때 사옹원에서 내려온 한 관원이 최술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전용으로 쓸 각령과 가마를 내려 준다. 백일이 지나 그가 끄집어낸 기물들을 본 관원과 일행들은 그 아름다움에 놀란다.

★ 문제풀이 최술의 이야기를 들은 성식은 황폐해진 관요 터에서 추위를 잊는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정한숙의 「고가」를 「문학이 바라보는 역사적 경험」이라는 글과 신석정의 「산은 알고 있다」와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정한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체험과 사라져 가는 전통적 가치를 소설화한 작가입니다. 전통적 가치로서 ‘종가’를 소재로 하고 있는 「고가」는 그런 점에서 2012학년도 3월 고2 학력평가에 출제된 「백자도공 최술」과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져 버린 우리의 전통 예술인 백자의 예술적 가치를 끄집어내기 위한 예술가의 창조적 열정과 그것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한다면 정한숙의 다른 작품들에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5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최술과 박고남, 최술과 아내 사이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술이 송훗골에서 자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과 광주 땅에서 투조백자 필통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요약적 진술이 사용되고 있다. 소설에서 대화를 사용하면 사건의 전개 속도가 느려지는 반면, 요약적 진술을 사용하면 사건 전개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사건이 순차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두 개의 사건이 교차하여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④ 이 글에서는 시점의 변화 없이 전지적 서술자 시점이 사용되고 있다.

⑤ 장면의 전환이 빈번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인물 사이의 고조된 긴장감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186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박고남은 '유약 비법'을 되살릴 수 있는지를 묻는 최술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는 대신 최술의 신분이 '국록을 먹는 요에서 일하는' 도공임을 말해 주고 있다. 이것은 도공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를 만들 수 없으며, 오직 관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서만 자기를 만들 수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약 비법'이 사라진 것은 관의 요구 때문임을 스스로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박고남이 최술의 질문에 귀찮아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최술의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지 않고, 박고남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지도 않다.

④ 박고남은 최술의 질문이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공감하는 뜻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박고남이 특별히 권위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187

작품 배경의 의미, 역할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유약 비법'이 단절된 것은 '청자'의 변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폐쇄적인 세습 방식이나 자기의 생산 환경 변화에 의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송훗골'에서 최술은 '유약 비법'을 되살릴 수 있는지 묻고 나아가 '스스로 독창적인 것'을 만들려고 하며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③ '광주 땅'에서 최술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투조백자 필통'을 만들어 내지만 '무엇인지 모르게 흡족 못' 한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백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광주 땅'에서 최술은 '흰 구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투조백자 필통'을 만들어 낸다.

⑤ '송훗골'에서 '청자'를 넘은 새로운 자기를 만들려는 최술의 노력이 '광주 땅'에서 '투조백자 필통'으로 결실했음을 알 수 있다.

18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보기>는 정한숙의 '예술가 소설'이 지닌 특징에 대한 것으로, '예술가 소설'은 예술가가 겪는 내·외면적 갈등을 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은 최술이 새로운 자기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관계가 없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예술가가 겪는 세계와의 갈등을 나타낸다.

④ 예술가가 겪는 내면적 갈등을 나타낸다.

가 소설의 공간

▶ 수록 「현대 소설에서 고향의 의미」의 유사 제재

| 해제 | 이 글은 현대 소설에서 공간의 개념과 의미, 특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소설에서 공간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소설의 공간적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최명익의 「장삼이사」, 이청준의 「눈길」을 예로 들어 소설의 공간이 서사 전개나 인물의 심리, 내면세계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주제 | 소설의 공간의 개념과 특징

| 구성 | • 1문단: 소설에서 공간의 개념과 의미

- 2문단: 최명익의 「장삼이사」에 나타난 공간적 특성
- 3문단: 이청준의 「눈길」에 나타난 공간적 특성

★교재 수록 부분

나 최명익, 「장삼이사」

| 해제 |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삼등 열차를 타고 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일상적 사건을 '나'의 시선으로 그려 낸 소설이다. 이 작품은 부도덕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낱살 좋게 떠들어 대는 장면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 타락한 언행을 비판적으로 그리는 한편,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나'는 그들을 '구두', '당고 바지', '가죽 재킷' 등 사물화된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점은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는 표면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기차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우연히 만난 다양한 인물 군상을 '나'의 심리를 통해 그려 나가는 데서 이 작품의 묘미를 찾을 수 있다.

| 주제 | 하층민의 삶의 애환에 대한 관찰과 묘사

| 전체 줄거리 | 기차는 안이 지저분하고 혼잡한 채로 정거장을 떠난다. 기차 안에서 한 젊은이가 내뿜은 가래침이 '나'와 마주 앉은 신사의 구두 콧등에 떨어지고, 그 가래침을 털어 내느라 일대 혼란이 벌어진다. 두꺼비 상판의 신사는 옆자리의 젊은 여자를 감시하는 눈빛인데 차표 검사가 시작되었을 때 여자는 화장실에 간 신사가 가져가서 차표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자 기차 안에 있던 '당고 바지', '가죽 재킷' 등이 신사에 대해 험담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신사가 돌아오자 모두 입을 다문다. 그러나 신사는 장사하기가 쉽지 않다며 도망간 여자를 다시 찾아오는 일이 힘들다고 말한다. S역에 도착하자 한 청년이 다가와 옥주년이 달아났다고 하자 신사는 청년의 뺨을 친다. 청년은 신사가 내리고 난 뒤 여자의 뺨을 몇 차례 때리는데 '나'의 눈과 마주친 여자의 눈은 울음을 참고 있다. 여자는 화장실로 가는데 '나'는 여자가 말끔히 화장까지 하고 돌아오자 반가워한다.

다 이청준, 「눈길」

| 해제 | 이 작품은 1977년에 발표된 단편으로, 작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다. 이 작품은 어머니에게서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은혜를 갚을 도리도 없다고 생각한 주인공이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과거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상기하게 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고향에 내려간 '나'가 과거 자신을 맞이하고 배웅하던 어머니의 마음을 뒤늦게 알게 됨으로써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인 '눈길'은 어머니가 자신의 불행을 묵묵히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내는 길이며,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상징한다.

| 주제 | 눈길에서의 추억을 통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 전체 줄거리 | '나'는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은 일이 없어 값은 은덕도 없다고 생각하며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부른다. 고향에 오자마자 다음 날 가려는 아들에 대해 노인은 서운해하면서도 역시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 일이 없다는 생각에 금세 체념한다. 그런데 노인은 아들에게 마을의 지붕 개량 사업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이를 기회로 집을 고치려는 계획을 던지시 말하는 노인에게 '나'는 노인에게 받은 것이 없고 그래서 값야 할 빛도 없다고 외면한다. 그런데 아내는 '나'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 이야기를 자주 물어본다. 노인은 과거에 집을 팔게 된 사연과 남의 집이 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하룻밤 재우고 보냈던 일을 이야기한다. 노인은 아들이 떠나는 날 새벽, 아들과 함께 눈길을 걸어 아들을 떠나보냈던 일을 회상하며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고 아들의 앞날을 빌며 돌아왔음을 말한다. 자신이 떠난 뒤의 일을 알게 된 '나'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현대 소설에서 고향의 의미」를 이호철의 「탈향」, 이청준의 「눈길」과 함께 수록하여 소재의 기능, 구절의 의미, 서술상의 특징 등을 묻고 있습니다.

'고향'은 소설의 공간으로서의 개념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 소설에서 고향의 의미」를 2020학년도 수능특강 문학에 수록된 「소설의 공간」과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공간이 단순히 소설의 배경에 그치지 않고 인물과 사건, 분위기 등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설 속 공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면 소설의 의미망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⑤ (다)에서 아내는 눈길에서 아들을 보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세차게 흔들며 깨운다. 이러한 행동은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어머니를 매정하게 대했던 ‘나’를 일깨우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내가 어머니와 ‘나’의 갈등을 ‘나’의 잘못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아내가 귀향의 행위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상황 인식을 보이고 있음은 확인하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나)의 ‘방심 상태’는 ‘나’와 찻간 안의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행동에 호기심을 보이기보다는 ‘제 본색으로 돌아가 각각 제 버릇을 회복하게 되는 것’, 즉 스스로에게만 몰두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② (나)에서 ‘발작적으로 통로 바닥이 빠져라고 광광 뛰놀았다.’라는 말은 구두에 떨어진 가래침을 털어 내려는 중년 신사의 행동을 묘사한 것이다. 이러한 묘사는 ‘나’가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가래침 사건에 특별히 개입하는 일 없이 기차라는 공간에서 마주치는 인물을 관찰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③ (나)에서는 ‘구두’, ‘당고 바지’처럼 인물들을 사물로 명명한다. 이것은 기차가 익명의 공간으로서 우연히 만났다가 또 쉽게 헤어지는 현대인의 인간관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곳임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다)의 ‘한사코 기억의 피안으로 사라져 가 주기를 바라’는 ‘나’의 바람은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할 수도 있는 눈길에 대한 기억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머니에 대해 애써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인물의 심리를 나타낸다.

19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㉔은 어머니가 아들을 배웅하고 난 뒤 동네에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던 곳이다. 햇살이 부끄러워 동네로 바로 들어가지 못한 것에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 삶에 대한 한스러움이 담겨 있다.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과 갈등을 벌였거나 이를 해소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㉓은 무질서와 혼란 끝에 ‘나’가 자리 잡게 된 공간으로, ‘삼등’이라는 말처럼 가난한 서민 계층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찻간이다. 이를 통해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계층을 짐작할 수 있을뿐더러 무질서와 흥분도 차차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데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위기가 변화하는 양상도 살펴볼 수 있다.

② ㉒은 찻간의 출입구인데 ‘나’는 여기에 위치함으로써 찻간 안에서 인물들이 벌이는 대화나 행동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할 수 있게 된다.

③ ㉑은 마을에서 외부로 차를 타고 나가는 공간으로, 어머니가 ‘나’를 오랜 시간에 걸쳐 동행하여 배웅하는 곳이다. 즉 집안이 망해서 아들을 새벽에 떠나 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의 고통이 담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은 동네 안의 작고 누추한 공간으로, 아들을 보낸 후 어머니가 동네로 돌아가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한 몸이나마 의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191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젊은이와 동행인 듯한 노인은 중년 신사의 서술에 젊은이가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자 자신의 보꾸러미에서 낡은 신문지를 한 줌 찢어 젊은이에게 준다. 그래서 젊은이는 중년 신사 앞으로 가서 조심히 신문지를 내밀게 된다. 중년 신사의 구두에 가래침이 묻은 일로 인해 노인이 젊은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질책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나’는 정거장에서 길을 떠나는 사람의 서러운 표정을 찾아 구경하려는 호기심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나’는 정거장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젊은이는 자신의 실수로 중년 신사의 구두에 가래침이 묻자 미안한 마음으로 신문지를 내거나 중년 신

사가 구두를 필요 이상으로 씻는 행동으로 인해 모욕감을 느끼는 등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된다.

④ 당고 바지는 구두에 묻은 침을 떨어 내려고 과장되게 행동하는 중년 신사를 걷는질하며 반감을 표시하나 정작 시선이 마주쳤을 때는 이를 외면한다.

⑤ 캡 쓴 젊은이는 가죽 재킷 입을 젊은이가 코를 풀자 이에 킬킬 웃으면서 자신도 동조하여 휴지로 코를 풀어서는 통로 바닥에 버리는 행동을 한다.

192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다)는 '나'가 과거 눈길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점차 어머니의 사랑과 배려에 대해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회한을 느끼는 인물의 내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다)는 과거 사건의 전말을 전달하고 있으나 1인칭 시점이 유지되고 있다. 장면마다 시점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② (다)는 이야기 안의 인물이 서술자로 등장하며,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한다. 이런 점에서 사건을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다)에서는 특별히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서술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다)는 눈길과 관련된 서술자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상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19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그놈의 말간 햇살이 부끄러워져서' 동네 골목에 들어설 엄두가 안 생겼다는 어머니의 말은 아들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떠나보냈다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 부분에서 어머니가 아들과 끝까지 동행하려 했다가, 끝까지 동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한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모

습은 어머니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거리감을 두려는 '나'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점은 '나'가 어머니에게서 사랑을 받은 일이 없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어머니가 길을 떠나는 '나'에게 '서둘러 밥 한술씩을 꿀여다가 속을 덮히'고 그 눈길을 가도록 하는 것은, 길 떠나는 아들을 굶기지 않고 한 끼라도 더 먹여 보내려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나타낸다.

③ 어머니가 '차분하고 아득한 음성으로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가는 모습은 아들과 아쉬운 이별을 했던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것이다. 과거를 회상하는 어머니의 말에서 아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짐작할 수 있다.

④ '나'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뜨거운 것을 숨기기 위해 눈꺼풀을 꼭꼭 눌러 참'는 것은 여태껏 이기적인 태도로 어머니의 사랑을 애써 외면해 왔던 자신을 생각하며 자책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적용 학습 51

본문 190~192쪽

이호철, 「나상」

▶ 수록 「탈향」의 유사 작품

| 해제 | 1956년에 발표된 이 소설은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만난 형제가 이송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특히 천진난만한 '별거숭이 인간'인 '형'이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을 묘사하여 근원적인 인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준다. 또한 이 소설은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을 빌려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제 | 근원적인 인간성의 소중함

| 전체 줄거리 | 어느 여름 저녁에 '나'는 철에게서 전쟁 때 북한

군 포로로 잡혀 이송되었던 형제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어수룩한 행동을 하는 형을 동생 칠성은 처음에 탐탁지 않게 여기지만 자신을 위하는 형의 인간적인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고 그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게 된다. 담중에 걸린 다리가 굵아 잘 걸을 수 없게 되자 형은 자신에게 일이 생기면 모른 체하라고 동생에게 당부한다. 형은 결국 행군 중 쓰러지게 되고 경비병의 총에 맞아 죽음을 맞는다. **★교재수록부분** 이야기를 마친 철은 이야기 속의 동생이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하며,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이 옳은 것이었는지에 대해 회의한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이호철의 「탈향」이 고향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탈향」을 「현대 소설에서 고향의 의미」, 이청준의 「눈길」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이호철은 자신의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가족의 이산과 실향민들의 정착을 주로 다루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탈향」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나상」과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고향, 가족, 친지로 대표되는 인간의 관계망과 그것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으로 인해 어떻게 해체되고,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를 이해한다면 이호철의 또 다른 작품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4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이 작품은 형제가 포로로 이송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글에서 형은 천진난만한 순수함을 지닌 인물로 동생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다. 우는 동생을 나무라면서 본인이 우는 행위, 동생 귀에 속삭이는 행위, 동생의 허리나 허벅다리를 쿡쿡 찌르는 행위 등을 반복 서술하면서 형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이 글에서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글에서는 내적 독백이 아니라, 형과 동생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③ 이 글에서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이 글에서 간접 인용이 활용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고 형과 동생의 대화 내용이 직접 서술되어 있다.

195

소재의 의미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이 글에서는 형과 동생의 갈등 구도라든가 갈등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형은 동생을 기특하게 여기고 동생 역시 형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형이 눈이 흘날리는 것을 보며 울음을 그치고 ‘눈이 내린다’라며 좋아하는 것으로 보아 ‘첫눈’은 형에게 동심을 불러일으킨 매개체라 할 수 있다.

③ ‘들판’은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이라는 말에서 황량하고 쓸쓸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④ ‘형의 걸음’이 자꾸 처지는 것은 형의 담증 때문이고, 결국 처지는 걸음으로 인해 형은 경비병의 따발총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⑤ 형이 죽게 되는 시점에 내리는 ‘함박눈’은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196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동생은 차츰 자신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형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 아파하는 형의 모습에 동생은 안타까움을 느낄 뿐이다. 따라서 이 글을 시나리오로 각색했을 때 ㉔를 동생이 형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모습으로 처리하는 것은 글의 흐름상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㉓는 자신에게 속삭이는 형에게 대답하지 않고 누워 있는 동생의 반응이므로 잠든 척 누워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다.

② ㉖는 형의 다리에 이상이 생겼다는 말에 대한 동생의 반응으로, ‘나’는 형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적절하다.

③ 춥다면서 동생을 끌어안는 형에게, 공감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은 적절하다.

④ 아파하는 형을 바라보지만 아무것도 해 줄 것이 없다고 여기는 상황이므로 동생의 안타까운 눈빛을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다.

19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이 글에서 작가는 북한군의 포로가 된 형제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그리고 있다. 형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동심을 잃지 않는다. 또한 포로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은 인간성을 파괴하려는 폭력에 대해 어떠한 저항의 행위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보기>에서는 형을 천진난만한 벌거숭이 인간으로, 근원적인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보고 있다.

② '경비병'은 형제를 구속하는 존재이므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억압하고 길들이는 감시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은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에 대한 상징이라 볼 수 있다.

⑤ 이 글은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여, 근원적인 인간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의 충격에서 비롯된 공포증의 원인을 밝혀낸다. 이 소설은 진실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바로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서 다시 발견하고 있다. 이 글에 제시된 부분은 김 박사와 '나'가 박준의 전깃불에 대한 병적인 증세를 발견하고, 그 원인을 추측하는 부분과, '나'가 박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전깃불의 실체에 대해 단서를 찾고 있는 부분이다. 김 박사는 박준의 비밀을 직접적으로 털어놓게 하려는 방법을 세우고 있는 반면, '나'는 그의 소설들을 단서로 비밀에 접근하려 하고 있다.

| 주제 | 진실한 말을 할 수 없는 억압적 상황에 대한 비판

| 전체 줄거리 | '나'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며 도와 달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 자신의 방에 재운다. 다음 날 '나'는 그가 정신 병원에서 탈출한 소설가 박준이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진술 공포증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열심히 작품을 발표하던 박준이 정신병에 걸린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그의 소설 세 편을 읽는다. 그리고 소설을 통해 그의 병의 원인이 어릴 적, 밤중에 전깃불을 들고 들이닥쳐 좌익이나, 우익이나를 따지던 정체를 사내들에게 느꼈던 공포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문제수록**

부분 이러한 사실을 '나'는 박준의 담당 의사인 김 박사에게 알리지만, 김 박사는 자신만의 치료 방법을 고집한다. 끝내 김 박사는 박준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전깃불을 들이대고, 그날 밤 박준은 병원을 탈출한다. '나'는 그가 다시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하다 그의 병세를 악화시키고 말았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한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이청준의 「눈길」이 고향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현대 소설에서 고향의 의미」, 이호철의 「탈향」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이청준의 소설은 주로 자기 고백적인 문체로 인간을 억압하는 근원적인 상황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에 출제되었던 「소문의 벽」과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인간의 삶이 지닌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소설 속 인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면 이청준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용 학습 52

본문 193~195쪽

이청준, 「소문의 벽」

▶ 수특 「눈길」의 유사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삶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작가가 글을 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소설이다. 소설가 박준은 억압된 상황과 작가의 사명 의식 사이에서 절망한 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의식의 병리 현상을 겪고 있는 인물이다. 소설의 이야기는 이 주인공의 정신적인 병리 현상을 분석해 들어가면서 그러한 현상의 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인물의 의식의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 전쟁 당시

198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김 박사는 박준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젠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깃불의 내력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은

찾아 놓고 있는 셈이니까요.’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박준이 느끼는 공포감의 비밀을 밝힐 방법을 찾았다고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나’는 박준의 소설들과 ‘전짓불’ 사이에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김 박사의 해결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나 역시도 어젯밤 우연히 그런 발작이 나기 전까지는 환자가 특히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라는 김 박사의 말로 보아 김 박사도 박준이 어둠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다.

④ 어머니의 상황이 절망적이었던 것은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⑤ ‘나’는 ‘전짓불’에 대한 것이 궁금했었는데, 신문지 조각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다. ‘나’가 실망한 것은 신문 기사가 별로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

정답 ③

정답 해설 특정 부분이 가지는 서사적 기능은 다른 부분과의 연결을 통해서 파악해야 한다. [A] 부분은 앞 부분에서 의문으로 남겨 두었던 문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어둠 속에서 전짓불을 보고 발작을 일으켰던 주인공이 과거에 전짓불을 보고 공포를 느꼈던 적이 있음을 [A]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A] 부분은 주인공의 두 경험을 연관 지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우리 고향’이라는 말은 있지만 그곳이 어떤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서사의 흐름으로 볼 때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인물이 자기 자신의 일을 고백하는 내용이므로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한 것은 아니다.

④ [A] 부분은 주인공의 시점에서 서술된 것으로,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구성한 것은 아니다.

⑤ [A] 부분에는 이질적인 시선이 없으며, 역사적 사건의 전모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도 아니다.

20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박준은 ‘위험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전짓불의 공포와 자기가 현재 소설을 쓰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 엄청난 공포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험한 질문’의 의미를 추론해 보면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정신적 외상을 건드리는 질문이나,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억압적인 상황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 박사는 박준이 전짓불의 실체를 포함한 일체의 비밀을 털어놓게 할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김 박사가 모색한 방법은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질문’을 통해 말문 트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전짓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박준의 진술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② 박준은 소설을 쓰면서 전짓불 앞에 있는 듯한 공포를 느끼면서도 자기 진술을 한다. 이 과정은 <보기>에서 말한 치유 방법으로서의 말문 트기라고 할 수 있다.

③ 박준은 ‘자기 진술’을 하면서도 전짓불의 공포에 시달리는데, 이것은 <보기>에서 말한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공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박준의 외상은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의 대결, 즉 분단과 이념 대립으로 인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실전 학습

- 001 ① 002 ① 003 ④ 004 ② 005 ① 006 ⑤
 007 ③ 008 ⑤ 009 ③ 010 ③ 011 ② 012 ④
 013 ① 014 ④ 015 ③ 016 ③ 017 ① 018 ④
 019 ③ 020 ④ 021 ① 022 ① 023 ③ 024 ②
 025 ⑤ 026 ③ 027 ④ 028 ④ 029 ⑤ 030 ③
 031 ③ 032 ⑤ 033 ② 034 ⑤ 035 ① 036 ③
 037 ① 038 ⑤ 039 ③ 040 ②

실전 학습 01

본문 198~201쪽

작자 미상, 「소대성전」

▶ 수특 「소대성전」의 동일 작품

해제 | 이 작품은 영웅의 일생을 모티프로 한 군담 소설로,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은 군담 소설이 지닌 전형에 따르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특이한 점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인공 대성이 이 승상의 집에서 밥 먹고 잠만 자는 위인으로 나오는 대목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물이 흉중에 큰 뜻을 품고 있다가 영웅적 면모를 보인다는 인물 설정은, 지체나 처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작가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제 | 고난을 극복한 영웅의 활약상

전체 줄거리 | 동해 용왕의 아들이었던 소대성은 명나라 때 병부 상서를 지낸 소양의 아들로 적강한 후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을 보여 준다. 그러나 부모가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대성은 유리걸식하며 세상을 떠돌게 된다. **수특수특부분** 소양의 옛 친구인 이 승상은 소대성을 집으로 데려와 자신의 딸 채봉과 혼인시키려 한다. 그러나 승상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승상의 부인과 세 아들은 자객을 보내 대성을 죽이려 하고, **교재** **수특부분** **수특수특부분** 대성은 자객을 물리치고 집을 떠나 영보산 청룡사에서 병법과 무술을 공부한다. 호국이 중원을 침공하자 대성은 보검과 갑주, 명마를 얻은 후 **교재** **수특부분** 적군을 격파하고 황제를 구한다. 노국 왕에 봉해진 대성은 채봉과 재회하여 인연을 성취하고, 선정을 베푼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작자 미상의 「소대성전」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작품의 세부 내용 및 인물들의 대화의 특징, 영웅 소설의 고난 구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조선 후기의 영웅 소설인 「소대성전」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A형에 출제되었습니다.

서술상의 특징과 인물의 특성 파악, 공간의 상징적 의미, 속담을 활용한 작품 이해 여부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출제된 부분이 영웅 소설의 고난 구조 중 '조력자의 도움' 부분에 해당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면 실수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0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A]에서는 '나무 베는 아이'(대성)의 의상, 머리털, 얼굴빛 등과 같은 인물의 외양을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으며, [B]에서는 대성을 만난 승상의 발화를 통해 재회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B]에서는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A]에서는 요약적 서술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시대적 배경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A]와 [B] 모두 인물 간의 대화가 드러나지 않으며 또한 인물 간의 갈등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A]에서는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을 바탕으로 현재 사건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B]의 경우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은 대성의 생각에서 드러나며, 두 사람의 만남의 원인은 승상의 발화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내용이 인과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다.

002

인물의 특성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나무 베는 아이'의 '추레함'을 보고도 이를 회피하거나 동정하지 않고 그 옆에서 아이의 옷에 있는 이를 잡아 주며 아이가 잠을 깨기를 기다리는 승상의 모습을 통해 그의 따뜻한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내 자식이 무도하여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된 의사를 두었으니'라는 승상의 말을 볼 때, 과오를 범한 것은 승상이 아니라 승상의 자식이다. 따라서 승상이 대성에게 부끄러워하는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③ ‘공명을 이루고 용문에 오르면 딸과의 신의를 잊지 말라.’라는 승상의 말은 먼저 큰 업적을 이루고 높은 지위에 오른 후 그다음으로 자신의 딸과의 약속을 지켜 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딸과의 신의’를 잊지 않아야 공명을 이룰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만 리 청춘마를 얻으면 그대 재주를 펼칠 것이니’, ‘동해 용왕이 그대를 위하여 이리 왔으니 내일 오시에 얻을 것이니’라는 승상의 말을 볼 때, 대성은 아직 청춘마를 얻지 않았으며 동해 용왕의 도움은 미래에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소생이 ‘청춘마’를 이미 얻고 ‘동해 용왕’의 도움까지 얻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승상은 대성에게 ‘내 그대를 잊지 못하여 줄 것이 있다’며 ‘보신갑’을 준다. 이것은 대성이 전장에 나가 공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갑옷이다. 따라서 승상은 죽은 후에도 대성을 돕고 있다.

003

공간의 상징적 성격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㉔는 ㉓에서 꿈을 통해 이동한 ㉒와 동일한 공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즉 ㉔는 승상이 꿈을 통해 이동한 초현실 공간(㉒)에서 돌아온 후에 이동한 특정 현실 공간으로, 그가 실제로 경험한 공간이다. 따라서 ㉔는 승상의 정신이 경험하는 꿈속 공간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㉓는 승상이 꿈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공간으로 특정 현실 공간이며, ㉒는 승상이 꿈속에서 경험하는 공간으로 초현실 공간이다. 승상은 꿈을 통해 ㉓에서 ㉒로 나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

② ㉒와 ㉔는 모두 ‘조대’라는 공간이지만, ㉒는 청룡을 본 꿈속의 공간이고 ㉔는 아이를 본 특정 현실 공간이다. 즉 ‘조대’는 특정 현실 공간이면서도 초현실 공간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㉒에서 승상이 본 청룡은 ㉔에서 승상이 본 아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사건의 흐름상 ㉒에서 승상이 만난 청룡은 현실 공간에서 아이임을 암시하고, ㉓에서 초월적 존재인 승상에게 대성이 받은 보신갑은 현실 공간에서 갑옷과 투구임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㉒와 ㉓는 모두 초현실 공간이다.

- ⑤ 승상이 대성을 만난 공간은 ㉓이지만 승상이 사라진 후에 대성이 혼자 있는 공간은 ㉔이다. 또한 ㉓에서 대성이 승상에게 받은 보신갑은 ㉔에서 갑옷과 투구로 남아 있지만 ㉓의 모습은 승상과 함께 사라지고 없다. 따라서 ㉓는 ㉔와 겹쳐져 있는 공간이지만 초월적 존재인 승상이 사라지자 그 공간 역시 사라진 것이다.

004

속담을 활용한 작품 이해

정답 ㉔

정답 해설 ‘자루 속의 송곳’이라는 속담은 아무리 숨기려 하여도 숨길 수 없고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사람을 알아보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승상이 ㉑과 같이 말하는 아이에게 격려로 해 줄 수 있는 말은 아이의 능력이 뛰어난을 모든 사람들이 알 날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곰뽕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는 속담은 무능한 사람도 한 가지 재주는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장마다 꼴뚜기가 나올까’라는 속담은 자기에게 좋은 기회만 늘 있는 것은 아님을 표현하거나 자주 바뀌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비웃는 말이다.

④ ‘차면 넘친다’라는 속담은 너무 정도에 지나치면 도리어 불완전하게 된다는 말이다.

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은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염상섭, 「삼대」

▶ 수록 「삼대」의 동일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삼대에 걸친 가족사를 중심으로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조선 사회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소설이다.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요소는 세대나 이념 등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과 그들 사이의 갈등이다. 계급과 가문을 중시하는 구시대의 전형인 조 의관과 위선적인 개화 지식인인 상훈, 그리고 합리적이지만 보수적인 지식인 덕기의 삼대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 주는 동시에, 덕기의 친구이자 사회주의자인 병화, 조 의관의 첩이자 철저한 물질주의자인 수원집 등의 인물들을 통해 근대적 과도기인 1930년대의 다양한 사회적 갈등 양상을 사실적이고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 주제 | 삼대에 걸친 한 가족을 중심으로 본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

| 전체 줄거리 | 유학생 덕기가 방학을 맞아 귀향했다가 친구 병화 등과 만난다. 덕기는 조부(조 의관)와 그의 후처인 수원집을 비롯한 집안의 뒤엉킨 인간관계와 갈등을 목격한다. **☆수록**

수록부분 수원집과 그녀를 조 의관에게 소개해 준 최 참봉 등은 재산을 빼돌릴 생각으로 모략을 꾸민다. 조 의관이 독살되자 재산 문제 등을 둘러싸고 집안의 갈등이 심화되지만 덕기가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원집 일행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교재 수록부분 **☆수록 수록부분** 여기에 사회주의 운동 사건과 관련하여 덕기와 주변 사람들이 체포된다. 덕기는 무혐의로 풀려나지만, 향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놓고 망연해한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염상섭의 「삼대」를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작품의 내용 파악, 서술상의 특징 파악,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을 묻고 있습니다.

염상섭의 「삼대」는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도 출제되어, 인물의 심리 파악, 구절의 의미 파악, 갈등의 양상 파악,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을 물었습니다. 가족사 소설로서 조 의관, 조상훈, 조덕기의 인물의 전형성을 중심으로 그들의 관계를 당대 시대가 지닌 현실 문제와 연관 지어 이해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삼대」의 다른 장면이 출제되더라도 문제없이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005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의 내용을 보면 상훈의 부친이 족보를 만드는 데 ‘한 천 원’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 그 정도의 돈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남의 족보에 부정하게 이름을 올리기 위해 돈을 사용한 것이 남에게 흉잡힐까 봐 ‘난봉자식이 난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줄여 말한 것이다. 또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구실해 보기는 처음’이라고 반응하고 있으므로 ①과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해당 내용이 포함된 발언의 맥락을 보면 상훈의 부친은 상훈이 ‘오륙천 원’을 학교에 ‘디밀’었던 것은 결국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을 유인하기 위한 부정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유리하게 ~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라는 질문은 일종의 설의법으로 ‘유리하게’ 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B]의 중간 부분에서 덕기가 상훈에게 “할아버지께서 산소에 돈 쓰신다고 반대하시던 걸 생각하시기로…….”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B]의 ‘안방 치장 하나에 천여 원 돈을 묶어서 들인다는 것은 생돈 잡아먹는 것 같고’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B]의 ‘늘 이렇게만 하시면야 어디 드릴 수 있겠습니까?’에서 ‘이렇게만 하시면야’는 문맥상 세간을 들이기 위해 천여 원을 들이는, 즉 낭비하는 상훈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덕기가 ‘정미소 장부’를 내놓지 않으려는 이유가 재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06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의 바로 앞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여자들이 많은데 구차스럽게 세간값으로 부자 충돌을 하는 꼴을 보이기 싫기 때문’이라고 했으므로 세간값을 과하게 쓴 것을 아들이 탓하는 말을 못 하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은 기본적으로 아들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실제 덕기에게 상훈이 세간값을

치를 수 없으면 놓고 가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앞의 맥락을 보면 아들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상훈도 짐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아들의 말에 놀라움을 표시하려는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아들의 말을 막는 것은 남들 앞에서 부자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지 아들과 자신의 의견을 갈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④ 상훈이 아들에게 하고자 한 말은 세간값을 치르라는 것이고, 그 말은 이미 아들에게 했으므로 아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을 참으려는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07

갈등의 양상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B]에서 상훈은 자신이 산 세간의 값을 아들이 계산해 주지 않고 간섭을 하는 것과, 정미소 장부를 내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나무라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아들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다.

오답 피하기 ① [A]에서 상훈의 아버지 조 의관은 아들 상훈이 학교에 돈을 디밀고 자신의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을 유인한 치부를 들추어내며 책망하고 있으나, [B]에서 덕기의 아버지 상훈이 아들 덕기의 치부를 들추고 있지는 않다.

② [A]에서 아들 상훈은 아버지가 족보를 사는 일에 돈을 쓰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을 뿐 아버지를 동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 부분을 보면 [B]에서 덕기는 아버지 상훈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힌 상황에 동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A]에서는 조 의관이 족보를 사는 데 돈을 쓰는 것을 간섭하는 아들 상훈의 말에, [B]에서는 상훈이 세간을 들이는 데 돈 쓰는 것을 간섭하는 아들 덕기의 말에 역정을 내며 못마땅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A]에서 아들 상훈은 아버지가 좀 더 유리한 데에 돈을 쓰지 않고 족보를 사는 일에 돈을 쓰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고, [B]에서 아들 덕기는 아버지가 불필

요하고 과하게 세간살이에 돈을 쓰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00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과 ㉡은 모두 표면적으로는 전지적 서술자 시점을 사용하고 있으나, ㉠은 영감의 시선에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어 체면 때문에 부당한 일을 남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감내하는 영감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은 덕기의 시선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동정하는 덕기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절망하고 타락해 가는 상훈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에서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은 영감으로 일정하고, ㉡ 역시 덕기로 고정되어 있다.

② ㉠에서는 상훈이 아니라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영감의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 관계가 드러나고, ㉡에서는 덕기가 포착한 상훈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난다.

③ ㉠에서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고 있으므로 상훈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에서 덕기는 상훈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하지만 그 심리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상훈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에서 상훈에 대한 영감의 평가는 '옳다'는 것으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에서 상훈에 대한 덕기의 평가는 심리는 이해하지만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4 이육사, 「초가」

해제 | 이 시는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힌 작품으로, 이 창작 장소에서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묘사한 후, 이제는 낡고 닳은 '고향을 그린 묵화'를 보여 준다. 그 그림은 '띠엄띠엄 보이는' 그림 조각으로, 화자가 고향을 떠난 오랜 세월을 고려할 때 이 그림 조각들은 '고향'에 대한 화자의 단편적인 기억이나 인상들을 연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봄날의 보리밭 정경과 나무를 깨고 그네를 타는 소녀들의 모습에서 시작하여 돈 벌러 향구로 나간 젊은이들 이야기, 힘겨운 노동에도 풍부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현실 등을 보여 준 후, 강물조차 얼어붙게 하는 한겨울의 풍경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피폐해진 현실 상황

- 구성 | 1연: 종이 쳐 있는 듯한 고향의 분위기
 • 2~3연: 빈 바구니로 돌아오는 가시내들의 부끄러움
 • 4연: 돈 벌러 향구로 떠나 돌아오지 않는 젊은이들
 • 5연: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하는 어린아이들과 현실에 지쳐 싸우는 늙은이들
 • 6연: 한겨울 고향의 삭막한 분위기

4 김관식, 「거산호 2」

해제 | 이 시는 산에 대한 묘사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시인의 생각과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 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화자는 변함없이 푸름을 간직한 산을 인간과 대비하고, 산의 모습에서 교훈적 덕목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산을 자신의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곳으로 인식하며, 맑고 깨끗한 산의 모습에 동화되어 살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낸다. 이렇게 형상화된 산의 모습에는 자연을 속세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공간이자 인간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동양적 자연관이 투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주제 | 산을 본받고 산과 동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

- 구성 | 1~4행: 산을 향하여 앓음.
 • 5~8행: 산을 보고 배움.
 • 9~11행: 산의 영원함
 • 12~15행: 산을 그리워함.

4 이육, 「담초」

▶ 수록 「이름 없는 꽃」의 유사 작품

해제 | 이 작품은 꽃과 풀을 소재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는 고전 수필이다. 글쓴이는 만물이 하늘로부터 형체를 부여받았듯이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공교함과 즐렬함에 차이가 없는데, 인간이 자의적으로 귀하고 천하다는

구별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꽃과 풀은 조화가 균일한 것이므로, 인간이 꽃과 풀이 위치하는 공간과의 거리나 꽃과 풀의 크기 등에 얽매어 가치의 우열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전달한다.

주제 |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

전체 줄거리 |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꽃 향기가 코를 스치는 시절, '나'는 꿀 베는 자가 낫을 가지고 그 꽃들을 베어 내는 것을 보게 된다. '나'는 만물은 공교함과 즐렬함에 차이가 없음에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어떤 것은 어리석은 종에게 천한 대접을 받는 것은 인간이 널리 베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인간에 의해 천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원망의 심정을 갖지 않는 풀의 덕성을 예찬한다. **★고제 수록부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고전 수필인 신경준의 「이름 없는 꽃」을 작자 미상의 「옹고집전」과 함께 수록하여 두 작품에 나타난 '명분'과 '실질'의 관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또한 「이름 없는 꽃」에서 주제 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서술상의 특징과 구절의 의미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고전 수필의 경우 글쓰이는 일상의 경험에서 깨달게 된 내용을 다양한 서술 방식을 활용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는데, 신경준의 「이름 없는 꽃」은 글쓰이가 고향 집 정원의 이름 없는 꽃을 보며 든 생각을 적은 글로, 사물의 이름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꽃과 풀을 소재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는 고전 수필인 이육의 「담초」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이육의 「담초」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현대시인 이육사의 「초가」, 김관식의 「거산호 2」와 묶여 출제되었는데, 화자(글쓴이)의 태도와 세 작품에 사용된 문학적 표현 방법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작품에 사용된 문학적 표현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009

서술자의 태도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다)에서 글쓴이는 자연물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고 하며 인간이 친하게 대하는 자연물도 있는 반면 소원하게 대하는 자연물도 있다

고 말한다. 이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피는 것으로, 글쓴이는 이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의해 자연물을 차별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는 피폐해진 농촌의 모습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 있지만, 그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나)에서 화자는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인 장거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산의 덕을 배움과 산과 함께 살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으므로, 앞날에 대한 희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는 피폐한 농촌의 모습을 제시할 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도 역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꽃과 하찮게 여기는 꽃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 (다)는 모두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나)에서 화자는 산과 교감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에는 장소에 대한 어둡고 삭막한 이미지가 드러나 있으며,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에는 1문단에 자연과 교감하는 글쓴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01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C]에서 '그녇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 더니', '그녇줄'을 매는 단오절을 전후로 하여 내리는 비에서 가을의 풍년을 기대하는 농민들의 속신(俗信)을 드러낸다. 그러나 다음 행의 '씨레나무'는 홍수가 나서 물에 쓸려 내리는 나무, 혹은 뗏목용 나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은 '홍수가 나서 풍년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 또는 '홍수로 앞내강에 뗏목이 떠밀려 오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 보아 [C]는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해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낸 것도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보기>에 의하면 이육사는 '유폐된 지역'에서 오래전 떠 나온 고향을 떠올리며 (가)를 창작하였다. [A]에서 보듯이, 작품에는 그곳이 '구겨진 하늘' 아래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으로 나타나 있다. '구겨진',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등은 '유폐된' 장소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 시어들로 볼 수 있다.

② [B]에서는 '보리밭', '말매나물 캐러 간/가시내', '종달새 소리' 등으로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봄날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말매나물'은 봄에 낮은 지대의 밭이나 들에서 자라는 '말냉이'의 방언이다.

④ [D]의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에 애써 지은 농사에서 결실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 현실이,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에 현실 너머의 세계(북극)를 꿈꾸는 소년(곰처럼 어린 놈)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⑤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 '강물조차 얼붙는다.'에 나타난 삭막한 겨울 이미지는 <보기>에 제시된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011

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나)에서 화자는 '산'을 '고요하고 너그르'우며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덕성을 가진 존재로 여긴다. 그러나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진 존재로 여기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나)의 화자는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태고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산을 대비하고 있다. 이는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의 9~11행에서 화자는 '산'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다리 놓는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화자가 '그(산)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라고 한 데에서 산을 죽음 이후에도 함께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12행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에서 드러나듯이 화자는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12~15행의 '그리운', '그리며', '그리며 산다' 등의 시어에서 '산'이 그리움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7행에서 보듯이 '산'은 화자가 '본시' 사랑하는 대상이며, 8행에서 보듯이 '평생' 보고 배워야 할 대상이다. 그러기에 화자는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으며, '꿈같은 산 정기'를 그리며 산다. 즉 화자에게 '산'은 평생을 함께하는 존재이면서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이다.

012

작가의 관점, 주제 의식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다)에서 '나'는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가 균일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는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이 '조화가 균일'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치의 우열 또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나'는 모란과 해당화를 견주어 보면서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꽃의 쓰임새에 기준을 두고 꽃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보기 어렵다.

② '나'는 '귀함'과 '친함'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범상한 화초에 이름조차 붙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귀함'과 '친함'에 대한 평가가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은 '나'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

③ '나'는 '낮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풀을 영화롭게 하는 주체가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는 '사사로움이 없는 하늘과 달리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에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보기 어렵다.

01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가)의 1연에서 '목화'와 '박쥐 나래'는 어둠의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다. '목화' 자체가 먹으로 그린 그림이기도 하지만, '고향을 그린 목화'는 '솜이 쳐' 있어서 어둡고 낡았다.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에는 황혼이 지고 어둠에 묻혀 가는 마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러므로 '목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 연결이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나)에서 화자는 '북창'을 열어 '산을 향하여' 앉는다. 9행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12행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등에서 '품'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가)의 '목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2연부터 이어지는 '목화'의 '그림 조각'들을 당대의 시대 현실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서 '북창'을 통해 보이는 '산'이 절망적 상황에 대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에서 '저승의 밤은 '이승의 낮'과 함께 삶과 죽음을 이어 주는 존재로서의 '산'을 말하는 맥락에서 제시되기 때문이다.

③ (가)에서 '고향'을 그린 '솜이 친 '목화'는 오랜 세월이 흘러 낡고 헌 그림이다. 그러므로 '솜이 쳐'는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화자는 '오늘' '북창'을 열어 '산을 향하여' 앉는다. 이는 '장거릴' 등지게 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등에서 보듯이 '산'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나 태도는 '오늘'을 시점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이다.

④ (가)의 1, 2연에 의하면 '그림 조각'은 '고향을 그린 목화'의 '띄엄띄엄 보이는' 조각이다. 그것은 화자가 분절하여 제시한 고향의 이미지가 아니라, 오랜 세월이 낡고 닳아 부분적으로만 떠오르는 '조각'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된, 화자의 상상 속에서 구성되는 '고향'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들로 해석할 수 있

다. (나)에서 화자는 '북창'을 열어 '산'을 바라보고 있다. 그 '산'은 '고요하고 너그리'우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이라고 하여 아늑한 분위기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⑤ (가)의 2~3연에는 '말매나물 캐러 간 / 가시내'가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나도 부끄러워'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다'는 내용이 있다. 시상의 흐름으로 보아 이 역시 '목화'에 그려진 '그림 조각'의 일부이다. '모매꽃'은 '메꽃'의 방언으로, 옅은 붉은색을 띠는 들꽃이다. 그러므로 '모매꽃'을 통해 '가시내'들의 부끄러움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에서 '보옥'은 '산'의 겸허한 덕성을 드러내는 맥락에서 쓰인 시어이므로, 안타까움의 정서와는 상관이 없다.

01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다)에서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은 인간에 의해 귀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호롱불'은 어두울 때 켜는 것이므로 그 속성을 고려할 때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젊은이들은 피폐한 농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객지로 떠도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젊은이들이 탄 '뗏목'은 물결이 거세지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것이므로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장거리'는 물건을 사고파는 장터가 서는 거리로, 이해타산에 따라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적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장거리는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풀은 하찮게 여겨져 여물로 쓰이는 것인 반면, '나비'가 찾는 풀은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가 다투어 찾는 것은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기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전 학습 04

본문 209~212쪽

작자 미상, 「옹고집전」

▶ 수록 「옹고집전」의 동일 작품

해제 | 이 작품은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판소리게 소설로, 욕심 많은 주인공이 자신과 닮은 가짜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 고생을 한 뒤 개과천선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욕심 때문에 다른 이들을 팔시하던 '참옹고집'은 도승이 보낸 '짐옹고집'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참옹고집'은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가난한 이들에게 인심을 베푸는 것이 향촌 사회의 부유층이 가져야 할 책무임을 깨닫게 된다. 진짜와 가짜가 송사를 벌여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모티프로 삼고 있으며, 도술을 통해 핵심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전기적(傳奇的) 성격도 엿보인다.

주제 | 인간의 참된 도리에 대한 교훈, 개과천선

전체 줄거리 | 맹랑촌에 살고 있는 옹고집이라는 이는 성질이 고약하고 인색하여 팔십 노모를 돌보지 않고 승려와 거지를 무시하는 등 악행을 일삼는다. 월출봉 비치암의 학 대사가 옹고집을 찾아갔다가 하인에게 매만 맛고 돌아오자, 도승이 허수아비를 만들어 부적을 붙이니 가짜 옹고집이 생겨난다. 이후 가짜 옹고집은 진짜 옹고집의 집에 가서 서로 진짜임을 다투게 된다. 옹고집의 가족들이 누가 진짜인지를 판별하지 못해 관가에 가서 진기를 겨루는데, 가짜 옹고집이 진짜 옹고집보다 족보를 자세히 알아 진짜로 인정받는다. **☆수록수록부분** 진짜 옹고집은 온갖 고생을 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죽으려 하니, 도승이 나타나 부적을 주어 집으로 돌아가라 한다. 진짜 옹고집이 집에 돌아가 부적을 던지니 가짜 옹고집은 허수아비로 변하고, 진짜 옹고집은 착한 마음을 지닌 새사람이 되기로 한다. **☆교재수록부분**

본문수록부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명분'과 '실질'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작자 미상의 「옹고집전」을 고전 수필인 신경준의 「이름 없는 꽃」과 함께 수록하여 표현상의 특징과 작품에 드러난 '명분'과 '실질'의 관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놀부형 인간인 옹고집의 개과천선 과정을 통해 이기적인 행동과 사회 윤리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부도덕한 인물에 대한 비판과 풍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옹고집전」은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습니다. 수능특강이나 모의평가 모두 참옹(참옹고집)과 헛옹(짐옹고집)의 송사 장면과 옹고집의 개과천선 장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두 장면이 '개과천선을 통한 인간의 참된 도리에 대한 교훈'이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짜 옹고집을 가리는 송사에서 참옹가(참옹고집)가 지는 이유와 옹고집의 개과천선 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제 의식을 파악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015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A]에는 두 옹고집이 송사를 가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때 짚옹고집은 참옹고집보다 앞서 마을 사람들을 아는 척하며 참옹고집이 하고 싶은 말들을 먼저 건넌으로써 참옹고집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서술자는 참옹고집의 입장에서 '날날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 짚옹고집같이도 모르는지라.'와 같이 표현함으로써 참옹고집의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A]에는 두 옹고집이 송사를 가는 중에 보인 행동이 주로 서술되어 있다. 참옹고집과 짚옹고집이 금전적 이해관계로 인해 송사를 벌인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② [A]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누가 알아보리오. 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와 같은 반응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이 짚옹고집이 승소하는 송사의 결과와 관련한 행인들 사이의 상반된 예측 제시는 아니다.

④ [A]에서 참옹고집과 짚옹고집은 서로 어떠한 말도 건네지 않고 있다.

⑤ [A]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외모나 외양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016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㉔은 참옹고집이 집 근처에 왔음을 짚옹고집이 능히 알아차릴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이후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참옹고집을 개과시키기 위해 데려올 것을 사환들에게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㉔을 참옹고집의 거동을 수상히 여겨서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㉑에서 '마누라'는 송사에서 이긴 짚옹

고집을 참옹고집으로 믿고 그간의 고생을 위로하는 말을 건네고 있다.

② ㉒에서 참옹고집은 짚옹고집을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이라고 못마땅하게 여기며 비난하고 있다.

④ ㉓에서 참옹고집이 마을 뒷산에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㉔은 함께 가지는 사환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말이다.

017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참옹고집이 아니라 짚옹고집이 한 말이다. 또한 참옹고집이 스스로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잘 지켜 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참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왔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② 짚옹고집은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다는 말을 통해 참옹고집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참옹고집이 평소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며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③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참옹고집의 재산으로 짚옹고집이 선행을 베푸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참옹고집과 같은 향촌 사회의 부유층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짚옹고집을 통해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짚옹고집이 '팔도 거지들과 각 절 유결승들'에게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주는 모습에서 참옹고집이 쌓아 둔 재물이 많은 향촌 사회의 부유층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전전걸식'은 참옹고집이 겪은 고생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를 통해 집에서 쫓겨나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참옹고집의 고달픈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

018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④

정답 해설 [B]와 <보기>에서 참옹고집으로 하여금 개

과천선할 것을 요청하는 발화가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발화가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보기>에서는 참옹고집이 먼저 ‘도사’ 앞에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있으므로, 개과천선을 요청하는 발화가 용서를 구하는 계기가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에는 ‘나의 어진 용심’이, <보기>에는 ‘정상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상황이 언급되었다. [B]의 ‘어진 용심’은 용서하는 짚옹고집이 지닌 것이고, <보기>의 ‘정상’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참옹고집의 처지와 관련된 것이다.

② [B]의 짚옹고집은 ‘후생에게’ ‘징계한 사례’로서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것이 사회적 효용이 됨을 밝히고 있고, <보기>의 도사는 참옹고집 가족의 가여운 상황을 고려하여 참옹고집을 용서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③ [B]와 <보기>에는 각각 참옹고집이 ‘부모 박대’하고,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하는 비인문적 행위가 징계의 사유로 제시되고 있다.

⑤ [B]의 짚옹고집이 ‘허수아비 찰벼 짚 묶음’으로 변하는 것이나 <보기>의 도승이 ‘홀연 간데없’어지는 것은 [B]와 <보기> 모두 도술과 같은 신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실전 학습 05

본문 213~215쪽

김정한, 「산거족」

▶ 수록 「산거족」의 동일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판자촌인 ‘마삿등’에 사는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인 황거칠 씨가 마을을 위해 식수원을 개발하여 쟁취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가난한 민중들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폭로하고 그러한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보여 준다.

| 주제 |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소외된 이들의 저항

| 전체 줄거리 | 마삿등 판자촌에 사는 황거칠 씨는 마을에 수도가 들어오지 않자 직접 산의 물을 끌어다가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때 호동팔이 나타나 물을 끌어오는 산이 자신의 형인 호동수의 산이므로 수도를 철거할 것을 통보한다. **☆교재 수록 부분**

황거칠 씨가 이에 불복하자 호동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 지게 된 황거칠 씨는 결국 물과 수도를 빼앗긴다. 이에 강제 철거가 진행되고 **☆작목 수록 부분** 황거칠 씨는 국유지 산에 새로운 우물을 파서 수도를 연결하지만 **☆교재 수록 부분** 또다시 국유지를 불허받았다는 산 임자가 나타나면서 마삿등 사람들은 수도 시설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황거칠 씨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불하 취소 투쟁을 할 것을 다짐한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김정한의 「산거족」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소재의 기능 파악,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을 묻고 있습니다.

김정한의 「산거족」은 2012학년도 4월 학력평가에도 출제되어 서술상의 특징, 갈등의 양상,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김정한의 작품은 권력에 의해 민중의 삶이 억압되는 사회적 부조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억압에 대한 민중의 강한 저항 의식을 사실적인 기법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 속에 민중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권력의 억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항하는 민중의 모습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면 이 작품의 다른 장면이나 김정한의 다른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019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이 글은 이야기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정황을 모두 알고, 이를 직접 서술

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과거에서 현재로의 시간적 순서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② 이 글에서 등장인물의 외양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장면마다 서술의 초점을 달리하고 있지 않다.

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 주는 기능을 하는 상징적인 시간적 배경은 나타나지 않는다.

020

갈등의 양상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배수 시설의 양도를 거절당한 동팔이는 어디 보자는 듯이 '마삿등' 일대에 자기대로의 시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호동팔이 수도 시설을 설치한 것은 자신의 제안을 황거칠 씨가 거부한 데 대한 반발 심리에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글에서 동네 사람들이 수도 시설과 관련하여 호동팔이에게 어떤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호동팔이(㉠)이 동네 사람들(㉡)이 제시한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죽일 놈!'이라는 황거칠 씨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호동수의 산이 아닌 다른 산에서 물을 끌어오기로 결심했다.'라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수도 시설을 헐값에 팔거나 공동 운영하자는 것은 결국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⑤ 동네 사람들은 '내일부터 당장' 수도 파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말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공동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021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황거칠 씨가 밝힌 '새로운 계획'은 새 수원 이 있는 굴밭나뭇골에 샘을 파서 마을로 끌어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획'이 '새 수원'을 찾아야 이를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② 국유임야에서 우물을 파고자 하는 것은, 그곳을 소유하지 않고도 물을 쓸 수 있기 때문이지 국유임야를 매입하려는 것은 아니다.

③ 황거칠 씨의 계획은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이지 호동팔이의 물을 쓰는 사람들을 응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④ 국유임야에 새로운 샘을 파서 마을로 끌어오는 것이 새로운 계획이지 호동팔이의 시설을 빌리는 것은 황거칠 씨의 계획이 아니다.

⑤ 물을 길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물에 수도를 연결하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02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우리들 것'은 황거칠 씨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마을에 설치한 배수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들 것'에 해당하는 것은 '마삿등' 일대의 배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⑤ '자기대로의 시설'과 '파이프'는 호동팔이 마을에 설치 하는 배수 시설을 의미한다.

③, ④ '호동수의 산'과 '마을 뒤 언덕배기'는 '우리들 것'과는 관계가 없다.

실전 학습 06

본문 216~219쪽

손창섭, 「비 오는 날」

▶ 수록 '읽어 인간'의 유사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6·25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울한 내면과 무기력한 모습을 다루고 있다. 장마철, 폐가 같은 집 등 음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시간적·공간적 배경은 전쟁 후의 처참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이 전쟁의 폭력성에 의해 무너

지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특히 역경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도 없고 방법도 찾지 못한 인물들의 모습은 패배적 삶에 빠진 당시 서민들의 삶을 잘 드러내고 있다.

| 주제 | 전쟁이 가져온 무기력한 삶과 허무 의식

| 전체 줄거리 | 원구는 피란지 부산에서 어릴 적 친구인 동욱을 만난다. 동욱은 누이인 동옥이 미군들에게 초상화를 판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동욱의 집을 방문한 원구는 자신을 외면하는 동옥이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교재 수록부분** 그 후 원구는 비 오는 날이면 동욱의 집을 자주 방문한다. 그러던 중 한 달여 만에 동욱의 집을 찾아가 원구는 집주인으로부터 동욱은 소식이 없고, 동욱 역시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는다. **★교재 수록부분** 원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자신을 탓한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손창섭의 「잉여 인간」이 전후의 혼란한 사회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공통점을 지닌 박경리의 「불신 시대」와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손창섭은 주로 전후 우리 사회의 타락한 인간상을 사실적인 기법으로 형상화한 작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잉여 인간」은 2019학년도 수능특강 문학에 수록되었던 「비 오는 날」과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 드러나는 우울하고 허무한 인간의 내면 상태와 무기력함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고, 전후의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비열한 속성을 포착할 수 있다면 손창섭 소설의 어떤 장면을 마주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023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A]에서는 ‘출랑출랑 쪼르륵 출랑’과 같은 청각적 심상과 ‘어둠’이라는 시각적 심상을 통해 장마철 눅눅한 방 안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A]는 과거형으로 진술되어 있다.

② [A]에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A]에 ‘~이었다.’와 같이 단정적인 표현은 등장하지만, 이러한 표현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인물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⑤ [A]에서 ‘무덤 속 같은’이라는 비유는 인물의 힘겨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비유를 활용한 상황의

묘사가 인물이 처한 운명이 개선될 여지를 제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2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이라는 인식은 ‘어떠한 포즈를 지속해야’ 할까 고민스러우며, 또한 ‘부엌에 나가’ 동욱의 일을 거들어 줄까 생각해 봐도 용기가 필요할 만큼 자연스럽지 않다는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동욱과의 어색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떠올린 행동들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 답답해하는 마음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이라는 판단에는 동욱과 교감을 나누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원구의 답답한 심정이 담겨 있다. 따라서 동욱의 관심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는 원구의 거부감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의 비유는 동욱의 신체적 이상을 발견하면서 느낀 원구의 슬픔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욱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의 비유는 ‘공포에 몸을 떨며’라는 뒤이은 표현을 볼 때 동욱의 공격적인 눈빛을 피하고 싶은 불편한 마음을 담은 것이다. 따라서 동욱과의 무의미한 만남을 중단함으로써 평안을 되찾은 원구의 안도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⑤ ㉣의 비유는 동욱이 처한 불행에 대한 아픔과 동욱을 지켜 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인한 힘겨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맞서기 힘들 만큼 몸집이 큰 상대방에게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볼 수 없다.

02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주인 사나이가 ‘무안한 눈길’로 바라보는 것은 자기 아이들의 실수로 동욱이 쓴 편지가 찢어졌다는 자신의 설명에도 원구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원구를 볼 낫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인 사나이의

연대 의식을 보여 준다고는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동옥의 ‘독이 오른 눈초리’는 궁핍한 삶과 자신의 신체적 불구를 타인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의미하므로 뿌리 뽑힌 삶으로 인한 위축감 때문에 타인을 경계하는 전후 세대의 불행한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지루한 비에 습기로 눅눅해진 방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원구는 자신의 ‘마음속에까지 곰팡이가 스는 것 같았다’고 하였으므로, 힘겨운 삶 속에서 느끼는 자기 연민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구가 ‘술과 통조림을 사 들고’ 동옥 남매를 찾아가려 하는 것은 ‘동옥이도 위로해 줘야겠다’는 생각에서 비롯한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원구는 동옥 남매에 대한 애정과 배려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같은 처지에 있는 소외 계층을 향한 연민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동옥 역시 어디로 가 버렸는지 모르겠다’는 주인 사나이의 말은 소식이 없는 동옥에 이어 동옥마저 삶의 터전을 잃고 살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외된 사람들이 더욱 큰 불행에 노출되고 있는 전후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떠올리게 한다고 볼 수 있다.

026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착각’은 ‘네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하는 흥분한 소리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듯하다는 생각을 일컫는다. 즉 주인 사나이에 대한 원구의 분노가 오히려 자기를 향한 것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옥을 자주 찾아오고 돌봐 주었다면 동옥이 집을 나가거나 혹은 팔려 가는 것과 같은 불행이 없었을 것이라는 원구의 회한의 정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착각’은 주인 사나이의 관심과 배려와는 관계가 없다.

② ‘착각’은 동옥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을 나타낸 것이다.

④ ‘착각’은 주인 사나이에 대한 비난과는 관계가 없다.

⑤ 동옥의 가출 원인과 원구가 느낀 ‘착각’과는 관계가 없다.

실전 학습 07

본문 220~224쪽

가 전쟁 소설의 성격

| 해제 | 이 글은 실재했던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박씨전」에서는 실제의 전쟁 결과와는 다르게 박씨 부인이 오랑캐군을 무찌른다는 허구적인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쟁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민족적 자존심을 고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장과 전장」에서 작가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전쟁의 폭력성을 다루며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 또한 내비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글쓴이는 제시된 두 작품을 통해 전쟁 소설이 실재했던 전쟁을 새롭게 인식하려 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 주제 | 전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시도했던 「박씨전」과 「시장과 전장」

| 구성 | 1.문단: 실재했던 전쟁을 제재로 한 「박씨전」과 「시장과 전장」

2.문단: 전쟁의 허구화를 통해 전쟁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음.

나 작자 미상, 「박씨전」

| 해제 |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여 허구적 인물인 박씨 부인이 청나라의 군대를 물리치는 영웅적 활약을 그리고 있다. 박씨 부인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피화당이라는 공간에 침입한 청나라의 군대를 영웅적 활약을 통해 무찌른다. 이를 통해 전쟁에서의 처참한 패배와 굴욕적인 화친으로 인해 손상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전쟁의 허구화를 통해 극복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 주제 | 오랑캐군을 무찌르는 박씨 부인의 영웅적 활약

| 전체 줄거리 |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문무를 겸전하여 명망이 높았던 이시백은 박 처사의 청혼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뜻에 따

라 박 처사의 딸과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시백은 신부의 용모가 천하의 박씨임을 알고 실망하여 박 씨를 대면조차 하지 않는다. 박 씨는 시아버지에게 청하여 후원에 피화당을 짓고 거처한다. 박 씨는 여러 가지 신이한 일을 드러내 보이지만 시백은 박 씨를 박대한다. 박 씨가 시기가 되어 허물을 벗고 절세가인이 되자, 시백은 크게 기뻐하여 박 씨의 뜻을 그대로 따른다. 이때 중국의 호왕이 용골대 형제를 내세워 조선을 침략하고, 박 씨는 신이한 능력으로 호왕을 막아 낸다.

④ 박경리, 「시장과 전장」 ▶ 수록 「불신 시대」의 유사 작품

해제 | 이 작품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상흔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제시된 장면에서는 중공군과 인민군이 서울에서 후퇴하면서 남긴 곡식을 서로 퍼담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참상으로 인해 생존하는 것조차 힘든 우리 민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또한 곡식을 담다가 총에 맞아 죽는 윤 씨의 모습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비극과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

주제 | 전쟁의 비극과 폭력성, 그로 인한 우리 민족의 수난

전체 줄거리 | 38도선 바로 아래 위치한 황해도 연백에서 국어 교사로 일하던 지영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서울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곧 피란길에 오르지만 한강 철교가 끊어져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지영의 가족은 인민군 치하에서 살아야 했지만, 남편 기석의 형 기훈(공산주의자)의 도움으로 탈 없이 지낸다. 인민군이 후퇴하고 국군이 서울을 되찾게 되자 기석은 잡혀가고 그의 구명 운동은 잘되지 않는다. 그 무렵 기훈은 지리산에 들어가 빨치산이 된다. 압록까지 밀고 올라갔던 국군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다시 후퇴한다. 중공군이 물러간 직후 어머니와 쌀을 구하러 나갔던 지영은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다. **☆교재 수록 부분** 이후 지영의 가족도 부산으로 피란을 간다. 한편 기훈은 가화라는 여자를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되고, 가화를 좋아하는 장덕삼은 가화와 기훈을 자수시키려 설득한다. 장덕삼의 오발로 가화는 죽고, 기훈은 장덕삼을 죽이고 사라진다.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박경리의 「불신 시대」가 전후의 혼란한 사회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손창섭의 「잉여 인간」과 함께 수록되었습니다.

박경리의 「불신 시대」는 전쟁의 극한 체험이 인간성을 훼손하고, 그로 인해 사회가 불신 시대로 전락하는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었던 「시장과 전장」과 연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전쟁을 이념적인 대립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생활과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면 두 작품의 다른 장면이 출제되더라도 어렵지 않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0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다)에서 윤 씨는 중공군과 인민군이 남기고 간 쌀을 얻으려 하다가 총에 맞아 죽는다. 지영은 죽은 윤 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올라 집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윤 씨와 지영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 구도를 형성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나)는 실재했던 전쟁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병자호란 때 조선은 청나라에 굴욕적으로 항복했지만, (나)에서는 박 씨와 박 씨의 명을 받은 계화의 활약을 통해 청나라 군대를 무릎 꿇게 한다. 이는 실재했던 전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욕망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에서는 여성 인물인 박 씨와 박 씨의 명을 받은 계화가 가해 세력으로 등장한 용골대 등의 무리와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다)는 실재했던 전쟁인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전쟁의 상흔을 직시하려는 의지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⑤ (나)에 등장하는 ‘용골대’는 실존 인물로,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의 군사를 이끌던 장군이었고, (다)에 등장하는 ‘중공군’ 역시 실제로 한국 전쟁 당시 참전한 중공군을 말하는 것이므로 ‘용골대’와 ‘중공군’은 모두 실재했던 전쟁을 환기하고 있다.

028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④

정답 해설 「박씨전」에서 박 씨가 청나라 군사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조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 의식과는 관련이 없다. 이는 박 씨를 너그럽고 관대한 인물로 설정하는 대신 청나라 군사들은

박 씨의 자비를 입어 목숨을 구하는 초라한 존재로 설정하여 민족적 자존심을 높히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기>의 「임장군전」에서 용골대가 승전비를 세우는 것은 자신의 전공을 자랑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이므로 조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 의식이 반영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나)에서 계화와 박 씨는 용골대를 꾸짖으며 굴복시키는 인물로 등장한다. 여기에는 실재했던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했던 치욕을 허구적 인물을 통해 심리적으로 보상받으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다. 그러므로 계화와 박 씨는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② <보기>의 「임장군전」에서 서술자는 ‘그 망극함을 어찌 측량하리오.’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서술자가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는 것이다. 이에는 패전한 나라의 백성이 느끼는 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박씨전」에서 용골대는 박 씨를 무찌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인물로, 「임장군전」에서 용골대는 조선을 침략하여 승리한 후 거만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처럼 용골대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린 것은 병자호란 당시 우리 민족이 겪었던 패전의 고통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박씨전」과 「임장군전」 두 작품에서 모두 왕대비는 청나라에 볼모로 가지 않는다. 그런데 「박씨전」의 경우 「임장군전」과 달리 박 씨의 영웅적 활약에 의해 왕대비가 청나라에 볼모로 갈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패전의 상실감을 위로받고자 했던 백성들의 욕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29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해설 용골대는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었으니, 어찌 분한치 않으리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수하 장졸들의 죽음을 박 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가득하고, 조

선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끌려가는 장면은 전쟁으로 인한 조선 백성들의 비극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조선의 도원수로 등장하는 인물인 김자점은 용골대의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관군의 무능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③ 박 씨와 박 씨의 명을 받은 계화의 활약을 통해 소설의 독자들은 패전으로 인한 고통을 위로받았다고 할 수 있다.

④ 오랑캐군을 은혜를 입은 나라를 침범하는 모습으로 설정하여 오랑캐군이 은혜를 모르는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30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굶주린 이리 떼’는 전쟁으로 인한 굶주림에 지쳐 곡식을 보고 달려드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곡식을 향해 달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굶주린 이리 떼’라 표현하고 있는 장면은 아직 윤 씨가 총에 맞기 전의 상황이므로 ‘굶주린 이리 떼’가 이웃의 죽음조차 외면하는 냉혹한 존재로 변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윤 씨는 식량을 얻으려다가 총에 맞아 죽는다. 이는 실제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과 그렇지 않은 후방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갈가마귀 떼처럼 몰려들어 가마니를 열고, 약을 쓰며 곡식을 퍼 담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쟁으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조차 상실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④ 윤 씨는 곡식을 퍼 담다가 총에 맞아 죽게 되는데, 윤 씨는 죽으면서까지 쌀자루를 껴안고 있다. 윤 씨의 피에 젖은 쌀자루는 전쟁의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인물의 희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지영은 총에 맞아 죽은 윤 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 올라 집에 돌아온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로 벼랑을 기어오르는 것은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⑤

031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다)에서 김씨 부인은 “큰일 나요! 큰일 나, 지금 가면 안 돼요! 얘기를 어쩌려고 그러는 거요.”라고 말하면서 윤 씨를 찾아 강변으로 달려가는 지영을 만류하고 있다. 하지만 지영은 언덕길을 미끄러지는 듯 달려가 강변에 도착하여 죽은 윤 씨를 업고 집으로 돌아온다.

오답 피하기 ① (나)에서 용골대는 처음에 화살로 공격을 했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화약 염초를 이용하여 화공을 쓰게 된다.

② (나)에서 박 씨가 오랑캐군을 공격한 것은 왕대비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용골대가 ‘내 아우가 불행하여 네 손에 죽었지만, 네 나라의 화친 언약을 받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박 씨가 오랑캐군과 조선의 화친 언약을 몰랐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다)에서 윤 씨가 김씨 댁 아주머니와 함께 식량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도교가 아니라 한강 모래밭이다.

⑤ (다)에서 윤 씨는 “피란 안 갔다고 야단맞지 않을 까요?”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윤 씨는 피란을 간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2

사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다)에서는 ‘중략’ 이전에 한강 모래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식량을 자루에 담아내는 장면, 윤 씨가 사람들을 따라 곡식을 퍼 담다가 총에 맞는 장면, 그리고 ‘중략’ 이후에 지영이 윤 씨를 찾아 강변으로 달려가 죽은 윤 씨를 업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인물의 행위가 현재형 시제를 통해 연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의 긴박감이 잘 드러난다.

오답 피하기 ① (다)는 회상의 형식이 아니며, 인물 간의 갈등 역시 제시되고 있지 않다.

② (다)는 한국 전쟁이라는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긴 하지만 시간적 배경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지 않으며, 성격 변화를 보여 주는 인물 역시 제

시되지 않는다.

③ (다)에는 인물의 경험이 관념적으로 서술되고 있지 않다. 또한 윤 씨의 죽음이라는 사건의 원인은 알 수 있지만, 이를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④ (다)에 윤 씨와 김씨 댁 부인 간의 대화가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날 뿐 과거로 돌아가려는 인물의 심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실전 학습 08

본문 225~228쪽

㉠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 해제 | 이 작품은 작가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충청도 예산으로 돌아와서 창작한 은일 가사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서사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소회를 제시한 후 본사에서는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풍경과 전원생활에서 느끼는 재미, 풍요로운 전원생활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결사에서는 자연에 은거하는 삶에 대한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일상적 시어를 통해 농촌 생활의 모습을 잘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 주제 |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전원생활의 즐거움

| 구성 | 서사: 고향으로 돌아온 소회

- 본사 1: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풍경과 전원생활에서 느끼는 재미
- 본사 2: 월선헌 주변의 풍요로운 삶
- 결사: 자연에 은거하는 삶에 대한 다짐

㉡ 권근, 「어촌기」

▶ 수록 「애오잠병서」의 유사 작품

| 해제 | 이 작품은 나랏일에 몸이 매여 있으면서도 강호를 그리워하는 공백공이라는 인물을 통해 자연을 즐기며 자유로운 정신을 지향하는 사대부들의 강호에 대한 애정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공백공이 지향하는 어부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을 사랑하여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으로, 이러한 어부의 삶을 지향하는 공백공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강호에 묻혀 살려는 신흥 사대부의 풍류를 확인할 수 있다.

| 주제 | 강호에 머물며 자유롭게 사는 삶의 즐거움

| 전체 줄거리 | 나의 벗 어촌(공백공)은 풍채와 인품이 소탈하고 명량하다. 벼슬에 오르자 사람들은 그에게 원대한 기대를 하였으나, 그는 담담하게 강호의 취미를 지니고 있다. 하루는 나

에게 어부 생활에서 느끼는 감회와 즐거움을 말해 준다. 나는 이를 듣고 즐거워하며 그대로 기록하여 백공에게 보내고, 또한 자신도 살피고자 한다. **★고제 수록부분**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고전 수필인 이달총의 「애오잠병서」를 고려 가요인 정서의 「정과정」,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인 「개야미 불개야미~」와 함께 수록하여 세 작품에서 평판에 대응하는 화자(글쓴이)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달총의 「애오잠병서」는 사람다움에 관한 평가를 대하는 올바른 관점을 '유비자'와 '무시옹'의 대화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고려 시대의 수필인데요, 그런 점에서 강호에 머물며 자유롭게 사는 삶의 즐거움을 '어촌'이라는 인물의 말을 인용하며 소개하고 있는 권근의 「어촌기」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어촌기」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었던 작품으로, 인물의 말하기 방식,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항 등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 작품이 작가인 '권근'이 자신의 생각을 작품 속에 드러내는 방식에 대한 글임을 설명하고 있는 <보기>를 참고하여 작품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도 출제되었습니다. 「어촌기」에서 '어촌'은 고사 속의 인물과 자연물에 빗대어 자신이 강호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유를 밝히고 있기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문항에 제시된 <보기>를 활용하면 '어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낯선 작품이나 어려운 작품이 출제될 경우, <보기>를 통해 그 작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면, 그 작품은 더 이상 낯설거나 어려운 작품이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03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나)의 공백공은 자신의 뜻이 어부에 있다고 말하며 때때로 낚싯대를 잡고 노를 저어 조류에 따라 강물을 오르고 내리다가 모래가 깨끗하면 뱃줄을 매어 두고, 산이 좋으면 강 가운데를 흘러 경치를 완상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공백공이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삶을 즐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삶의 고독을 해소하려는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피하기 ① ㉠에는 계를 잡는 아이들이 그물을 들고 있는 가을날 전원의 풍경이 나타나 있으며, ㉡에

는 공백공이 갈매기와 백로를 벗으로 여기며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③ ㉢에서 화자는 초가를 비추고 있는 빛이 임금이 계신 옥루도 비추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에서 공백공은 자신이 탄 배가 흰 물결을 일으키고 달빛을 헤치고 나가면 마치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맑고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나타내고 있다.

④ ㉤에서 화자는 술을 마시기 위해 잔을 기울이는 것을 술잔에 비치어 있는 달빛을 기울인다고 말하며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운치 있게 나타내고 있다. ㉥에는 공백공이 벗과 함께 구운 고기와 생선회를 안주로 술을 마시는 흥겨운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⑤ ㉦에서 화자는 춘추추동의 경치가 아름답고 낮과 밤, 아침과 저녁에 자연을 완상하는 즐거움이 새롭기 때문에 몸은 한가하지만 귀와 눈이 바쁘다고 말하며 변화하는 자연을 완상하는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에서 공백공은 그물을 건어 올릴 때 금빛 같은 비늘과 옥같이 흰 꼬리를 가진 물고기가 펄떡거리는 모습이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해 생동감 넘치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0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A]에서 화자는 누렇게 곡식이 익은 들판, 계를 잡는 아이들과 물고기를 파는 어부의 모습 등을 통해 가을날 전원생활의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설의적 표현을 통해 가을날 전원의 풍경이 경치가 좋을 뿐만 아니라 생활이 괴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생리라 괴로오랴'를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만경 황운'은 아주 넓은 들판에 벼가 누렇게 익은 모습을 나타낸 비유적 표현으로, [A]에서 화자는 가을날 추수를 앞둔 들판의 모습을 '만경 황운'에 빗대어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드러내고 있다.

② [A]에서 화자는 증양절이 다가왔다고 말하며 '내

노리'를 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가을날 전원생활의 여유로움을 청유형 표현을 통해 나타낸 것에 해당한다.

③ [A]에서 화자는 가을이 되어 붉은 게가 여물었고 노란 닭이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드러낸 것에 해당한다.

④ [A]에서 화자는 밝은 '밤불' 속에서 게를 잡는 아이들의 모습과 밀물이 밀려오는 호두포의 모습을 묘사하며 가을날 전원생활의 모습을 현장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035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나)의 공백공은 낮과 저녁, 깊은 밤, 그리고 여름날과 겨울날의 강의 풍경을 제시하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나)의 공백공은 자신의 뜻이 어부에 있다고 말한 후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나'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공백공의 말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과도 관련이 없다.

③ (나)의 공백공은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어부의 즐거움은 없는 때가 없다.' 등과 같이 자연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후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있다. 따라서 공백공이 대화의 상대인 '나'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자신의 생각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의 공백공은 강호에 뜻을 두고 노래에 의탁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에게 묻고 있을 뿐, 질문에 답을 하고 있지는 않다.

⑤ (나)의 공백공은 자연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행위를 시간에 따라 제시하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있지는 않다.

03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나)의 작가는 공백공이 자신과 태어난 해는 같으나 생일이 늦기 때문에 자신이 그를 아우라고 부른다고 언급한 후, 공백공의 말을 듣고 즐거움을 느껴 그 말을 기록하여 공백공에게 보낸 후, 작가 자신의 삶도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공백공이 추구하는 삶은 그의 사욕 없는 마음과 사물을 초탈한 삶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백공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작가로부터 전해 받은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나)에서 공백공은 영달에 얽매어 벼슬하는 자와 달리 영화에 매달리지 않고 편안함을 추구하며,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와 달리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유유자적을 즐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공백공이 공명을 가볍게 여기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작가는 자신이 공백공의 말을 기록한 것이 공백공의 말을 듣고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힌 후, 작가 자신의 삶도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말을 통해 작가가 공백공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공백공은 강태공이 성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강태공과 주 문왕이 만난 것과 같은 만남을 기억할 수 없으며, 엄자룽은 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엄자룽의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공백공이 겸손한 성품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 준다.

⑤ (나)의 작가는 공백공이 대과에 급제하여 좋은 벼슬에 올라 나라의 옥새를 주관하는 관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사욕이 없어 사물에 초탈한 인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품으로 인해 그의 음성은 맑고 밝아 천지에 가득 찰 듯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백공에 대한 이러한 작가의 평가는 공백공의 말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작가의 생각이 반영된 것에 해당한다.

037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㉑에서 화자는 ‘강호 여조’와 한 맹세가 있지만 관직 생활에 대한 꿈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긍정하면서도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㉒에서 공백공은 자신의 몸은 비록 관직에 있지만 뜻은 강호에 두고 노래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공백공이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㉓ ㉑에서 화자가 정치 현실에 미련을 간직하고 있음은 드러나지만, 정치 현실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음은 확인할 수 없다. ㉒에서 공백공은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드러낼 뿐, 그 이유가 정치 현실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㉔ ㉑에서 화자는 정치 현실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을 뿐, 경치를 완상하며 정치 현실의 번뇌를 해소하려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㉒에서 공백공이 정치 현실과의 갈등으로 인해 강호에 은거하려 한다는 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㉕ ㉑에서 화자가 늙음으로 인해 정치 현실을 체념한다는 점은 나타나지 않으며, ㉒에서 공백공이 정치 현실을 외면하면서 강호에 은거하려 한다는 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㉖ ㉑에서 화자가 정치 현실의 이상 실현을 위해 임금께 맹세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으며, ㉒에서 공백공이 정치 현실의 폐단에 실망하여 강호에 은거하려는 희망을 지니게 되었음도 나타나지 않는다.

실전 학습 09

본문 229~231쪽

작자 미상, 「옥단춘전」

▶ 수특 「옥단춘전」의 동일 작품

해제 | 이 소설은 평양 기생 옥단춘의 순정과 절의, 그리고 이혈룡과 김진희 사이의 그릇된 우정 문제를 주요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고난에 찬 주인공인 이혈룡의 처지가 마지막에는 행복으로 전환되면서 악인인 김진희가 천벌을 받는 권선징악이 실현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당시의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소설은 어린 시절 친구 간의 약속을

어긴 김진희의 배신이라는 요소와 이혈룡에 대한 옥단춘의 헌신과 신의 문제를 조명하면서 인물들 사이의 신의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몰락한 사대부에 대한 기생의 동정적인 사랑과 몰락한 사대부가 과거에 급제해 암행어사로 입신출세하는 모티프는 조선 후기 애정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의 소재로 볼 수 있다.

주제 | 영락한 사대부에 대한 기생의 사랑과 신의를 저버린 자에 대한 복수

전체 줄거리 | 김진희와 이혈룡이 한 글방에서 공부하였는데 모두 총명한 재주가 옛사람들을 능가하였다. 두 사람은 부모님들의 남다른 우의를 생각하여 출세하면 서로 도와주기로 맹세한다. 과거에 급제한 진희는 평양 감사가 되었으나 혈룡은 곤궁한 처지가 되었다. 어느 날 혈룡은 진희를 찾아갔으나 진희는 혈룡을 외면하고 그를 죽이려 한다. 이때 기생 옥단춘이 혈룡의 비범함을 보고 그를 구출한 다음 **☆노제수룩부님☆수룩수룩부님** 가연을 맺고 행복하게 지낸다. 이어 혈룡은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되어 **☆고제수룩부님** 걸인 행색으로 옥단춘을 찾아가는데, 그녀는 변함없이 혈룡을 반긴다. 혈룡은 연광정에서 잔치를 벌이고 놀던 진희를 다시 찾아가는다. 김진희는 이혈룡이 나타나자 그를 다시 죽이려 하지만, 혈룡은 어사출두를 알린다. **☆수룩수룩부님**

특수독부님

연결 포인트

수능특강에서는 작자 미상의 「옥단춘전」을 단독 지문으로 수록하여 인물을 통해 작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구절의 의미를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유교의 중요한 덕목인 ‘신의’의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도 묻고 있습니다.

이혈룡과 김진희라는 친구 사이의 우정과 배신, 이혈룡에 대한 기생 옥단춘의 사랑과 신의를 그리고 있는 소설인 「옥단춘전」은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에 출제되었습니다. 수능특강과 마찬가지로 김진희가 이혈룡을 죽이려 하자 옥단춘이 이혈룡을 구해 주는 장면이 출제되었는데, 이 장면은 김진희의 인간성과 옥단춘의 인물 됴됨이를 잘 보여 준다는 점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장면의 갈등 상황을 잘 이해한다면 모의평가에서 출제되었던 서술상의 특징이나 주제적 여성으로서의 옥단춘의 특성을 묻는 문항뿐만 아니라, 「옥단춘전」에 대한 다른 문항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038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㉑에서 이혈룡이 ‘소신과 같이 무재무능한

자를 이처럼 충신지자충신이라 하시오니 황공무지하오며'라고 말하는 것은 겸양의 자세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림을 제수하시니 더욱 황공하옵니다.'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지 임금이 내린 한림학사라는 벼슬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에서는 '쓸데없고', '쓸데없구나'를 반복하여 김진희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내고 '내가 네 처지라면'에서 보듯이 역지사지를 가정하여 상대방을 질책하고 있다.

② ㉡ 앞에서 옥단춘이 몸값을 후하게 준다며 이혈룡을 죽이지 말라고 사공들에게 부탁하자, 사공들은 '어찌 우리 손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는가.'라는 설의적 표현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에서는 '죽었던 자식 다시 본 듯', '잃었던 낭군 다시 본 듯'처럼 모친과 부인의 입장에 어울리는 직유법을 통해 재회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④ ㉣에서는 '글을 지을 생각을 ~단숨에 일필휘지하여 바쳤는데'까지가 글 짓는 과정을 행동의 순차적 나열로 보여 준 것이고, 글자마다 비점을 찍고 글귀마다 관주를 치는 행위는 임금이 이혈룡의 글을 읽고 한 것으로, 그의 재능에 대해 높이 평가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039

소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이혈룡은 김진희의 '학정'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임금께 아뢰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후 사실을 일일이 비밀스럽게 기록하여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이 이를 보고 수없이 탄식한 후에 이혈룡을 암행어사로 임명한 것이므로, '학정'은 사실대로 보고된 것이며,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이혈룡은 과거의 글재인 '천하태평춘'에 대한 탁월한 답안을 제출해 장원 급제를 한 것이다.

② 이혈룡이 장원 급제를 하여 한림학사 지위를 제수 받게 되었으므로, '장원 급제'는 이혈룡이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밀록'을 임금에게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④ '밀록'은 김진희의 학정 때문에 작성된 것이고, 김진희가 학정을 한다는 것은 천하(나라)가 아직 태평

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⑤ 첫째 봉서 안에 이혈룡을 평안도 암행어사로 봉하는 사령장과 마패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봉서'는 임금이 이혈룡에게 김진희의 '학정'을 바로잡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4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이 글에서 옥단춘은 김 감사(김진희)가 이혈룡을 대동강 한가운데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고 이혈룡을 동정하여 스스로 나서서 이혈룡의 목숨을 구한다. 그러므로 옥단춘이 이혈룡을 구해 줄 수 있는 인물로 김 감사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옥단춘은 사공들을 회유하여 이혈룡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오한을 핑계 대고 연회장을 빠져 나왔으므로 특별하고 뛰어난 지혜를 지닌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지인지감'은 인물의 비범함을 알아보는 능력이다. 옥단춘이 이혈룡을 의복은 남루하나 얼굴이 비범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것은 그녀가 지인지감을 소유했음을 알려 준다.

④ '동시에 옥단춘이 이혈룡을 구제한 전후 사실을 듣고, 그 은혜를 서로 치사하여 마지않았다.'를 통해 이혈룡의 가족들이 조력자로서 옥단춘의 역할을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연회장에서 처음 본 이혈룡의 비범함을 보고 그를 동정하여 사공들에게 후한 몸값을 주고 살리려는 옥단춘의 태도에서 그녀의 적극적인 조력 의지를 엿볼 수 있다.

I 교과서 개념 학습

본문 10~29쪽

001 ② 002 ② 003 ③ 004 ③ 005 ⑤ 006 ②
 007 ⑤ 008 ③ 009 ⑤ 010 ② 011 ② 012 ④
 013 ② 014 ④ 015 ④ 016 ④ 017 ④ 018 ③
 019 ⑤ 020 ⑤ 021 ① 022 ⑤ 023 ②

II 적용 학습

본문 32~195쪽

001 ④ 002 ④ 003 ① 004 ② 005 ④ 006 ④
 007 ③ 008 ⑤ 009 ② 010 ① 011 ① 012 ④
 013 ② 014 ⑤ 015 ③ 016 ④ 017 ② 018 ③
 019 ② 020 ⑤ 021 ⑤ 022 ⑤ 023 ① 024 ④
 025 ② 026 ⑤ 027 ⑤ 028 ① 029 ④ 030 ③
 031 ④ 032 ③ 033 ③ 034 ④ 035 ② 036 ③
 037 ① 038 ④ 039 ③ 040 ③ 041 ④ 042 ①
 043 ⑤ 044 ① 045 ③ 046 ⑤ 047 ③ 048 ⑤
 049 ④ 050 ⑤ 051 ⑤ 052 ④ 053 ① 054 ④
 055 ⑤ 056 ① 057 ④ 058 ② 059 ⑤ 060 ⑤
 061 ① 062 ⑤ 063 ⑤ 064 ④ 065 ⑤ 066 ③
 067 ③ 068 ② 069 ① 070 ④ 071 ① 072 ①
 073 ⑤ 074 ③ 075 ④ 076 ④ 077 ① 078 ②
 079 ② 080 ① 081 ② 082 ② 083 ③ 084 ④
 085 ② 086 ④ 087 ① 088 ③ 089 ④ 090 ②
 091 ④ 092 ① 093 ④ 094 ⑤ 095 ④ 096 ④
 097 ① 098 ③ 099 ① 100 ④ 101 ⑤ 102 ①
 103 ② 104 ② 105 ② 106 ③ 107 ④ 108 ④
 109 ⑤ 110 ⑤ 111 ⑤ 112 ③ 113 ③ 114 ④
 115 ③ 116 ② 117 ⑤ 118 ③ 119 ⑤ 120 ⑤
 121 ④ 122 ④ 123 ⑤ 124 ③ 125 ⑤ 126 ⑤
 127 ④ 128 ③ 129 ② 130 ① 131 ④ 132 ⑤
 133 ③ 134 ⑤ 135 ② 136 ④ 137 ⑤ 138 ④
 139 ② 140 ② 141 ④ 142 ① 143 ⑤ 144 ②
 145 ⑤ 146 ④ 147 ③ 148 ① 149 ② 150 ②
 151 ③ 152 ④ 153 ④ 154 ③ 155 ⑤ 156 ②
 157 ① 158 ⑤ 159 ④ 160 ① 161 ⑤ 162 ⑤
 163 ② 164 ⑤ 165 ② 166 ④ 167 ② 168 ⑤
 169 ⑤ 170 ① 171 ⑤ 172 ② 173 ④ 174 ③
 175 ① 176 ④ 177 ③ 178 ④ 179 ② 180 ①
 181 ④ 182 ⑤ 183 ④ 184 ③ 185 ③ 186 ②
 187 ② 188 ⑤ 189 ⑤ 190 ④ 191 ② 192 ④
 193 ⑤ 194 ⑤ 195 ② 196 ⑤ 197 ④ 198 ①
 199 ③ 200 ⑤

III 실전 학습

본문 198~231쪽

001 ① 002 ① 003 ④ 004 ② 005 ① 006 ⑤
 007 ③ 008 ⑤ 009 ③ 010 ③ 011 ② 012 ④
 013 ① 014 ④ 015 ③ 016 ③ 017 ① 018 ④
 019 ③ 020 ④ 021 ① 022 ① 023 ③ 024 ②
 025 ⑤ 026 ③ 027 ④ 028 ④ 029 ⑤ 030 ③
 031 ③ 032 ⑤ 033 ② 034 ⑤ 035 ① 036 ③
 037 ① 038 ⑤ 039 ③ 040 ②



memo

